



특 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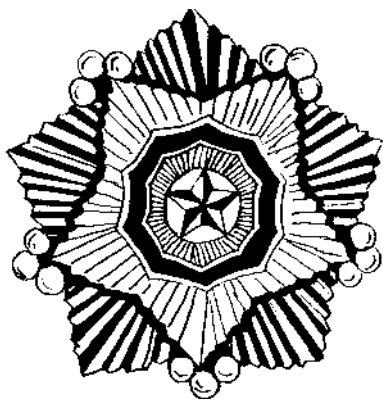


10

주제104(2015)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10호

(루계 제816호)

특간호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김 정 은

차 례

~~~~~ | 기념특집 |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둥 만세! | 기념특집 | ~~~~~

|                                  |             |
|----------------------------------|-------------|
|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며 (시) .....        | 박 근 원 (4)   |
| 그때는 몰랐다 (시) .....                | 리 영 봉 (5)   |
| 70년의 진리 (시) .....                | 권 오 준 (5)   |
| 당이며 (시) .....                    | 럼 형 미 (6)   |
|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 (7)         |
| 더 높이 날려라 《E. D》의 기차 (시) .....    | 류 민 호 (7)   |
| 10월의 광장에 태양이 빛난다 (시) .....       | 리 명 근 (8)   |
| 나의 인생 당과 함께 (수기) .....           | 김 영 희 (9)   |
| <b>주체문학의 대강</b> .....            | (11)        |
| 당의 모습 (시) .....                  | 동 기 춘 (11)  |
| <b>단편소설</b> <b>미곡벌의 가을</b> ..... | 변 월 녀 (12)  |
| <b>해방의 첫 기슭에 울려 퍼진</b>           |             |
|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송가 (평론) .....       | 김 려 속 (20)  |
| ◇ 가    원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     | 림    철 (10) |
| 조선로동당원증 .....                    | 리 명 학 (23)  |
| 사    ◇ 래일에 또 와보세요 .....          | 문 영 철 (40)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  
에 뿔뿔이 들어서야 합니다.》

김 정 은

~~~~~ 기념특집 |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만세! | 기념특집 ~~~~~

단
편
소
설

| | |
|----------------------|-----------|
| 목화숨이불 | 황 용 남(24) |
| 종소리 | 강 철(45) |
| 우리네 바다엔 노래도 많다 | 김 흥 군(57) |

수
필

| | |
|--------------------|-----------|
| 한 로당원에 대한 추억 | 최 인 혁(41) |
| 봄부터 가을까지 | 편 재 순(43) |

시

| | |
|------------------------|-----------|
| 어머니는 젊으시다 | 김 경 남(42) |
| 첫딸의 출생증을 놓고 | 전 승 일(44) |
| 그는 어디 있는가 | 한 옥 란(73) |
| 나의 당원증 | 문 선 건(74) |
| 가을이 조국을 향해 웃고있다 | 리 진 협(74) |
| 우리네 조선옷 세상에 으뜸일세 | 최 희 정(75) |
| 나는 남강의 녀인이다(시초) | 김 명 옥(76) |
| 나의 아버지 | 백 리 향(19) |

나라의 귀중한 보배—전쟁로병들의

| | |
|---------------------|-----------|
| 정신세계를 더듬어(연단) | 윤 혜 영(78) |
|---------------------|-----------|

| | |
|-----------|------|
| 상 식 | (56) |
|-----------|------|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며

박 근 원

부르고불러도
또 부르고만싶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
내 지금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며
그대 이름 다시금 송엄히 부르노라

조용히 외우기만 해도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얼었던 심장도
천년동토대도 녹이는
그대는 불
그대는 빛

대대로 애국의 혈통을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불이 되신
백두산절세위인들
위대한 그 품에서 탄생하고
위대한 그 품에서 존엄떨친
그대는 영원한 불길 영원한 빛발

그 불길 그 빛발로
선군의 강국을 일떠세우고
이 나라 천만군민에게
백두의 혈통 백두의 넋을 준
그대는 우리 조국의 승리의 기치
그대는 우리 삶의 심장

백두의 붉은기 높이
온갖 력사의 반동들을 쳐갈기고
근로하는 인민모두를
세상에 주인으로 내세워
자주의 새 력사를 펼친
그대는 인민중심세계의 창조자

백두의 장군 우리 원수님

위대한 태양기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휘날리시어
천만년 세월이 가고 또 가도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울
그대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그대 새겨온 년륜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한평생 걸으신 헌신의 자욱자욱
그대 새기는 년륜은
우리 원수님 걸으시는
승리와 영광의 자욱자욱

백두장군들의 그 자욱 따르며
그대를 받들어 생이 빛발치는
김혁, 차광수, 오종흠, 김책...
허담, 심창완, 리찬선, 연형묵...
수백수천 충신의 모습들
그들의 생에는 닫는 문이 없으랴

그들은 오늘도 살아숨쉬며
영광의 대오에 함께 서있다
세상이 열백번 뒤집혀도
태양만을 따르는 영원한 별
혁명의 1세대 2세대...
충신의 전세대들의 뒤를 따라
내 들어서노라
10월의 대축전장에

축포의 꽃보라로 하늘땅을 짝 채운
10월의 대축전장
여기서 나는 듣는다
인간의 꿈과 리상의 상상봉
자주의 세계로 인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당 그대 백두의 발구름소리를

그때는 몰랐다

리 영 봉

그때는 누구도 몰랐다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
빨찌산군복차림 그대로 강선을 찾으시여
오랜 시간 노동자들을 만나주셨는데
뜻밖에도 그 다음날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창건하신줄

정녕 몰랐다
당창건을 하루 앞두고
만나셔야 할 사람 하셔야 할일 많으시련만
어찌하여 강선의 노동계급부터 만나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바치셨는지

우러러 바라보면 숨엄히 안겨오는
당기발에 굵게 새겨진 마치－
우리는 알았다
용해장의 쇠찌꺼기마냥
채이고 짓밟히던 용해공 조괴공들
바로 우리들이 당을 받드는 기둥이라는것을

우리는 알았다
우리모두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
한사람한사람 따듯이 만나주신것은

아버이 우리 수령님의
력사적인 당창건준비로 되었다는것을

아, 당 우리 당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아이들도 어른들도
젖품을 찾는 아기처럼 당을 따르며
한생을 빛내이는것 아니더냐

그래서 오, 그래서
우리 당을 억년 드놀지 않을
강철의 당으로 다지려
해방후 첫 쇠물과 함께
전후의 첫 출강도 천리마의 첫 봉화도
선참 추켜들며
강선은 강철로 당중앙을 웅위해왔거니

10월 9일
뜻깊은 이날은
막별이군으로 버림받던 우리 노동자들이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리 당의 맡아들로 새로 태어난 날이 아니던가

70년의 전리

권 오 준

내 마음의 꽃다발 삼가 드리노라
70년의 장구한 로정을
당기를 앞세우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들의 불멸의 생애앞에

따뜻한 봄빛과도 같이
누리에 빛발치는 성스러운 그 기폭
내 숨엄히 우러를수록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 뜨겁게 어려오는
아, 태양의 모습

돌이켜보면 이 세상 그 누가
우리 수령님들처럼
한평생 당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임없이 휘날린적 있었던가

인류의 행성에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홀려온 당력사의 갈피갈피를 번져보면
한때 명성을 떨친 당들도 있었고
대중의 인기를 모은 당들도 있었건만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그대처럼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일색화되고
인민들이 한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당은
오로지 우리 당 하나뿐이 아니던가

해마다 맞는 10월 10일
이날이 오면 더더욱 깊어지는 인민의 생각
자기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바치는 당은
오로지 우리 당 그대뿐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이 땅에선 어디 가나
환희로운 10월의 노래가 울리고
산간벽지 두메산골에서도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 퍼지나니

무변광대한 저 하늘을 덮은
성스러운 우리 당 기폭이어
그대의 자랑스러운 펄럭임은
조선로동당 그 이름과 함께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들의 심장의 고동소리

그래서 우리 원수님
수령님들의 불타는 그 심장 안으시고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최후승리의 기치로 세워주셨나니

세월의 광풍에도 흔들림 없고
력사의 역풍에도 끄떡없는
위대하고 존엄높은 당기를 우러러
내 심장으로 새겨안은 진리로 웨치거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의
사상과 뜻과 정과 숨결로 흘러온
태양의 력사이라고!

당 이 여

럼 형 미

날이 갈수록 철이 들수록
어머니 귀함을 깨닫는 자식처럼
당이어 그대의 귀중하고 위대함을
내 갈수록 사무치게 느끼노라

그대 걸어온 70성상의 길에
힘겨운 자육도 많았건만
내 태어나기도 전엔
붉은 당기로 요람을 감싸안고
나를 기다린 어머니

당이어 그대는 나를 키운 손길
탁아소로부터 대학으로
배움의 층층계단 놓아주고
어제날 산골소녀의 노래 시집으로 엮어
온 세상에 빛내준 사랑의 손길

당이어 그대는 나를 키운 눈빛
어릴적 가슴에 단 빨간별로부터
한생의 기쁨과 아픔 다 헤아리며
순간도 뒤흔들지 않게 마음을 닦아주는
한없이 그윽하고 인자한 눈빛

당이어 그대는 나를 키운 심장
고난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랑만과 성격과 배짱을 주고
강철의 당대오에 피줄을 이어준
믿음으로 고동치는 거대한 심장

당이어 그대의 기발 우러르면

나에겐 우렷이 보여오나니
마치와 낫과 붓을 틀어쥐고
조선이란 큰집 가꾸고 지키는
강직하고 미더운 어머니가

어머니없는 집 빈집이이고
어머니없는 자식 고아이듯이
그대의 기폭 나뉘기지 않는다면
우리 하늘이 이처럼 눈부시고
우리 대지가 이토록 든든하라

그대가 땀을 뿌린 산천으로 하여
그대가 뉘을 준 자식들로 하여
날마다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나날이 존엄높고 강대해지는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아, 자부하노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고결하고 훌륭한
어머니를 모신 행운
내 그 생명을 받은 한 당원임을

승리와 영광의 70돐을 맞는
당이어 어머니시여
받으시라 오늘날은 만시름 잊고
받으시라 오직 그대밖에 모르는
수천만 자식들이 심장에서 피운
불타는 꽃바구니
불타는 꽃다발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10월 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주일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무었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맺는 조직을 라도제국주의동맹으로, 약칭으로는 <ㄷ.ㄷ> 라고 할 것을 제의하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명체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였다.》

더 높이 날려라 《ㄷ.ㄷ》의 기치

류 민 호

아득한 광야에 어둠을 태우며
화전의 언덕에 타오른 불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오늘도 탄다
아, 《ㄷ.ㄷ》의 해불!

우러르면 눈앞에 어려온다
《ㄷ.ㄷ》의 강령을 선포하시던
10대의 젊으신 수령님 모습
어이 잊으랴
동트는 새벽하늘에 울리던 그날의 환호

화전의 작은 집 추녀는 낮았어도
그 뜻은 얼마나 높았던가
제국주의와의 대전을 선포한 대용단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투쟁강령

길지 않았다
하나 거기엔 맥맥히 다 있었다
성스러운 우리 당의 뿌리
선군총대의 시원
그것이 곧 승리의 기치였나니

헐치 않았다
그 기치를 날리며 달려온 길은
얼마나 멀고 험난했던가
혁명의 첫 기슭에서
첫 자욱을 땀 《ㄷ.ㄷ》의 산아들
사선을 헤치며 희생도 있었다

하나 그 어떤 폭풍에도 시련에도

높이 든 그 기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결의 중심 수령님두리에 뭉쳐
무장에는 무장으로
수령님 따라서 총성높이 울리며 전진했다

신념의 넓이였다 의지의 나래였다
추켜든 그 기치
조국해방의 날을 부르며
혈전만리 눈보라만리에
해불처럼 타올랐다

그 기치 날리며
식민지예속의 철쇄를 끊고
일제의 무릎을 꿇게 했다
그 길을 이어 또다시
미제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았고
주체의 선군총대로 강국을 일떠세웠다

오, 백두의 광야에 뿌리내린
《ㄷ.ㄷ》의 혈통을 이은 우리 당은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위대한 당으로
승승장구하고있나니

영원불멸의 기치
백승의 해불인
《ㄷ.ㄷ》의 위대한 기치를
우리 휘날려가리라
선군령장 김정은동지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힘차게...

10월의 광장에 태양이 빛난다

리 명 근

환호

환호

다함없는 인민의 환호

당창건 70돐을 맞는 경축광장

조선로동당 제1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인민이 드리는 열광의 환호

강산에 메아리친다

위대한 수령님들 령도따라

우리 당이 걸어온 70년 역사를

이 순간에 다 안아보시는듯

감회깊으신 그이의 안광이

온 광장에 뜨겁게 굽이친다

잊을수 없는

당대표자회 그날

처음으로 그이를 뵈옵고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벌써 당의 모습으로 새겨지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빛나는 그 나날들이

인민의 가슴가득 안겨와라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당의 만년초석을

억척으로 다져주신 그 나날들

전당을 하나의 전일체로

더 역세게 묶어세우시고

위대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의 강철의 의지를

온 세상에 시위해온 그 나날들

우리 당의 령도아래

대지를 박차고 오른 우리 위성

지심을 뒤흔든 장엄한 핵폭을

간곳마다 쏘구쳐올라

문명국의 체모를 자랑하는

새 세기의 창조물들 그 얼마이던가...

후대사랑 인민사랑으로

끝없이 꽃피난 새 전설

우리 당 과학중시사상이

새집의 환희론 창가에 깃들고

우리 당 교육정책의 혜택이

12년제꽃대문에 어리였더라

그 나날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더 뜨겁게 자리잡은 우리 원수님

어머니당의 그 사랑은

바다향기되어 강산에 풍기고

파일향기되어 이 땅에 넘쳤더라

당의 해빛안고 솟아오른 새 거리

육아원 애육원의 꿈같은 별세계...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 노래하며

아이들도 어른들도 감격에 넘쳐 사는

행복한 이 세월

복받은 인민의 세상

당의 온정이 그대로

해빛으로 넘쳐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

날에 날마다

문명의 새 모습들이 솟구치고

미래가 가까이 더 가까이

달음쳐오는 우리의 이 세월이

다 비껴있는 환희로운 이 광장

승리와 승리로 아로새겨진

70년 역사가 굽이치는

이 영광의 광장에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한품에 다 안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신다

오, 10월의 광장이

누리에 찬란히 빛발친다

10월의 하늘가에

우리 당의 새 역사를 비껴안고

아, 위대한 태양이 빛난다!

나의 인생 당과 함께

김 영 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살아올리신 크나큰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2015년 한해의 모든 희망과 소원, 기쁨과 행복, 충정과 노력을 오로지 거기에 걸고 줄달음쳐온 10월, 10월이다.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에 나서니 마치고 낮과 북이 새겨진 당기가 푸른 하늘에서 펄럭이고 《경축 당창건 70돐》이라는 글발이 무척도 숭엄하게 비껴든다.

우리 당이 창건되어 장장 70년의 력사가 흐르고 내 나이도 어언 70고개를 바라본다. 당과 함께 기쁨과 슬픔, 아픔과 환희를 함께 나누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뿌듯함을 금할수 없다.

참말로 나는 조선로동당창건과 아울러 고고성을 터친 세대로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어린시절, 붉은벚타이시절, 사로청(당시)시절을 보내고 우리 당대오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창시절이었다. 수도의 수해피해복구건설장, 천리마거리에 솟아오르는 고층아빠트 만장우에서 나의 입당심의가 진행되였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것을 얻었다는 기쁨과 긍지로 쿵쿵 뛰던 심장, 눈물어린 시야에 아스라하게 안겨들던 장엄하고 아름다운 수도의 모습은 얼마나 애뜻하고 장해보였던가.

하지만 그때 내 당이란 무엇인지 다 안것은 아니였다.

《로동신문》의 기자로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떼고서 당창건 40돐에 즈음한 기념 기사를 쓰려고 사회과학원 부원장이었던 원사 교수 박사 홍기문선생을 찾아갔던 일이 새삼스레 되새겨진다.

그때 84살이었던 선생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그는 7살나던 해 할아버지의 순국을 목격하였다. 《한일합병》의 치욕으로 온 강토가 몸부림치던 때 자결한 할아버지는 자손들에게 백성의 도리를 지켜서 한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겼었다.

그의 청년시절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자기의 말과 글, 조상전래의 성씨마저

빼앗겼던 암흑세월에 흘러갔다.

그때 당시 조선의 감옥을 돌아본 일본의 한 기자가 《감방마다 절인 물고기를 채운것 같다》고 썼는데 정말로 조선은 하나의 큰 감옥이였고 우리 민족은 절인 물고기신세였다.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론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달하였는가.

그는 가슴때우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력사를 파기 시작하였다. 그는 력사를 통해 하나의 교훈과 경고를 찾았으니 그것은 우리 조선을 망국의 길로 떠밀것은 사대매국이고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의 슬픔을 당하게 된것은 오랜 력사적근원과 유래를 가진 파벌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는 말하였다.

《자고로 흠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강해진다 했소. 민족이 강해지자면 향도력인 당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인 수령을 모셔야 하거늘 해방전 나의 반생은 나라와 백성이 어떤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는가를 체험한 반생이였고 해방후 나의 반생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힘있는 당을 받들었을 때 조국이 얼마나 강해지고 개인의 삶도 얼마나 영광과 행복에 넘치는가를 체험한 반생이였습니다.

이것은 금주고도 바꿀수 없는 나의 귀중한 인생 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더없이 흥분된 심정으로 《당이 강하면 민족이 위대하다》는 기사를 썼었다.

사물현상은 대비속에 뚜렷해진다고 했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우리 세대는 전세대들처럼 체험의 강렬함은 덜하지만 그대신 생생한 느낌으로 당을 인식했고 그 귀중함이 피와 살로, 뉘트로 육신에 스며어들었다.

나는 언제인가 《파란 머리수건》이란 단편소설을 쓴적이 있다.

강녕이육종학자가 종자선택에서 오유를 범하여 나라의 한해농사를 망친 책임을 지고 산골농장에 혁명화하러 내려간다. 녀학자가 그곳에서 시험포전에 초막을 짓고 살며 연구사업을 계속하는데 이 고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그곳을 찾으시게 된다.

그의 생활을 료해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인재를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일꾼들을 타이르시며 별에 그을고 꺼슬한 얼굴에 물날은 머리수건을 쓰고있는 녀학자에게 녀성은 아름다와야 한다시며 농촌상점에 들려 몸소 파란 머리수건을 사주신다.

이 단편소설을 쓰면서 나 자신이 녀학자인듯 강하

게 느낀것은 당이란 곧 수령님이시며 그늘없이 비쳐지는 당의 빛이자 곧 수령의 어버이사랑과 은덕이라는것이였다.

녀학자는 물론 우리모두를 자심한 사랑으로 키워주고 비다듬어 아름답게 내세워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도의 손길이였다.

그 품속에 기자로 20여년, 작가로 20여년...

당의 문필전사로 살아온 그 나날들은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강하면 민족이 강해진다는 진리를 피와 살로 감득하는 순간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은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더욱 강해지고 세련되어갔다.

그 시절에 장군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엄하게 만류하시였다.

하건만 나는 가리울수 없는 향도의 빛발에 대해 노래하고싶은 충동을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2월은 첫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 조선의 봄이 움트고 인민의 희망이 부풀리우는 봄이라는것을 노래한 단상 《서리꽃 피는 계절》, 백두산의 쌍무지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밝은 희망을 안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 향도의 우리 당을 받들어 미래를 확신하는 인민의 마음에 뿌리내린 위대한 희망의 상징임을 구가한 수필 《무지개》를 썼었다.

그리고 또...

어느날 아침밥을 지으려 일어나니 아직 깊은 새벽잠에 빠진 수도의 거리에는 불을 켜 창문들이 없었는데 당중앙청사의 창문에만은 불빛이 환하였다. 얼마나 다망하시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밤을 새우시는데 나 자신은 그 치마폭에 감싸여 실컷 자고난 철부지같이만 생각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하고보니 당중앙청사의 불빛이 꼭 자심하신 어머니의 눈빛같이 생각되어 《어머니의 눈빛》이란 단상을 단숨에 써내었다.

추억은 또 하나의 상념을 불러온다.

어느날 취재를 갔다오다 산등성이에서 쉬느라니 빨간 사과가 주렁진 과원사이로 구름우에 솟은듯 덩지 큰 하얀 집들이 늘어선 통일거리가 우뚝이 안겨왔다.

산과 들엔 오곡백과 무르익고 사람들 한마음으로 새 거리, 새 도시를 순간에 일떠세우는 풍성한 로동당시대를 단뭉칠로 한폭의 그림에 담듯 단상 《열매무르익는 계절》을 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체험하는 이런 날들이 있어 문학대렬에 늦게야 들어서 소설을 별로 써보지 못한 내가 수령님두리에 묻쳐 그이따라 가는 길에 녀성해방의 길, 녀성이 행복할수 있는 길이 있다는것을 확증한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를 무리없이 쓸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력사의 최전성기, 김정은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문명과 번영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이 인민과 한 모든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보게 될것이며 인민의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하게 될것이다.

이른봄의 싱그러움과도 같이 청신하고 보는것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새로운 맛에 머리가 핑도는 이 시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첫 령도자욱을 담은 새로운 장편소설을 준비하고있는 나로서는 하늘땅에 뽐배한 이 새로운 기운을 작품에 어떻게 담아내겠는지 어깨가 무겁기 그지없다.

작가적능력도 부족하고 정력도 그전같지 않지만 나를 키워주고 당의 문필가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 최상의 지성물이 되도록 하리라는 결심을 더 굳히게 된다.

가 사

원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림 철

이른아침 일터에서 꽃피는 그이 소식
저녁에 집집마다 기다리는 그이 소식
인민위해 바쁘신 열정넘친 그 모습
뵈고싶은 마음들이 기쁨안고 전하네
아 원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하늘길 찾으시여 비행훈련 보신 소식
동해의 포구 찾아 어로공들 만난 소식
아이들을 찾으시면 다심하신 그 사랑

세상에 더는 없어 뜨겁게 전하네
아 원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세월의 끝까지 파도쳐갈 그이 소식
그리움에 젖어 사는 내 나라의 풍경이여
끝없는 헌신으로 강성번영 펼치시니
한없는 고마움 안녕만을 바라네
아 원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자면 새로운 철학세계와 미의 세계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문학작품에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철학성과 관계되는 문제인 동시에 지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철학적발견은 인간의 이성적활동의 정화물이다.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작품의 높은 지성도를 느낄수 있다. 깊고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작품은 사람들을 사색하게 만든다. 작품은 모든 사람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고 갈 만 한 심오한 문제성을 안고있어야 한다. 작품에 생활철학이 담겨져있다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사색이 비껴있다는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 사색의 심도에 의하여 작품의 지성도가 좌우되는것이다.》

당의 모습

동 기 춘

해방!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았으나
당!
그것이 무엇인지는
거의나 모르고있던 때

오로지 다만
소작살이 머슴살이
지겨운 멍에를 벗어던진 환희
왜놈십장이 휘두르던 채찍
그 채찍을 빼앗아온 환희
그 사품만 부풀어 끓어오르던 때

푸른 술문은 마을어귀마다 일어서고
축등은 거리거리에 흔들리고
해방의 은인 장군님을 뵈오려는
그 열화만이 그 격양만이
삼천리강산에 파도치던 그때

백두의 웅자를 강토에 펼치고
전장의 화약내 배인 군복 벗을새없이
강선으로 원산으로 인민을 찾으신 걸음
어찌하여 수령님은
개선인사도 고향길도 미루시였던가

가을하늘은 바야흐로 청청 푸르고
대동강물결이 청류벽을 들때리는 감격
와와 설레는 경사의 파도
그 파도를 이끌어 새 나라의 진로를 열
수령님의 걸음엔 무엇이 급했던가

오, 력사여 말하라
위대하고 영명하신 백두의 장군
빨찌산배낭에 무엇을 지고오시여
해방된 강산에 무겁게 놓으셨던가를

백두준령을 휘날려온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묶으시여
조국의 초석우에 굳건히 세우실 결심
그렇다, 장군의 첫 사업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백두의 밀림에서 자태우신
인민의 당을 선포하는것

대지에 실리는 오탁의 무게도
천로에서 쏟아지는 강철의 불꽃도
아이들을 부르는 배움의 종소리며
그것을 지킬 혁명적무장력도
당, 당이 있어야 있는것

《서울중앙》을 떠벌이는자들의 궤변과
탐위욕에 환장이 된자들의 비렬한 책동도
백두의 의지로 쳐갈기시고
주체의 기틀에 당을 우뚝 세우신
우리 당의 창건자 김일성동지

누리에 빛발치는 태양의 환한 미소로
해방강산의 인민을 포옹하고
날알향기 쇠물향기 아이들의 웃음
그 모두를 한껏 안으시고
《사향가》속에 그리던 고향길도 미루신채
개선인사의 광장으로 나오신 령도자

만고의 애국자 절세의 어버이를 우러르는 순간
온 겨레는 격동속에 보았어라
민주의 첫 기슭에서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개선인사를 하시는 그이의 기록하신 영상은
조국의 운명전부인
오, 우리 당의 모습이였다



미곡벌의 가을

변 율 녀

농사를 지도하는 중앙기관일군이 농장들에 내려 가는것은 집주인이 자기 터밭에 나가듯 너무도 레사로운 일이지만 이번에 정영섭부부장이 미곡협동농장에 내려올 때에는 어느때없이 온 농장이 펼쳐나 정중히 맞이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보내주시는 풍경화 《미곡벌의 가을》을 전달하러 왔다.

농장일군들과 함께 정영섭이 조심히 포장지를 벗기는 그림을 긴장해서 바라보던 송현심관리위원장은 갑자기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흑- 하고 숨을 들이그었다. 눈앞에는 황금나락 설레이는 자기 농장의 풍요한 가을이 펼쳐져있었다.

홀린듯 그 그림을 바라보는 그의 쌍까풀진 고운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여올랐다. 이윽하여 그 눈물은 해별과 바람에 가무스름하게 탄 량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많은 사연이 담긴 눈물이었다.

1

《예? 미곡농장관정점수가 왜 그렇게 되였는가구요? 글썄 다른건 다 어슷비슷한데 두벌농사계획수행률이 어느 농장들보다 훨씬 낮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초부터 두벌농사계획문제를 놓고 우에서 그만큼 강조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는가고 따끔히 지적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송현

심관리위원장은 자기네 농장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그렇게 계획을 높여놓으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가고 막 울먹이며 대들더군요.

그래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관리위원장동무, 미곡이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는 농장인데 두벌농사에서조차 나를 따라 앞으로 해야 할게 아니요.〉 하고 말입니다. 확실히 그 동무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사회주의경쟁예비판정을 나갔던 농업성의 한 일군이 하던 이 말은 지금 승용차를 타고 미곡협동농장으로 나가고있는 정영섭부부장의 귀전에서 줄곧 웅웅거렸다. 자기가 비판을 받은것처럼 속이 알알했다. 송현심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어 여태 이모저모로 내세워주기 위해 애써온 정영섭이었다.

선군시대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우고있는 태천군 운흥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들간의 사회주의경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발기하신것이였다. 하기에 어느 농장이나 서로 이기겠다고 욕부르며 와와 일판을 벌려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미곡협동농장이 예비판정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으니 결과는 불보듯 명백했다. 물론 송현심이네의 좀 특이한 사정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경쟁에는 자기의 고유한 평가기준이 있다. 계획수행률이 높은 단위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단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정영섭은 저앞에서 달리고있는 야전차에서 시선

을 때지 못하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야전차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고계셨던것이다.

어제 밤 자정무렵 정영섭은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았었다.

《방금 동무네가 올린 문건을 보다가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밤이 늦었지만 전화를 합니다. 이번 사회주의경쟁예비판정에서 미곡협동농장의 점수가 왜 낮아졌습니까?》

정영섭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미곡협동농장은… 두벌농사계획수행률이 떨어졌기때문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는듯 동안을 두시더니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고 물으시었다.

정영섭은 죄스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뜨끔해왔다.

《모든게 저의 탓입니다. 미곡협동농장 일꾼들이 자기네 농장 토양의 특성을 내걸면서 앞구루로 심어야 할 봄밀, 봄보리 파종면적을 조절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할 때에 제가 강하게 막지 못하였습니다.》

《미곡농장 일꾼들이 토양의 특성을 내건다… 현심관리위원장이 그랬는가?》

《예, 송현심동무의 두벌농사에 대한 립장과 태도문제를 놓고 예비판정나갔던 동무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영섭은 판정성원들의 료해과정에 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쟁총회에서 문제를 세워야 한다고 제기된 내용까지 그대로 첨부했다.

《음… 송현심이가 우에서 내려간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를 세우려 한다.…》

선뜻 믿어지지 않아하시는듯 한 말씀이시었다.

정영섭은 올해초에 농사차비실태를 료해하러 미곡에 내려갔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정영섭이 관리위원장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는 농장기술일꾼들과 농업과학원 연구사들이 모여앉아 두벌농사문제를 놓고 한창 논쟁을 벌리고있었다. 어찌나 열을 올리는지 정영섭이 방에 들어와 구석쪽의 빈 의자에 앉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청년작업반의 부흥틀토양은 좀 낫기는 해도 역

시 해하성충적지예요. 따라서 여기에 봄밀을 심으면 뒤그루로 심는 벼는…》

송현심은 컴퓨터마우스를 쥐고 청년작업반의 부흥틀토양성분과 농작물생육관계를 설명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정영섭을 띄어보고 반색을 했다.

《아이, 안녕하십니까, 부부장동지!》

그러자 모두들 뒤를 돌아보더니 저마끔 일어서며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동무들의 잡도리를 보니 벌써 가을이 내다보이누만. 그래야지. 토의를 계속하오.》

론쟁은 다시 이어졌다. 정영섭은 토의를 중심으로서서 끌고나가는 송현심을 미더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아직도 처녀때의 미모가 그대로 내비치는 동그스름한 얼굴에 영채도는 쌍까풀진 두눈, 굵게 흘러내린 날이 선 코와 섬세하면서도 도담하게 보이는 입술…

자기가 직접 컴퓨터를 다루면서 최신영농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새 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짜고들면서 영농공정별로 기술지도를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는 그였다. 다른 관리위원장들은 기술일꾼들을 믿고 주로 대외사업에 낮을 많이 돌리지만 송현심은 자기가 직접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사에 주력하여왔다. 그래서 올해의 미곡리 두벌농사는 더더욱 믿음에 갔다.

정영섭은 송현심이 주관하고있는 기술실무적인 문제에 개입해야 군소리로 될것 같아 슬며시 방에서 나왔다. 송현심이 얼른 따라나왔다.

《왜 계속 토론을 하지 않고 나왔소?》

송현심이 호— 하고 알릴듯말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파악이 서지 않아 그렇습니다. 기술일꾼들이 좀더 가능성을 찾아보겠다고 하긴 하지만…》

정영섭은 구태여 따져묻지 않고 그와 함께 농장을 돌아보았다. 새로 건설한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가서는 생산정형을 알아보았고 함께 걸으면서 거름반출정형과 소농기구준비정형을 료해하였으며 두엄을 실어내고있는 포전들에 나가서는 트랙트프가동정형을 따져보았다. 모든것이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이 기세를 늦추지 말고 영농공정들을 빈틈없이 밀고나가야겠소. 운흥이랑 동봉이랑 기세가 간단치

않아. 미곡이 지면 안되지.》

정영섭이 오금을 박듯 말하자 송현심은 새무죽이 웃었다.

《지기가 뭐… 그런데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어서 말하오. 현심동무가 제기하는거야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지.》

《저…》

웬일인지 송현심은 그답지 않게 머뭇거리다가 결심한듯 례의 그 맺고끊는듯 한 어조로 또박또박 뒤를 이었다.

《아무래도 우리 농장의 두벌농사계획을 좀 조절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적을 더 늘여달라는거겠지?》

정영섭은 그의 승벽심이 돌이켜져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송현심은 어쭙은 표정을 지으며 도리머리를 했다.

《아닙니다. 우리 농장 토양구조를 따져보았는데 앞그루 파종면적을 계획보다 못해도 절반은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뭐요?》

정영섭은 너무 뜻밖이어서 걸음까지 멈추었다.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송현심은 목수건을 벗어취고 손에 감았다풀었다 하면서 고집스럽게 뒤를 달았다.

《앞그루작물인 봄밀과 봄보리를 다 익혀 거두어들이자면 기본작물인 벼모내기가 한달이상은 늦어지겠는데… 그러면 가을에 가서 여문물이 떨어지고 정당수확고는 오히려 낮아질수 있습니다.》

정영섭은 자못 심각해졌다. 송현심의 말을 부정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이 미곡벌은 자기도 어지간히 파악이 있었다. 이 해하성충적지는 땅속물이 잘 빠지지 않아 벼들이 늦게 여물수 있었다. 그렇다면… 계획을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다른 농장들은?

불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나갔던 일이 생각났다. 서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해비침률이 낮고 뎡해가 심한… 그리고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정영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벌농사를 놓고는 흥정을 할수가 없다. 저저마다 자기 농장의 특수성을 내건다면… 아니, 이것은 두벌농사에 대한 관점문제이다.

《물론 조건이 불리한건 사실이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 방도를 찾아 계획을 넘쳐할 생각을 해야지. 현심동무답지 않구만.》

송현심은 조갈이 든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또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사실 내자신부터가 확신이 생기지 않아 그렇니다. 파악도 없이 그 많은 면적에…》

《현심이!》

정영섭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립장부터 바로가지게 단단히 말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문 지금 무슨 말을 하자는거요. 그 무슨 일이든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달라붙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동무가 그래 모른단 말이요? 관리위원장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동문 두벌농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벌써부터 겁을 먹은건 아니요?》

송현심은 놀란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목수건을 비틀던 손도 굳어지고 터갈린 입술은 경련이 인듯 파들파들 떨었다.

《그럼… 제가… 어쩔 부부장동지마저 그렇게…》

그러는 그의 쌍가풀진 눈에 핑그르르 눈물이 고여올랐다. 억울해하는 표정이였다.

정영섭은 너무 모질게 말한것 같아 슬며시 눈길을 돌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안됐소. 동무가 신심을 잃은것 같아 아픈 소리를 좀 했소. 물론 내앞이니 그런 말을 했으리라 보오. 다른 사람들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마오. 관리위원장부터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어야지. 나도 힘자라는것 도울테니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꼭 방도를 찾소. 자, 그렇게 믿고 난 가겠소.》

정영섭은 큰숨을 내쉬며 송현심의 손을 짹 잡아주고는 차에 올랐다.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더 그루를 박는것을 잊지 않았다.

《잊지 마오. 두벌농사가 이번 경쟁요강의 중요지표로 들어있다는걸.》…

정영섭은 그때일을 더듬으며 송구스런 어조로 말쌈드렸다.

《제가 그때 그렇게 강조하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인차 다시 내려가 룡해하고 대책을 세워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구만. 미곡벌의 특수성이라.》

무엇인가 마음에 걸려하시는듯 한 장군님의 말씀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인차 화제를 돌리시였다.

《정동무는 한때 현심동무와 함께 사업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제가 도농촌경리위원회에 있을 때 그 동문 농산처 책임부원이였습니다.》

《생각나오. 미곡관리위원장 후임문제가 나섰을 때 동무가 송현심을 추천했다고 했지. 과학기술지식이 높고 책임성도 있는데다가 이악하기까지 하다면서...》

《예,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까지 된데는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해주고 이끌어줄 대신 그저 일을 잘한다고 내세워주고 칭찬만 해주다니니...》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되게 세우고 비판을 하자는것이겠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이요, 응?》

가볍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가만, 지금 그 동무네도 벼가을을 시작하지 않았소?》 하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벼가을에 들어갔습니다.》

《음, 벌써 그렇게 되었구만.》

장군님께서는 벼가을정경을 그려보시는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혼자말처럼 나직이 뇌이시였다.

《그 동무가 언제인가 가을에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었지. 미곡에선 벼바다가 물결치는게 제일 볼만하다면서...》

순간 정영섭은 가슴이 몽클해움을 어쩔수 없었다. 파오를 범한 송현심을 탓할 대신 오히려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것을 두고 미안해하시는 그 다심한 정에 목이 메어올랐다.

장군님께서는 매일 무슨 일을 계획하고있는가고 물으시더니 이제 밤도 깊었는데 그만 쉬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였다.

하지만 정영섭은 싯뜻 송수화기를 놓을수 없었다. 무엇인가 번개치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던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곡협동농장에 찾아가실수 있다는 예감이였다. 장군님께서 것처럼 관심을 두시는 미곡협동농장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였기때문이었다.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다. 사실 그는 미곡협동농장에 깊은 정을 안고계시는 장군님앞에 언제나 송현심관리위원장을 일잘하는 일군으로, 기쁨을 드리는 일군으로 내세워주고싶었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원심을 쓰면서 적지 않게 도와주고 내밀어주었다.

그런데 송현심이 두벌농사문제를 왜 그렇게 제멋대로 처리했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밖에서는 비가 주룩거리며 내리고있었다. 농장들에서는 달갑지 않은 가을의 찬비였다.

아침에 정영섭은 흥분된 마음을 안고 개성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나갔다.

하면서도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얼마 안있어 그 의문은 쉽게 풀렸다.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들이 평양이 아니라 원산쪽에서 달려왔던것이다. 그제서야 정영섭은 어제 밤 장군님께서 먼 지방 현지지도의 길에서 전화를 거시였고 그러시고는 문제의 그 미곡협동농장으로 가시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시며 차행군을 하시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장군님!》

정영섭은 불덩이같은것이 치밀어 더이상 뒤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차문을 여시고 정중히 인사올리는 그에게 환히 웃어보이시였다.

《미곡에 함께 가보자고 불렀습니다. 마침 황해북도 예술극장개관식을 하겠는데 가는 길에 미곡에 들려봅시다.》

이렇게 되어 정영섭은 지금 장군님을 모시고 미곡으로 가고있는것이였다.

2

이름은 송현심, 나이는 50살. 계웅상사리원농업대학졸업생. 3년간의 3대혁명소조생활을 거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사업하다가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보안원이었던 남편은 10여년 전 큰물이 났을 때 농장채산을 구원하다 희생되고 아들딸 오누이는 지금 군사복무를 하고있다.

장군님께서 아시는 송현심의 간단한 경력이였다. 늘 논밭에 나가 살다싶이한다는 송현심의 모습이 방불히 그러지시였다.

(그러니 집은 늘 비어있을것이고... 때식을 건느는 일도 예상사일것이다. 녀성들은 흔히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는 밥을 따로 지으려 하지 않는다. 묵은밥 한덩이라도 있으면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부엌에서 맹물에 말아 대충 한끼 굶때고는 포전으로 달려나오기가 일쑤일것이다. 자신을 위한 생활은 령이나 같다.) 하고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고계시였다.

야전차는 넓은 고속도로를 쾌속으로 달렸다. 길 좌우로는 황금파도가 일렁이는 논밭이 흘러가고있었다. 먼산엔 울긋불긋 단풍이 비물에 묵욕까지 하고 가을풍치를 한껏 돋우고있었다. 풍만한 계절이였다. 송현심의 생활도 이렇게 풍만해졌으면...

장군님께서는 문득 3년전 12월 어느날 미곡리를 찾으셨던 일을 떠올리시였다. 그때 어린애처럼 손을 꼭 잡고 기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의 모습이 섰다. 그의 손이 차다고 걱정하시자 《장군님, 오히려 장군님의 손이 제 손보다 더 찰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한지에 오래 계셨으면...》하며 울먹이던 그 모습...

《장군님, 올해 가을에도 풍년든 우리 미곡벌의 벼바다를 꼭 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벼가을을 하기가 서슴어 손을 대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길가엔 코스모스도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엔 못 오시고 오늘 이처럼 눈내리는 추운 겨울날에 오시었으니...》

장군님께서는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현현히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던 동무들이 보고싶어 언제부터 오려고 했지만 오늘에야 시간을 났소. 자, 이제 농장구경을 시켜줘야지.》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각이한 형식의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자리잡고있었다. 송현심의 안내로 아래웃층이 각각 두칸인 2층살림집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부엌이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시다가 아래방의 햇빛 밝은 벽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기념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집의 아들이 군사복무를 잘하고있구만.》

집주인이 황송해서 미처 대답을 못하자 송현심이 한발 나서며 사진속의 가운데줄 중간어름에 있는 병사를 가리켜드렸다.

《최전연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이 집의

만아들입니다. 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겠다면서 인민군대에 입대했는데 전사시절에 벌써 사격에서 〈우〉를 맞고 찍은 영예사진이 왔었습니다.》

《그래, 장한 일이요.》

《우리 미곡에선 자식들이 군대에 나가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들을 수집상이나 모시고있습니다. 나홀전엔 살구동네 샘물집 손자에게서 또 장군님을 중대에 모셨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미곡벌의 아들딸들이 모두 체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관리위원장은 미곡에서 입대한 청년들보다 알고있는것 같구만.》

장군님께서 마음이 훈훈해나 웃으며 말씀하시자 송현심의 옆에 서있던 농장일군이 자랑스런 어조로 말씀드렸다.

《우리 농장의 자녀들은 누구나 송현심동무를 우리 관리위원장어머니라고 부르고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군복을 입는 날엔 모두 집에 데려다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 대접하며 당부하곤 합니다.》

여기 후방에선 농사를 잘 지어 쌀로써 장군님을 잘 받들겠으니 너희들은 영광의 미곡땅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답게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곡땅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초소에서 군무생활의 자랑들을 관리위원장앞으로 써보내곤 하는데 그런 편지가 매일처럼 오곤 합니다.》

송현심이 얼굴이 빨개져서 몸돌바를 몰라하다가 슬며시 그 일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수집어하는 그 모습이 더 대견스러워 장군님께서는 껄껄 소리내며 웃으시였다. 그 일군이 성수가 나서 한마디 더 보냈다.

《관리위원장동문 그 누구의 말도 절대로 소홀히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건 늙은이들이건 얼핏얼핏 하는 말도 다 새겨들곤 하기때문에 작업반들이나 분조는 물론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것까지 제때에 알고 대책을 세워주곤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만족하시며 송현심을 돌아보시였다. 그 길지 않은 말에서 관리위원장의 사람됨됨을

잘 아실수 있었다.

《관리위원장이 일을 잘하고있소. 잘해, 그래야 해...》

그때 그 일군의 말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시다. 그런데 오늘은 관리위원장이 웬간한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세우겠다고 한다는것이다.

두벌농사... 미곡리토양의 특성...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였다.

송현심이 지금 얼마나 괴로와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릿해오시였다. 가정적인 모든것은 다 묻어두고 오로지 농사를 잘 짓겠다고 들에서 살면서 아글타글하다가 비판까지 받았다니 혼자서 무던히 속을 태우고있을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어쩐지 차가 굵뜨게 달리는것 같으며 운전사를 채촉하시였다.

《속도를 더 내오, 더!》

3

《야, 세쌍무지개다!》

농장원들이 저마다 환성을 올렸다. 간밤에 비방울 듣는 소리에 소스라쳐 잠자리에서 뛰쳐나왔다가 아침이 다되어서야 비설것이를 끝내고 들어가던 그들이였다. 합숙으로 들어가던 청년작업반원들은 손뼉까지 치면서 웃고 떠들어댔다. 한발 먼저 집에 들어가 메탄가스불우에 밥을 안쳐놓고 보골보골 끓는 소리를 들으며 동자질을 하던 녀인들까지 마당으로 나와 무지개를 구경했다.

황금파도 일렁이는 벼바다위에 뿌리를 내린 세쌍무지개는 살구동네우로 해서 미라산쪽으로 다리를 놓았다.

《관리위원장, 이젠 분명 우리 미곡땅에 큰 경사가 생길 정조야. 안 그런가?》

벼동가리치는데 따라나와 훈시질을 하던 살구동네 샘물집 조로인이 송현심에게 하는 말이였다. 청년작업반 두벌농사포전에서 세쌍무지개를 바라보던 송현심은 그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울렁거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황홀해서 세쌍무지개를 바라보는 송현심의 눈앞에는 문득 엇그제 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송현심은 살구동네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었다. 샘물집 조로인네 막내아들이 세간을 났는데 새집에 불은 잘 드는지, 집세간살이형편은 어떠한지, 도와주어야 할것은 없는지 알아보러 갔다오는 길이였다.

밤하늘엔 별들이 총총하고 주위에선 풀벌레들이 열심히 찌룩거리고있었다.

그는 곧장 청년작업반 두벌농사포전으로 향했다.

벼여문물이 신통치 않아 하루일이 끝나면 의례히 둘러보곤 하는 포전이였다.

사실 현심은 두벌농사계획지표를 받아안던 그때부터 여간 속을 태우지 않았었다.

미곡에서는 두벌농사가 처음이어서 기술일군들과 밤을 새워가며 토론을 거듭했고 컴퓨터모의실험도 수차례 해보았으며 두벌농사를 잘 지은 농장들에 찾아가 그들의 경험을 들어보기도 했다. 미곡땅의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선택과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농사방법을 놓고도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았다. 하지만 파악이 잘 생기지 않았다. 할수없이 농업지도일군인 정영섭이 내려왔을 때 두벌농사계획지표를 조절해달라고 했다가 된추궁까지 받았다.

그는 안타까왔다. 그렇다고 파악도 없이 두벌농사면적을 무작정 늘일수는 없었다.

송현심은 토양성분이 그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포전들에만 시험적으로 두벌농사를 해볼것을 결심했다. 그는 그 포전들에서 앞그루인 봄밀과 봄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즉시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내고 모내기를 시작했으며 성장촉진제와 생물농약비료를 과학적수치에 맞게 주도록 조직사업도 짜고들었다. 그자신이 늘 논벌에 나와 살다싶이했다.

그렇지만 가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처음에 우려했던대로 두벌농사포전의 여문물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기 시작했다. 다른 논배미들의 벼들은 총알처럼 도글도글 영글어가는데 두벌농사포전만은 연푸른색의 물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청년작업반의 부흥틀에 이른 그는 두렁콩들이 뒤엎긴 논두렁을 따라 몇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손전지로 여기저기 비추어보다가 눈에 걸리는 벼이삭 한개를 조심히 휘여잡았다. 아직 벼알들이 파르스름한게 총싹치 못했다. 손톱끝으로 한알을 발

그어보니 이제 겨우 물알을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였다. 제대로 머물려면 한달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았다.

송현심은 행어나 해서 몇걸음 더 나가 또 한알을 밟고어보았다. 그것 역시 첫번째 벼알과 다를바 없었다. 송현심은 너무도 안타까와 벼포기들을 한아름 부둥켜안고 이삭들에 불을 마구 비벼댔다.

《벼이삭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빨리 머물지 못하고 속을 태우니, 응?》

정말 울고싶었다. 이렇게 여문물이 떨어지는데도 우에서 내려왔던 판정성원들은 두벌농사면적을 제대로 보장 못했다고 엄하게 추궁했었다.

《두벌농사를 놓고 무슨 흥정이요? 여문물이 떨어지면 무슨 방도를 찾아야 할게 아닌가. 관리위원장부터가 관점이 그러니 어떻게 두벌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있겠소? 안되겠소, 미곡은 이번 경쟁에서 꼴찌요.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게요. 미리 자기비판준비를 해두시오.》

송현심은 한숨을 호 하고 내쉬었다. 토양구조가 두벌농사지표에 그중 가깝다고 하는 포전들을 골라 농사를 지었는데도 이런데 무작정 두벌농사면적을 늘였다면 정보당수확고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두벌농사를 잘 지을수 있을까.

송현심은 처벅처벅 걸어나와 맥없이 논두렁에 걸터앉았다.

배가 출출해왔다. 비로소 호주머니에 사과 한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샘물집에 갔을 때 자꾸 식사하고 가라는걸 바쁜 일이 있다면서 그냥 일어섰었다. 그러자 로인이 집에 가져다 맛이나 보라면서 사과를 팡주리채로 내놓는걸 고맙다며 한알 집어들었던것이다.

사과는 딸 영금이가 류달리 좋아했었다. 그래 어디에 갔다가도 사과가 생기면 주머니에 넣고와 딸의 손에 쥐여주곤 했었다. 그게 습관되어 오늘도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왔는지 모른다.

현심은 사과를 꺼내들었다. 사과향이 물씬 풍기면서 입안에서 저절로 침이 돌게 했다.

갑자기 딸애가 그리워졌다. 사과알을 쥐여주면 《엄마! 난 엄마가 제일 고와!》하며 목을 담쭉 그러안던 영금이였다. 그에 겹쳐 체벌 코밀이 겹실겹 실해지던 아들의 어엿한 모습도 떠오른다. 그리움이 새삼스레 가슴에 차올랐다.

그때였다.

《위원장어머니, 관리위원장어머니, 어데 있어요?》

저기 무우밭쪽에서 청년작업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지불이 번쩍번쩍 여기저기를 비쳤다.

《응, 나 여기 있어. 반장이 웬일이야?》

현심이가 손전지를 휘둘러보이며 자기 위치를 알려자 청년작업반장처녀가 툭툭 뛰어왔다.

《글쎄 내 여기 있을줄 알았어요. 위원장어머니가 어데 갈데가 있나요? 여기밖에...》

《애두 참, 그런데 왜 찾아나왔니?》

《위원장어머니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자구.》

《그래? 어서 여기 와 앉으라구.》

처녀가 옆에 와앉자 그는 얼른 손에 든 사과를 내밀었다.

《어마, 사과! 냄새가 참 향기롭네. 같이 들지요.》

《어서 먹어라, 난 먼저 먹었다.》

《그래요?》

처녀는 사양않고 한입 섬벅 베어물더니 《아이, 사과가 참 다네.》하고는 사박사박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말은 말대로 했다.

《위원장어머니, 우리 작업반에서 필지별로 예상수확고를 다 종합했어요. 정당수확고가 작년보다 평균 200키로는 더 올랐어요. 저 샘골쪽논에선 345키로나 더 걸려요.》

《응,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러니 너무 마음쓰지 말아요. 여기 부흥틀두벌농사는 잘 안되었어도 다른 필지들은 다 잘되었으니 총적인 정당수확고는 오히려 높거던요.》

《글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야 두벌농사포전이 아니냐. 이게 잘되어야 앞으로...》

《어마, 야 별찌!》

처녀가 갑자기 두손바닥을 짝 마주치더니 저 멀리 허공을 가리켰다. 아닌게아니라 별들이 바글바글 끓고있는 밤하늘에서 별찌 하나가 저 미라산너머로 쭉 줄을 그으며 떨어져내렸다. 처녀가 흥분해서 속삭였다.

《별찌가 떨어질 때 자기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댔지요?》

현심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반장은 무엇을 소원했나?》

나의 아버지

백 리 향

래일이면 초소로 떠나는
졸업반학생들과 승벽을 겨루는
저분을 보십시오
철봉이며 씨름
운동장이 달아오르도록 야단입니다

저런 날이면
아이들에게 다 저야 기뻐합니다
체육모아래 저 검은 머리 희여지도록
한생을 체육교원으로 살아온 아버지
학생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오늘
오늘위해 웃음을 아껴온듯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인양
가슴에선 호각이 춤을 춥니다

문득
희어진 아버지의 땀젖은 머리카락을 보니
그저 즐거우셔 아버지는 웃어도
이 딸은 목이 메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허빈 흔적이
저 흰서리로 남아있는것만 같아

어제런듯 합니다
체육단소환장이 날아왔던 그날이
기쁨과 아쉬움이 섞인 마을의 눈빛인양
깜박이는 저 별과 함께
밤새 운동장을 돌고돈 아버지
끝내는 산골마을 작은 학교를 못 떠났고
이 딸은 아버지의 가슴만 허비고...

울려웁니다
무도의 초병이 보낸 편지의 구절구절이
군공메달 내보이며 한 이야기
힘들 때면

아버지 꺼내보는 편지
아버지 가슴갈피에서 울려웁니다

철봉을 넘지 못하던 어제날 병사
끝내는 철봉을 이긴 그밤
운동장에 올린 호각소리
오늘은 전호가에 채찍소리처럼 울린다고
이 철봉을 넘지 못하면
그런 병사의 어깨를 넘어
원쑤의 발자국이 조국땅을 더럽힌다던
산골마을 운동장의 그 호각소리

물든것은 아닙니까
비오나 눈오나 운동장을 다진
아버지의 그런 한생이
그저 서있기만 해도 운동장이 좁아보이는
저 끝끝한 총대감들에
아버지의 젊음이
통채로 물든것은

비록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그런 제자는 아직 없어도
그 금메달을 지키는 총대감들은
아버지의 호각소리밑에서
자랐으니

보십시오
체육모에 흰서리 슬쩍 감춘
아버지의 젊음을
한아름이나 되는 어린 총대감들이
아버지의 허리에서 감겨돌아갑니다
가슴에선 호각이
메달처럼 춤을 춥니다

《황금파도 물결치는 우리 미곡벌에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싶은 소원을... 어머니요?》

송헌심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소원은 우리 농장 누구나 갈을게다.》

그것이 바로 었그제 밤에 있던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세쌍무지개를 보자 살구동네 조로인 역
시 같은 말을 하는것이였다. 정말 그런 경사가 생
기는것은 아닐가. 그렇다면...

송헌심은 간절한 눈빛을 안고 이윽도록 무지개
를 올려다보았다.

그때처럼 그런 경사가 또 찾아왔으면... 이제는
벌써 20년이 되였다.

그것은 정말 영원히 잊을수 없는 경사의 날이
였다.

(다음호에 계속)

해방의 첫 기슭에 올려퍼진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송가

김려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위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어느덧 70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제일먼저 실현하신 역사적위업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는 사업이였다.

조국해방과 더불어 당창건위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세상에는 우리 당과 같이 창건 첫날부터 오랜 세월 변함없이 수령의 당으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당, 전체 당원들과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자기 발전의 영광스러운 길을 수놓아온 당은 없다.

수령의 문학, 당의 문학으로서의 주체혁명문학에는 70년을 헤아리는 우리 당의 력사가 담겨져있으며 수령형상과 함께 당에 대한 송가를 핵으로 하여 발전한 자기고유의 특성이 아로새겨져있다. 그 중에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당창건위업을 실현한 력사의 그날에 창작된 당에 대한 송가작품들도 있다.

송가형식은 당을 직접 노래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해방의 첫 기슭에서 올려퍼진 당에 대한 송가는 이 시기 문학발전의 중요한 특성을 이룰뿐 아니라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을 노래한 송가발전의 첫 시기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을 노래한 송가창작은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해주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해방후 주체혁명문학의 새롭고도 주되는 형상분야로 되었다.

이 시기 당을 노래한 대표적인 송가작품들로는 서정시 《인민의 바다》(1946, 백인준), 《당은 나

의 생명》(1947, 백인준), 《당원증》(1947, 김상오), 《승리의 선언》(1948, 정문향), 《강령은 우리를 승리에로 인도한다》(1948, 강승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 올리는 시》(1948, 김조규), 《당의 기발밑에》(1948, 안룡만) 등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은 당창건의 감격을 토로하면서 당의 위대성에 대한 격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충정의 맹세를 진실하고 소박하게 형상하고있다.

새 조국건설시기에 창작된 당에 대한 송가작품들의 사상정서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라는 전인민적인 칭송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토로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은 주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과 결부되어 노래되고있다.

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 올리는 시》는 당대회에 드리는 헌시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짧은 력사적기간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는 대표적인 시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항일의 빛나는 《그 혁명 전통을 맥맥히 이어/해방된 이 강산에/민주의 기치를 높이 세우신/그 이름 휘황할사 김일성장군/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장군!》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조선혁명의 참모부, 근로인민의 선봉대, 전위대로서의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업적은 전적으로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마련될수 있었다는것을 긍지높이 토로하고있다.

오늘의 영광을 누가 불러왔는가!

오늘 인민의 행복을 누가 가져왔는가!

우리는 익히 안다!
그이는 절세의 애국자
주석단높이 위용을 세우신
위대할사 김일성장군!
근로인민의 전위대
우리 당의 창립자이신
김일성장군!

이처럼 시는 우리 당이 새 조국건설시기에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한 긍지높은 토로이면서 이 모든 긍지와 자부심의 바탕에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사상감정을 줄기차게 판통시키고있다.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은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받들어갈 굳센 결의를 담은 수령송가작품들에서 우러나오고있다.

서정시들인 《김일성장군찬가》(1946, 리찬), 《그이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1947, 백인준), 《김일성장군 빛나는 그 이름》(1947, 강승환)은 이러한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한 작품들이다.

시들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가리울 수 없는 우리의 빛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의 영명하신 그 이름 하늘땅에 떨치고 이 나라 인민의 영광과 더불어 억만년 떨치며 김일성장군님 가시는 길,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목숨도 다 바쳐 끝까지 따라갈 결사의 각오를 터치고있다.

새 조국건설시기 창작된 당에 대한 송가작품들의 사상정서적특성은 다음으로 수령의 당, 인민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감정정서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수령의 당, 인민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과 그 고유한 특성은 전체 인민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고 신뢰할수 있게 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송가들에서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우선 우리 당은 조선인민의 전위대이며 선봉대라는것과 수령님과 당과 인민은 혼연일체이라는 사상감정을 정서깊이 터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서정시 《인민의 바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당이 대중적정당인 조선로동당으로 발전된데 대한 찬양의 감정을 감동깊이 시화하였다.

시는 샘물은 시내로 모이고 시내는 흘러 대하를 이루듯이 근로대중이 뭉치여 인민의 바다, 북조선로동당으로 되었다는것을 노래하면서 《인민의 바

다》라는 시적발견에 력점을 찍고 로동당의 성격을 긍지높이 레찬하고있다.

인민의 바다라는 시적표현은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성격과 사명을 상징화한것이다.

시는 《오호 바다! 인민의 바다!/ 북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바다》라는 시구를 절의 특성에 맞게 반복하여 씬으로써 로동당에 대한 레찬과 감사의 정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시는 우리 당은 근로인민의 선봉대라는것을 강조하는데서도 비유와 반복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있다.

시는 《백만대중이 이에 모이고/ 천만합성이여 기 옹하여/ 최넉쿨같이 뻗어나가는/ 홍수물같이 내려쫓치는/ 산맥과 같이 줄기차게 달리는》 북조선로동당은 근로대중의 선봉이라고 비유의 수법으로 형상적효과성을 높이고있으며 《북조선로동당은 근로대중의 선봉》, 《오호 북조선로동당은 근로대중의 선봉》이라고 반복하여 사상을 강조하면서도 《오호》라는 감탄사로 그 격정을 승화시키고있다.

시에서는 《김일성장군은 화불을 들고/ 민족의 선두에서 소리높이 웨친다/ 민노라 인민은 승리하리라!》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시화하면서 수령님의 뜻과 의지에 화답하여 백두산이 번쩍 머리를 들고 대동강이 꿈을 물굽이친다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수령님과 당의 령도따라 인민의 나라, 인민공화국을 세우리라는 전체 인민의 드높은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송가들에서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또한 우리 당 결정에 대한 신뢰와 커다란 관심, 그 관철을 위한 투쟁결의를 노래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서정시 《승리의 선언》과 《강령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는 당강령,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겁게 대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관철하려는 사상감정을 토로하고있는 대표작들이다.

서정시 《승리의 선언》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총화하고 승리의 선언, 당결정을 채택하는 당대표회의의 엄숙하고도 감격적인 순간을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로동계급의 체험세계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오늘도 깊은 갯도 어느 한 층에
귀를 대며 우리의 동무들은 듣는다
저 붉은 보료의 연단앞에

또 하나의 승리의 선언을
위대한 당의 결정을...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 당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그 관철을 위한 마음속 준비
를 벌써 든든히 갖추는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
들, 당의 결정에 대한 인민의 숭엄한 감정은 곧 위
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
와 최대의 신뢰이다.

시 《강령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역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면
서 《있는 승리 있는 승리 있을 승리를 위하여》선
봉대의 기발 더 높이 들리라는 굳센 결의와 함께
위대한 강령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락판을 토로한다.

근로하는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당이길래
민주건설을 받들어 선두에 섰길래
김일성장군님의 바르고 옳은 지도밑에
강령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

이처럼 시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은 당이 창건
된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강
령, 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
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었음을 보
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
로 간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 인
민대중의 억센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발전력사
는 수령결사옹위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력사임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새 조국건설시기에 창작된 당에 대한 송가의 사
상정서적특성은 다음으로 당의 창건과 함께 우리
인민이 절절하게 체험하게 된 당의 귀중함과 당의
품속에 안겨 어엿한 혁명가로, 당원으로 성장하게
된 감격과 긍지를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지난날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는 위
대한 인민으로 키운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것처럼 훌륭한 사람
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것처럼 지난날 천
대와 굴욕속에 짓밟히던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
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랑 떨치고있는것은 그들
을 승리와 영광, 참된 삶과 행복의 한길로 이끌어
주고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
이 있기때문이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서정적주인공의 크나큰 감

격과 기쁨을 노래한 서정시 《당은 나의 생명》에
서는 당은 나의 생명, 나의 자랑, 나의 행복이라고
걱정을 터치면서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며
당이 부르는 한길로 끝까지 걸어갈 굳은 신념을 진
실하게 토로하고있다.

시는 당이 어떻게 자기를 키우고 단련시켰는가
하는것을 강한 비유와 점층의 수법으로 서정화하면
서 그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당에 대한 존경과
믿음, 당이 가리키고 부르는 곳으로 달려갈 철석의
맹세를 터뜨리고있다.

당은 나를 길렀다
어머니와 같이 사랑스럽게
그러나 그보다도 억세인 꿈으로

...

당은 항상 나를 단련한다
참나무같이
박달과 같이
무쇠와 같이

...

당은 나의 자랑
당은 나의 행복
오호
당은 나의 생명
그 부르는 곳으로 나는 가리라

이처럼 시는 시종일관 자기를 키워준 정치적생명
의 은인인 당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보답의 열정으
로 충만되어있다.

시 《당원증》도 당원의 영예와 긍지, 사명감을
자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절절한 심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동지들의 굳은 약속과 함께 당원증을 받은 날 그
것은 이미 《나의 육체》로 되었다고 하면서 서정
적주인공은 당원증으로 하여 삶의 새 출발을 했고
당원증에 새겨진 번호를 보며 위대한 수령님 두리
에 굳게 뭉친 강철의 대오, 우리 당 대렬을 본다.

시는 《창립자 김일성동지로부터/ 신인세포당원
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의 료리에 살고》 새 조
국건설에 참답게 나가는 당원의 영광과 행복을 긍
지높이 토로하고있다.

백인준의 시 《그이를 모시고》(1950. 2.)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작가의

실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으로서 그이를 모시고 항상 행복한 젊은이같이 구김살없는 삶을 누리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절절하게, 소박하게 노래하였다.

시는 김일성장군 그이의 존함만 불러도, 그이의 초상만 우러러도 새힘이 솟고 그이의 웃음, 그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힘이 솟아 행복한 젊은이, 언제나 그이를 모시고 조국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기쁨을 터치며 《나는 행복한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라고 격정을 터친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평범한 당원, 이 나라 젊은이들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 당의 창건과 그 발전력사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새 조국건설시기 해방의 첫 기슭에서 울려퍼진 당에 대한 송가는 주체혁명문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 로동계급의 문학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당의 창건과 함께 즉시에 당의 위대성과 신뢰감을 반영하여 나온 송가라는데 있다.

세계에는 우리보다 먼저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였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수행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창건과 더불어 자기 당의 창건을 그토록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신뢰와 경모의 정을 담아 노래한 송가를 내놓지 못하였다.

오직 우리의 주체혁명문학에서만이 당을 노래한 송가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의 경모와 신뢰의 정을 두터이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당의 위력을 만

천하에 과시하고 군대와 인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성과 관련된다.

해방의 첫 기슭에서 울려퍼진 우리 당에 대한 송가는 그 창작의 첫 시기에서부터 절절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당에 전적으로 자기 운명을 의탁한 시인들의 깊은 사색과 걱정을 승엄하면서도 꾸밈없이 진실하고 소박하게 터친 송가적양상을 잘 살리고있다.

이와 함께 당에 대한 송가는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사상감정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기본 문학형태로 발전하였다.

당의 창건과 더불어 창작된 당에 대한 송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이 날을 따라 뚜렷이 과시되고 당을 따르는 인민의 충정심이 비상이 높아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발전의 력사적단계마다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오늘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의 시기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시가들과 함께 위대한 우리 당, 어머니당을 노래한 시대의 명작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김정은시대 송가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방의 첫 기슭에서 울려퍼진 당에 대한 송가는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없이 우리 당 력사의 증견자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강화발전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

가 사

조선로동당원증

리 명 학

저 멀리 흘러간 인생의 첫 시절
잠결에도 더듬어찾던 어머니품처럼
한밤에도 내 불쑥 가슴에 안아보는
아 조선로동당원증
어머니당의 한없는 믿음이어

바람부는 한겨울 먼 출장지에서
남모르는 초행의 밤길 내 혼자 걸어도
그 믿음만 있으면 배심은 든든해라

아 조선로동당원증
어머니당의 자애론 손길이어

일이 쌓여 지쳐도 사무치는 생각
우리 당의 믿음 있기에 열정은 샘솟고
그대 위해 뛴 뛰는 심장은 불타올라라
아 조선로동당원증
어머니당이 안겨준 신념이어

목화솜이불



황 용 남

1

오늘은 농장의 휴식일이다. 열흘만에 돌아오는 휴식일이지만 농번기가 코앞에 닥친데다 포전담당 책임제의 실시로 자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농장원들은 오늘도 바쁘게 지낼것이다.

로동일, 휴식일이 따로없는 두만령감은 자기 시간표에 맞춰 산다. 어느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난 그는 식전일파로 뒤울안처마 밑에 가려두었던 줄당콩덕대감을 널직한 앞마당으로 몽땅 끌어냈다. 그 중 실한 놈을 골라 곧추 세워들고 툇뒤등으로 통통 튀겨보았다. 솜이 먹지 않도록 껍질을 말짱 벗겨낸 데다 뜸을 썬 위 비바람간수를 잘해서인지 철관을 두드릴 때처럼 제법 멍멍소리가 났다. 밑둥이 팔뚝 같은데다 하나같이 곧고 미출한 이 덕대감은 그가 3년전에 며칠을 품놓아 해온것이다.

아이도 설기 전에 기저귀감이라고 씨앗도 뿌리기 전의 덕대손질은 조금한 성미탓이라 볼수 있지만 그런것은 아니다. 두만령감은 뒤돌쳐마아래에서 공연히 한해를 묵인 이 줄당콩덕대감을 토막내어 남새작업반에서 오이덕대로 쓰게 하자는것이다.

해마다 씨뿌릴 계절이면 집집마다 터밭을 놓고 오이보다는 담배를 몇포기 더 심자거나 봄배추는 남새반에 얼마든지 있는것이니 그보다는 마늘을 박자거나 하는 토론들이 맹렬하지만 언제한번 줄당콩이나 호박을 가지고 옥신각신한 레는 없다. 그만치 줄당콩과 호박은 웅당 심어야 하는것이고 특별한 땅패기가 필요없기때문이다.

처마 밑에 심은 호박은 지붕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올바자를 따라 심은 줄당콩은 덕대가 선 높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다. 줄당콩이란 덕대높이만큼 순을 뻗치고 순을 뻗친만큼 꼬투리가 열리는 법인지라 덕대가 너무 높다는 비난은 아직 있어보지 못했다. 덕대높이는 이웃간의 은근한 승벽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마을에 문패를 달지 않으면 안되게 똑같이 생긴 살림집들이 앞줄엮줄 자로 그은듯 늘어섰다. 거기다 줄당콩을 중시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동서의 랑끝집에 키높은 기둥들을 세우고 그사이에 굽직한 쇠줄을 건네주었다. 그러니 거기에 새끼줄을 얹으면 그만이요 집집마다 웅긋긋 덕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개나리가 피어나기 전의 이른 봄날 한날한시에 이사짐을 싣고 새집에 도착한 주인들은 가장집물도 부리우기 전에 터밭부터 돌아보며 싱글벙글하다가 담장우를 높이 지나간 쇠줄을 보고는 하나같이 감심한 표정을 지었다.

철이 되자 새집의 주인들은 올라리를 따라가며 줄당콩을 박았다. 초여름에 접어들어 담장높이를 넘어선 콩넝쿨이 가로세로 뻗기 시작하더니 이웃집의 넝쿨과 사이좋게 엉키었다. 그때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덕대를 높이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창숙이 아버지, 콩넝쿨이 엉키는 기세가 참 장하웨다. 이젠 줄당콩농사까지 협동화가 된것 같은데 수확을 어떻게 할가요? 허허허...》

누구 생일이었던지 거기에 함께 갔다가 밤길을 더듬어올 때 옆집의 현분이 아버지가 한 말이었

다. 무대막처럼 넓다랗게 펼쳐진 넝쿨사이로 간간이 새어나오는 불빛을 멀리서 바라보느라 온 마을이 한울안에 들어앉아 집안일을 소곤거리는것 같았다.

(작년에 저리 잤다했으면 더 좋았을걸...)

덕대감들을 그저 키에 대보고 눈짐작으로 잘라서 한쪽에 가려놓으니 자리가 폭폭 났다.

막 마지막덕대에 톱날을 가져다대는데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던 부엌에서 이번에는 달각달각 가벼운 칼도마소리가 울려왔다.

두만령감은 잘 안다. 쯔전까지 밥이 갖는 아궁앞에 잉겔불을 끌어내 소금에 절인 메기를 기름이 뽀질뽀질 내배도록 노랑게 구워놓은 로친네가 지금은 가마뚜껑우에 밥사발, 국사발을 얹어놓고나서 국술에 넣을 파를 길쭉길쭉하게 썰고있다는것을...

령감은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을 띠었다. 식전로동은 이래서 더욱 좋은것이다. 령감의 부지런한 첫 일파에 감심이 된 로친네가 어찌 밥상우에 찬 한가지라도 더 올려놓으려 마음을 쓰지 않을수 있으랴.

(아무리 안으로 휘어든다는 늘그막이지만 멀쩡한 육신이 있어가지구야 왜 로친네한테서 밥 한그릇 따끈하게 못 얻어먹는담. 것두 자식들을 다 세간내운 지금처럼 호젓한 때에... 그런것들을 보면 다 반편들이라니까.)

두둑이 가려진 오이덕대감을 세무지로 갈라 지난해에 사려두었던 초들초들한 칙넌출로 장작단 동이듯 단단히 묶어놓고 짐바까지 해놓은 담에야 두만령감은 흐뭇해서 이마의 땀을 훔쳤다.

오이덕대감을 가져가라고 한마디 하면 당장이라도 달구지가 집앞에 들이닥치겠지만 싹싹한 남새반장이며 수다가 푸성귀같은 남새반 아낙네들이 마주칠적마다 찬사를 쏟아놓겠으니 그게 도대체 오싹해지는노릇이다. 한단씩 지고가서 오가던 길인것처럼 앉아 담배 한대 태우고 슬그머니 궁둥일 털며 일어나면 될걸...

제 궁냥이 그럴듯해서인지 그의 아침세면소리는 어느때없이 요란했다.

만족해서 아침상을 마주했던 두만령감은 승농그릇을 든 로친이 문지방을 넘어설적에야 어제 복삼이가 수박모를 붓겠는데 봐달라고 부탁하던것이 생각히웠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요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물어보는것도 많아진것을 은근히 흡족해하는 령감이였다.

(허, 이제 심다심다 수박까지 심겠냐?)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 토지리용률이 부쩍 올라갔다. 생육기일이니 적지적작이니 하는 말들을

겨끔내기로 외우는데 모두가 박사들이였다.

《내 심어봐서 아는데...》하거나 《건 메흙땅에 심으면 영낙없다니까.》하는것이 리론보다는 경험이요, 거기서도 터밭농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와서 터밭은 담당포전을 위한 시험포전처럼 불리웠다. 농장원들은 새라새로운 품종들과 합리적인 그루바꿈을 매일과 같이 생각해냈다. 지난해 강냉이밭 사이그루로 감자와 얹은당콩을 심고 그것을 수확하자마자 잇달아 들깨모를 옮겨심어 4모작을 한 복삼이네였다. 그때 사람들은 이삭을 내민 강냉이대밑에 들깨모를 옮겨심는 복삼이네를 보면서 송아지 한마리에서 가죽 두장 벗길 욕심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런데 웬걸... 강냉이한테 겹쳐 기를 못 펴고 비들비들하던 들깨가 강냉이를 베어내자마자 시퍼렇게 독을 쓰며 처서에 장벼 패듯 올라오는데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래질수밖에 없었다.

《허참, 비온 뒤 참대순이라더니 강냉이 벤 뒤 들깨는 더 무섭구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얼마전까지 강냉이밭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했다. 그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진 복삼이네가 올해는 수박을 심어보겠다고 덤빈다.

수박을 어디 심겠냐? 수박이란게 땅을 뚫시 가려서 한번 심고는 자릴 옮겨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긴 심을데야 없을라구, 품이 많이 들어 그렇지. 4모작이란것도 따지고보면 한해에 한밭에서 네가지 작물을 수확한다는것인데 작물호상간 생리적특성에 대해서는 기술일꾼들이 시기와 토양에 따라 주의를 돌려주면 되는것이니 리치는 구구표처럼 흰한것을 결국 지력과 로력이 팔려 못하는것이 아니던가.

이제 좀 있으면 복삼이네 같은 집들에서는 5모작, 6모작도 들고나올것이다. 지내 욕심을 부리는 감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이악하고 부지런한 그들 내외에게 두만령감도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까지 남새반에서는 물론 터밭들에서도 수박을 거두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왔다. 복삼이가 어디서 수박농사 해본 경험이라도 있기에 팔을 걷어붙였는가 했는데 《창숙이 아버지한테 참의농사경험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온거야요.》하는 꼴이 생둥이가 분명했다. 충천한 기세를 꺾을가보아 머리를 끄덕이긴 했지만 막상 가서는 무슨 도움을 줄수 있겠는지. 다른 한편 처한테 쥐여산다고 소문이 난 복삼이까지 어벌크게 접어드는 마당에 어찌 농사로 머리 희어온 자기는 왜 여적 그런 궁냥을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복삼이의 생각을 그저 욕망으로만 밀어붙일것도 아니다. 엄두를 내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맘먹었으면 땅있고 종자있고

부지런한 손발이 있는데야... 참외는 말그대로 참 오이이니 오이의 사촌이요, 수박은 줄이 간 호박이 아니겠는가.

웃방 벽구석에 매달린 노란 담배타래에서 한쪽지 때내며 열심히 부스러뜨려 찜지를 불룩하니 채우고 난 두만은 큰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앞프락을 지나 막 대문을 열어젖히는데 등 뒤의 굴뚝쪽 터밭에서 로친의 소리가 들려왔다.

《난 무슨 소리지 듣고도 모르겠다. 금희의 잔치를 미루다니...》

또 옆집의 현분 에미와 올담을 사이두고 마주선 모양이었다.

《진짜라는데요. 그래서 신랑감이 며칠전에 왔다가 선자리서 돌아섰다잖아요. 잔치날이 코앞에 박 두했는데 이제 와서 덜컥 미루자고 하니 속이 좋았겠어요? 저희 부모들과 의논을 해야겠다고 가시어머니 될 복순반장한테 잘있으란 인사를 건성 하고는 뿌드드해서 가버렸대요.》

《글쎄 왜 미뤘다던가?》

《잔치준비가 잘 안됐다더군요.》

《잔치준비? 모를 소리다. 뭐이 없겠다구...》

그답엔 소리가 끊긴것으로 보아 현분 에미가 사라진 모양이다.

피씩 웃어버리고 그냥 대문을 나서려던 두만령감은 미심쩍은 생각에 스택스적 다시 프락으로 돌아섰다. 마침 바가지에 시금치를 소복이 담아둔 로친이 모통이를 돌아나왔다.

《게 무슨 소리야?》

《령감 아직 안 나가셨소? 무슨 소리란건?》

《이자 현분 에미가 하던 말 말야?》

《오, 금희 잔치가 어찌구 하던거? 현분 에미가 무슨 소리가 들은 모양인데 아마 뜬소문일거우다. 아낙네 입을 셋만 거치면 없는 귀신두 만들어지구 거기에 뿔달리구 발달리구 한다우. 참 령감, 무우구멍일 들춰내야 마늘을 심겠는데 오늘 손 좀 안 대줄라우?》

로친은 그따위 소리는 벌써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표정이다.

로친의 말이 맞다.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니...

두만령감은 경망하게 호기심을 드러낸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거 그러길래 그런 말엔 애당초 끼여들지 말라고요. 한가하니까 노상 귀구멍만 항 해가지구... 무구멍이도 그렇지. 오소리촉간만 한 무우구멍이에 이견 꼭 남정손을 불려대면서...》

《아니, 이 령감이 왜 갑자기...》

애꿎은 욕을 먹은 로친네가 눈을 홑뜨는데 두만

령감은 벌써 가래를 요란하게 툇으며 집을 나서고 있었다.

(암, 그게 뭇번이나 한 소리가, 준비가 안돼 잔치를 미루다니.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 농장에서...)

자기 고장에 대한 두만의 애착과 자부는 이만저만 아니다.

이곳 부명농장은 이름대신 부자농장으로 통한다.

부명리에는 벌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다. 한 여름 산에 올라 매미잡이에 여념이 없던 아이들이 그에 싫증을 느끼면 반두를 들고 물길을 훑어 잠간새에 붓어, 버들치, 메기들을 길다랗게 꿰여달고 마을길을 내달린다. 어떤 날엔 잔등을 새빨강게 구우며 강변에서 하루해를 채우다가 사위가 어둑해지기 바쁘게 강둑대안의 참외밭에 기여들어 노랑참외를 런닝그에 싸들고 강물에 띄워든다. 장난꾸러기 들한테는 그걸 울안의 도마도포기에 매달아 부모들이 대경실색하는것을 보는것도 재미있지만 가을철 밭머리에서 콩청대를 하는 농장원들속에 끼여들어 거기다 산에서 주어가지고오던 밤알들을 슬쩍 물어 놓고 저쯤 멀리 가 지켜보는것은 더 큰 재미다.

사시절 어느 집 밥상이나 당콩, 기장, 찰수수 같은 잡곡을 알맞춤하게 둔 밥에 토장국을 받쳐 말린 산나물과 민물고기, 들깨잎자반과 꿏고추절임이 밑반찬으로 오르는 농장이 바로 부명농장이다.

이곳 사람들이 제 자식을 초달할 때면 《못 먹은 것 없이 자란 녀석이!》하는 소리가 자연 따라서는데 그 소리가 머슴네 자식에게 맞고 들어온 못난 아들에게 하던 지주놈 욕설같아 좀 별나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자만과 자족은 대단한것이다.

두만령감은 몇대를 거치며 살아온 토배기로서 이 농장의 생활수준이 다른데 비해 훨씬 높은것이 대대로 물려오는 조상덕도 아니고 별방, 산골의 풍경이 고루 펼쳐져있는 지리적덕택이 아니라 모두가 근면하게 제 고장을 꾸리려고 아글타글한 덕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 그 열성들은 더욱 높아진듯 했다. 좀전에 한귀로 흘러도 뭇 아낙네의 주책머리없는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것도 금지높은 농장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말이였기때문이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금희가 잔칠 미루다니? 말두 안되는 소리구말구.)

요즘 농장마을의 이야기거리는 금희의 혼사에 대한것이였다.

금희로 말하면 두만령감과 동년배인 송복순의 딸이다. 송복순은 지금은 비록 나이가 돼서 두만령감

이나 같이 부대로력으로 돌아왔지만 처녀시절부터 40년가까이 작업반장으로 늙어온 이 고장의 오랜 실농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집에 들어왔는지 몇년 잘되지만 아직도 입에 오른대로 송반장, 복순반장이라고 불렀다.

그의 딸 금희는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몇년째 농산분조장으로 일하고있는데 그동안 국가계획을 매번 넘쳐수행했고 그가 전문학교때부터 연구해왔다는 새로운 미생물비료는 분조와 작업반계선을 넘어 농장적인 수확고를 통해 우월성이 검증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농업과학잡지에도 났고 금희는 도 농업열성자회의에서 경험토론까지 했다. 지난해까지 네해째 농장적인 분배몫순위에서 금희네 분조가 매년 1등이다. 금희에게 인차 농학석사학위가 수여된다는 말도 들었고 그 말의 뒤끝에는 농업과 학원에서 소환장이 내려올판에 석사학위같은것은 더 말할나위가 없는 소소한 문제라는 단정이 꼬리 붙곤 했다.

나이찬 아들들 둔 사람마다 금희를 볼적엔 괜히 한숨을 쉬곤 했다. 탐이 나면서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던차에 막상 금희의 혼사말이 떠돌자 사람들은 마치 제 집에 대사가 닥친것처럼 싱글벙글 기뻐했다.

그 소문을 들은 두만령감이 《허, 금희가 벌써 시집을…》 하고 격세지감에 잠기자 로친네는 《별써가 뭐요. 그 애가 분조장을 한지도 이제 툄칠년 잘되는데…》라고 핀잔하며 《예구, 우리 송반장은 막내딸마저 시집을 훌쩍 떠나보내면 적적해 어떻게 사나?》 하는게 그 모양이 꼭 소나무를 애앓아하는 잣나무같았다.

(준비? 부령농장 사람치구 송복순네 막내딸 금희의 잔치라 하면 무관한 사람은 없을터니 물론 손님이 많긴 하겠지만 아무렴 손님들 먹일게 없을텐가, 첫살림을 펴는 금희에게 꾸러보낼 가장집물이 부족하겠는가. 복순반장 생일때마다 집안이 터져나가게 모여드는 금희의 오빠, 언니들은 말할것 없고 관리위원회, 작업반에서랑 오죽 준비를 잘해주지 않을려구… 행, 잔치준비같은 소린 하지두 말아. 부자농장에서든 제일가는 부자분조 분조장의 잔치다!)

두만령감은 복삼이네 집을 향해 동쪽길을 부지런히 걸으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2

복삼이네 터밭에 수박모를 다 붓고 박막까지 씌웠을 때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손채양을 하고 따갑게 내려비치는 해를 잠시 올려다보고난 두만은 《아직은 일없겠는데 이제 좀더 기온이 올

라가면 박막에 진흙물을 올려주라구.》하고 당부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아직두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쩔까?》

복삼이 처가 손에 들고있는 종자그릇을 내려다보며 하는 소리였다. 젖은 수건을 한옆으로 젖혀놓은 그릇안에는 싹을 뽕주름히 내민 수박종자가 아직도 적잖게 남아있었다.

《옆집에서랑 심겠다고 안할까?》

복삼이가 중얼거리자 그의 처는 《그럼 옆집에 주겠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서 저저마다 심겠다면 어쩔려구…》하면서 큰 비밀이나 되는듯 종자그릇을 뒤로 돌리며 옆집을 살펴보기까지 했다.

《다 심했다면 좋지. 그렇게 하면 매년엔 한번 잘해볼수 있지 않겠나. 이 집에서 몇년 걸려 싹을 경험할 여러 집에서 나누어 싹게 되겠으니…》

두만이 현현하게 하는 소리에 복삼이 처는 입술이 뽕죽해졌다.

《너도나도 심으면 그만큼 흔해질거구 흔하면야 뭐 빛갈이 나나요. 빛갈이 나야 수익두 올라가요. 그래서 모험을 해가며 파악없는 작물을 선택한건데… 기척아저씨네 좀 보라요. 지난해에 은산 작은아버지한테서 가져온 감자종자를 누구에게도 말 안하고 자기네만 심어서 남들보다 곱절이나 낫걸…》

두만은 복삼이 처가 너무 영악을 부리는게 기본이 언짢았지만 속좁은 아낙네들이란게 그렇지 하고 터밭에서 물러나 토방으로 향했다.

참깨 들깨 노는데 아주까리라고 못 놀라는 식으로 저마끔 새 품종, 새 방법을 들고나오는건 좋은 현상인데 그것이 도수를 넘어 다른쪽으로 기울어질가봐 우려되는것이 없지 않다. 복삼이 처만 해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있으면 이웃간에, 분조원들간에서로 토론해서 머리를 킁워주기도 하고 궁냥들을 보태면 좀 좋으랴만 혼자 불안고 담배씨로 뒤웅박을 파듯 하겠다는것이다.

손을 씻고난 두만은 싹지를 풀며 복삼이에게 말을 건넸다.

《근데 이 수박모를 어디다 심자구 그러나?》

《3반경계 물길둑 있잖아요, 모태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심자 그래요.》

《거긴 비경지지?》

《예, 작업반 비육분조에서 기껏 비름이나 심던 곳인데 포전담당제가 세분화되면서 올해 우리 분조에 넘어왔어요. 분조장이 날더러 말으라더군요.》

《금희가?》

《예.》

《잘해보라구. 그럼 자네가 우리 고장에선 수박 농사선구자가 될걸세.》

《저같은게 무슨 선구자가… 난 첩에 집사람하구 토론끝에 락화생을 심어보자구 했됐어요. 그래 분조장한테 말했더니 수박을 해보라는거예요.》

저보다 10년도 더 손아래인 금희를 뒤에서도 꼭 분조장이라고 괴여부르는것만 보아도 금희에 대한 분조원들의 신뢰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분때뭇이 4년째 계속 농장에서 1등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금희는 웅당 분조원들의 존경을 받을만 하다.

《결국은 금희 말을 듣고 용기를 냈군. 좌우간 금희 그 애가 궁냥이 엉뚱하고 다기차단 말야. 어떻게 수박생각을 다…

이젠 십년, 이십년두 썩 넘었는데 지금 참외를 심는 강둑데안에 거 언젠가 부업분조 평감로친들이 수박을 심어본적이 있다네. 그런데 수박이 메주뎡이만 해졌을 때 물이 저서 짝 녹았지. 그담부턴 걸 어치우구말았는데 그때 보니 수박이란 놈이 별놈이야.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꽤나 물을 빨아들이길래 이제 열매가 클 때는 더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그때 가선 조금만 땅이 습해져도 잎이 누렇게 쓰더라 말야.》

《분조장이 말하는것과 꼭 같구만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분조장은 날더러 구뎡이식으로 하지 말고 이랑을 짓고 비닐굴식으로 해보래요. 그래야 습도를 보장하는데도 좋고 뎡습해도 피하고 수확을 스무날정도 앞당기니 장마가 들기 전에 끝낼거라면서…》

복삼이는 금희 말이라면 소금짐을 물속으로 끌라고 해도 서슴지 않을 잡도리다.

《웁거니, 부업분조 평감들이 수확을 앞당길 생각을 못했군.》

금희가 했다는 말은 자기처럼 두리뭇실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타산된 정확한 소리다. 남에게 한해농사의 모험을 시킬 그런 결단을 내렸을적엔 그만치 확신을 가졌다는것인데 수박농사를 지어볼 기회가 없었던 금희로서 그런 파악이 책의 글줄이나 봐가지구 생겼을가. 오죽이나 고심을 해가며 따져봤으랴. 남의 자식이지만 대견하지 않을수 없다.

《제 어머니한테서 넘겨받은 경험도 경험이었지만 본시 금희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 송반장이 막내딸 하난 잘 뵈거던. 원젹이가 그렇게 멋있게 번질줄이야…》

두만은 원젹이소리를 꺼내놓고 별안간 허허 웃어댔다.

금희가 태어나던 그해 송복순의 작업반원이었던 두만은 반장이 진통이 와서 군인민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를 듣자 손가락을 쥘으며 뭔가 구구하더니 《그 애는 보나마나 원젹이겠군.》하고 단언했

었다. 아들일가 딸일가 속구구를 하느라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었는데 그후 금희가 커가면서 진짜 왼손잡이가 되어버리자 몇년전 두만의 장담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창숙이 아버지, 그때 무당이랴도 내렸던게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 알아맞췄수?》

모두의 눈길이 두만에게 쏠리자 그는 별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가 생일을 보고 알았지.》

《박수무당 시늉말구 좀 푹톡스레 대주구려.》

두만은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계속 룽갑풀이를 해나갔다.

《금희 생일달이 아마 8월이지? 풀베기 나갔던가 애비가 순산소식을 듣고 밤중으로 프락뿔 끌고 질러온다고 하다가 저기 김정산에서 적재함을 얻어 그 소문이 짜했됐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그러니 그 엘 만든건 아마 그전해 10월이나 11월쯤 되겠지?》

《그럼 그때 만든 애들은 다 원젹이요?》

《이 철부지들 같으니라구, 그 애 애비가 프락뿔 운전수였잖아?》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몰라 두만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11월이면 금희 애비가 뿔할 뎡가?》

《11월? 그때야 가을같이때니 논갈이를 했겠지요.》

《그러니 원젹이지 뭐야?》

《?…》

《논갈이때면 언제 운전수들이 밤잠을 잘새 있나? 늘 밤교대를 했고 혹 교대운전수가 밤에 붙은 날도 금희 애비 성미에 맘이 안 놓여서 출창 논에 나와 살았을게거던. 그러니 낮에밖에… 낮에 만든 애들이 원젹이라는건 다 알테지?》

꿈보다 해몽이 낫다고 던진 돌이 굴뚝에 들어간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석을 붙이는데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두만이 그 생각을 하며 대견한 표정을 짓고있는데 복삼이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분조장 하나만은 정말 잘 만났어요. 아까 집사람이 기철이네 애기를 꺼들였지만 그 사람 두 아무리 새 종자를 얻어왔다지만 분조장이 아니면 어림이나 있어요. 어디 심어라, 언제 심어라, 무얼 줘라 하나하나 대켰으니망정이지, 췌… 그뿐이냐요? 금선아주먼네는 저기 구먹재풀안 막바지의 포전을 말아놓구 사흘을 앓았어요. 분조장이 우정생각이 있어 말긴건데 것두 모르구 아무리 포전거

리가 가까와두 난 이 포전을 담당 못하겠다 하면서
 절끔절끔 찌까까지 했는걸요. 알다싶이 그 밭이야
 골바람두 심하구 가물을 세게 타지 않나요. 그런걸
 분조장이 사이그루로 고추를 심으라고 했지요. 금
 선아주머니가 이악하게 퇴비를 내긴 했지만 글썽
 바람꽃에 심은 고추가 그렇게 잘될줄은... 분조장이
 그때 말합디다, 고추는 바람이 설렁설렁 통하는 곳
 이 적지라고. 거기서 마른 고추루 반톤이나 거웠으
 니 금선아주머니 이제 와선 그 밭을 바꾸랄가봐 걱
 정이야요. 나두 금희분조장만 없었드라면 4모작이
 다 뭐야요, 소경 머루먹듯 하다 말았지...》

《그 앤 이제 반장, 관리위원장두 넉근히 할거
 네. 그건 그렇구, 자네 분조가 야단났군. 금희는
 인침 시집을 갈게구 시집은 백리밖에 있으니 언제
 매번...》

복삼이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울농사가 금희분조장하구 짓는 마지막농사가
 될거예요.》

《울농사라니? 그럼 잔칠 하구두 신랑을 따라가
 지 않구 한해농사 마저 짓구 간대?》

《아니, 아직 모르구있어요? 분조장이 잔칠 미뤘
 대요, 가을루...》

《뭐이? 여기서두 또 그따위 소리야?》

두만이 짹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서 땀들던 암닭
 한마리가 짹 짹 놀라 깃을 치며 저만치 튀어나는 바
 람에 퇴마루에 올려놓았던 찜지가 나뒹어지면서 담
 배가루가 짹 흩어졌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러잖아두 겹겹게 보이는 복삼의 두눈이 더 커
 졌다.

《우리 집사람이... 정말이야요. 어보!》

복삼이는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가로 꺾
 었단 무슨 일이 날것 같아 황겁히 부엌에 대고 처를
 불렀다. 당장에 부엌문이 열리고 뽀얗게 김을 들썽
 복삼이 처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대며 달려나왔다.

《이자 그 소리 누구에게 들었나? 어느 잡것들이
 시시한 소리 돌리나 말야?》

삼시에 흰자위가 많아진 두만령감의 서슬푸른 눈
 길에 복삼이 처도 당황해했다.

《창숙이 아버지, 왜 잡자기...》

《그게 말이나 돼? 그 소리가 돌면 금희네 집안
 만 망신이나? 농장망신이구 분조망신이구 결국은
 제 망신이지!》

두만의 기상은 금시 처마라도 들이받을것 같
 았다.

《가만 보니까 복삼이 너 이놈! 그래 너는 자기
 분조장이라면서 그런 험담을 하는 주둥이를 술뿌릴

루다 꺾매놓진 못할망정 한해농사 또 같이 짓게 됐
 으니 차라리 잘됐다 하구 좋아해?》

복삼이 처는 영문도 모르고 벼락같이 욱을 들썽
 데다 자기 남편이 이놈저놈소리까지 듣자 낯색이
 새파래졌다. 반면에 복삼이는 제 안해쪽에 불구레
 미를 통채로 떠맡겼다.

《당신이 며칠전에 그랬지? 분조장의 잔치를 가
 을로 미룬다고...》

복삼이 처가 불구레미를 안고 욱박해왔다.

《맞아요. 내가 그랬시오!》

또박또박 말을 씹으며 한발작 다가서는 복삼이
 처를 보자 두만의 부아통은 금시 터질것 같았다.

《그때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복순반장한테 직접 들었시오!》

《?!...》

《그날 길에서 만나 잔치준비때문에 바쁘겠다고
 인살 하니까 〈잔칠 미루기로 했네.〉 이럽디다.》

두만의 눈이 떠부러거렸다.

《게 사실인가? 또 뿔달구 발달구 하는게 아니
 지?》

《뿔이구 발이구 건 모르겠는데 나도 놀라워서
 〈아니, 왜 잔칠 미뤄요?〉 하고 물어봤시오. 그랬
 더니 송반장이 웃으면서 〈금희 그 애가 잔치준비
 가 안됐다며 시집을 못 간다고 나자빠지니 할수 있
 나.〉 하더군요.》

두만은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잔치준비, 잔치준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안됐
 대? 텔레비가 없대, 랭동기가 없대? 것두 아니면
 잔치에 잡을 돼지가 아직 크질 못했대?》

아무렴 금희가 선녀들의 날개옷을 해달라고 했
 을텐가, 지참품으로 비행기를 요구했을텐가. 그렇
 지는 앓을진대 두만은 가산을 팔아서라도 그 미진
 됐다는 잔치준비를 능히 메꿔줄 용의와 자신이 있
 었다.

《말해봐! 무엇이 없대?》

잔치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나 만난듯 따지고드는
 두만령감에게 복삼이 처가 뿔아놓은 소리는 아연실
 색할 소리였다.

《이부자리가 안됐대요.》

두만령감은 갑자기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두눈을
 홉뜨고 까딱 움직이지 못했다. 한참만에야 그의 입
 에서 《와-하하하!》하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
 쳐나왔는데 복삼이 부부에게는 어딘지 무시무시하
 게 들렸다.

웃음소리에 비해 뒤편아 흘러나온 두만령감의 소
 리는 의외에도 점잖았다.

《이부자리가 없다? 흠- 흠-》

물론 두만령감이 장가들 때만 해도 처녀들이 이부자리를 몇채나 장만했는가 하는것은 시집갈 준비의 우열을 결정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했다.

《아무개네는 딸한테 이부자리를 세채나 해보냈대.》하면 그건 더할나위없이 시집보낼 준비를 잘했다는 평가였다. 자기 마누라도 시집을 때 늑가마와 양은쟁개비 한개씩에 밥사발, 국사발, 소랭이따위 부엌세간을 장농속에 넣고 그우에 이부자리 한채를 얹어온것이 전부였다. 장농속에는 심지어 바가지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아니, 양복장이요 이불장이요 하는 《5장》과 텔레비존수상기요 랭동기요 하는 《6기》를 꼽던 때도 우스워졌다. 록음기나 재봉기 같은것도 재산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부자리라...

《부명농장에서두 제일 분배가 높은 분조의 분조장이 첫날 덮고잘 이부자리가 없어 시집을 못 간다? 암, 그럴수 있지, 그럴수 있구말구.》

두만령감이 비양스럽게 뇌까리는 말에 복삼이가 조심스레 설명을 달았다.

《저, 나두 침에 그 소릴 듣구 믿지 않았는데 건 사실이야요. 또 우리 분조장으로서선 십분 그럴수 있구요.》

《뭐가 그럴수 있다는젠가?》

《분조장이 말하는건 목화솜이불을 두고 하는 소리래요.》

《목화솜이불?》

《예.》

복삼이 처가 말을 받았다.

《분조장이 제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 <난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온 그런 목화솜이불이 없인 시집 안 갈래요.> 하구...》

《어!—》

두만의 눈이 또다시 떠부럭거렸다. 그담 그는 갑자기 다리맥이 빠져버린듯 그 자리에 스프르 주저앉아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허공의 어느 한점에 눈길을 딱 멈춘채 두손만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의 곁에 조심조심 다가앉은 복삼이가 발치에 흩어진 입담배부스레기를 주어모아 한대 말면서 연신 령감의 거동을 훑쳐보았다.

《아시잖나요. 작년 늦장마에 우리 농장 공예분조 목화농사가 쫓딱 녹은걸...》

복삼이의 설명에 상관없이 령감은 제 생각을 더듬고있었다.

(제 어미가 시집을 때 해온 이부자리? 복순반장

이 시집갈 때가 언제인데 왜 갑자기 그 이불소리가 튀어나왔노?)

두만령감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복삼이는 금시길길이 뛰다가 삼시에 얄전해진 두만령감의 변덕에 혼이 한절반 빠져가지고 그의 턱밑에 담배를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거 왜 생각 안나요? 벼가 시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던 가을철에 폭우가 들이닥쳤던걸... 방뚝이 넘어나고 그때 창숙이 아버지랑 늙은이들까지 총동원되어 감탕우에 넘어진 벼대들을 일궈세우지 않았나요?》

《뭘 말하자는게야, 이불소릴 하다가?》

《그때 목화밭도 물에 잠겼댔다니까요.》

《헌데?》

《차, 이런, 그러니까 목화솜이불을 못해준단 말이예요. 우리 농장에서 결혼식집들에 다른건 몰라도 이부자리만은 무조건 해주지 않았나요.》

새 가정을 이루는 집에 농장 공예분조에서 난 목화로 솜이불 한채와 새색시에게는 비로도웃감, 새신랑한테는 넥타이와 샤쯔를 받친 양복지를 안겨주는것은 오래동안 내려오고있는 부명농장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드팀없이 지켜져 린근농장사람들의 부러움을 크게 자아냈다. 복삼이의 말은 공교롭게도 금희가 시집가는 해에 목화농사가 안돼 그 전통을 지킬수 없게 똤다는 소리다. 기껏 발을 뻗었다는 생각이...

《내가 농장창고까지 가봤다니까요. 코빨갱이 창고장이 창고문을 활짝 열고 내보이던데 시뻔결제 진흙물이 오른 솜짜이 몇개 쌓여는 있두만요. 근데 첫날 이부자리감으론 안되겠어요. 창고장은 사다가라도 이부자리만은 무조건 보장한다지만 그거야 벌써 의의가 있나요? 우리 분조장은 바로 그게 싫다는거야요.》

두만은 묵묵부답으로 불이 꽤우도록 담배만 힘껏 빨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복삼이 처가 다시 끼여들었다.

《뭘 진짜 덮고잘 이불이 없어서겠나요? 내 그 집에 자주 가봐서 아는데 오빠, 언니들이 준비해준것만 해도 이불장에 짝 찼어요. 나이론솜, 명주솜이불에다 오리털이불까지 해서... 목화솜이불에다 대면 몇배나 열싸하지요. 그런데도 금희분조장이 꼭 목화솜이불을 꼬집는건 제 고향땅에서 고향사람들이 가꾼 그런 목화솜이불을 가지고 시집을 가고프단거지요. 그걸 보면 우리 분조장이 속이 깊어요. 나같은건 시집을 때 어머니가 해주는 이불등이 맘에 없다구...》

두만에게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

았다.

그는 거의 거의 잊어버릴뻔 했던 40년전의 사연을 돌이켜보고있었다.

3

처녀반장 송복순이 룡수포마울에 사는 안창로령 감의 둘째와 약혼식을 했다는 소문은 다음날로 온 농장에 짹 퍼졌다. 그의 작업반사람들은 하루종일 그 소리를 새김질했다.

《그러니까 반장이 시집을 가서도 그냥 반장을 할수 있단 말이지?》

《거림, 창로령감은 말이가 모시고있는데다 호근이 아래루 셋째, 넷째가 줄줄이 있으니 호근이가 반장네 집으로 들어오기루 했다는거야.》

《마침 잘됐지 뭐야. 호근이가 들어오면 반장 어머니도 사위삼아 아들삼아... 반장이 시집간다는 바람에 허전했었는데 되려 우리 작업반에 로력자가 하나 불게 됐군.》

《호근이는 군대에 나가서 운전사를 했더니까 작업반 트랙토르를 말으면 될거구... 잔치는 언제 한대?》

《창로령감네는 인츰 했으면 하는걸 우리 반장이 올농사를 마무리하구야 식을 올리자구 고집을 써 그렇게 하기루 했단누만.》

《잘됐어. 올해는 논도 열두정보 더 풀었으니 가을에 그 논에서 난 찹쌀로 떡이나 호무러지게 쳐 놓고...》

그들은 가을을 기다렸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흐뭇한 가을인가.

전해도, 그전해도 가을은 풍요했다. 지붕우의 호박넉출을 걷어내는것으로 한해농사를 안팎으로 마감하고나서 밤이 오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선전실로 모여들었다. 아이들까지 오롱조롱 달고와서 해방전 못살던 얘기, 해방후 잘살던 얘기, 협동화때 누구네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로 순뻘는데로 이야기를 가지치다가 출출해지면 어느결에 먹는 이야기로 번져졌고 그러면 삶은 떡호박이나 군고구마, 엿판대기가 선전실 한가운데 생겨나군 했다. 김이 문문 나는 떡호박을 가마채로 놓고 둘러앉아 《생긴걸 봐선 선복이네 헛간 지붕에 열렸던 호박인줄 알았는데 맛을 보니 오령감네 뒤간 지붕의것이구나!》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가을이 다시 오면 반장이 시집을 간단 말이지...

반원들은 올해농사도 잘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자기네 반장이 처녀시절의 마지막농사라고 두팔걸고 달라붙은 올농사가 아닌가.

그런데 그해에 백년래의 왕가물이 들었다. 강줄기가 댕기오리처럼 가늘어지고 드러난 골포바닥에 선 소들이 풀을 뜯으며 거닐었다. 늙은이들이 살다살다 이렇게 지독한 가물은 처음 본다고 하늘에 주먹질을 해댔다.

송복순이 그 전해부터 작업반원들을 동원하여 다락밭을 개간한 열두정보 논이 거부기잔등처럼 찹찹 갈라터졌다. 온 겨우내 어깨가 물러나도록 흙짐을 저내고 두령을 짓느라 장알박힌 손바닥에 피멍이 덧진 논이었건만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무슨 놈의 논이 물을 잡아먹는데 이진 시루에 물붓기였다. 개답한 첫해에는 물이 많이 들것이라 각오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잡아먹을줄은... 그러자니 밭에는 물 한번 제대로 줄수 없었다.

무슨짓인들 안해봤으랴. 두만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아침이면 삽자루끝에 밥곽을 매달고 20리밖에 있는 3단양수장으로 물물이를 떠나군 했다. 그러나 다른 농장, 다른 작업반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다락밭아래 막바지까지 물을 몰아오면 그 물이 실도랑도 가까스로 이루었다.

노상 말라있는 논이라 물풀, 밭풀이 다같이 무성해 범이 새끼치게 됐는데 호미가 없이는 논김을 매지 못할 정도였다. 모판에서 옮겨온 다음 아지치기는커녕 한뼘도 더 크지 못한 앙상한 벼대가 사람들의 희망을 빨리 꺾어버리자고 작심을 했는지 처서를 썩 앞에 두고 새끼손가락길이란 한 이삭을 땀다. 일추 보아도 벼알이 마흔댓알을 못 넘길것 같은 애처로운 이삭마저 초들초들 말라갈 때 늙은이들이 《꼭식이 안되려면 이삭이 빨리 팬다더니...》하며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물을 부으면 치지직 소리가 날것 같은 밭에선 타죽어가는 강냉이대에 그 몸쓸 메씩이 칭칭 휘감고올라 춤을 추어댔다.

가물은 송복순의 얼굴에도 덮쳐들었다. 멀리서 보아도 싱싱한 기운이 풍겨오던 처녀반장의 두볼이 훌쩍 꺼지고 입술이 터갈라졌다.

《요샌 반장 얼굴 마주보기가 섬찍해. 새까만 얼굴에 눈만 커다래지구 거기에 피발까지 섰으니...》

《주름살이 다 갔더라, 처녀가!》

《가슴이 다 작아졌어요.》

《겉이 말라든건 말라든거구 속에는 아마 재가 한삼태기 앉았을거예요.》

야속한 그해 락엽지는 가을은 빨리도 왔고 수확의 가을은 인차 가버렸다. 탈곡기는 며칠 돌아가자 할일을 말짱 끝내버렸다. 어느해같으면 북데기가 산처럼 쌓였을 탈곡장 퇴비장에 퇴잔등같은 더미가 골숨하게 가려졌다. 닭들도 거기엔 며칠만에

발길을 끊었다.

높이 들린 하늘가에 기러기떼가 줄을 지어 날아 오는 가을이 분명하건만 농민에게서는 벌써 가을이 떠나버린 것이었다.

실수확고가 확정된 날 통계수자를 받아든 송복순이 실신해 넘어갔다. 리인민병원 원장이 군으로 후송해가다가 정신차린 복순이 한사코 반대해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 집으로 실어갔다.

그날 저녁이었다. 해는 지고 하루일은 끝났어도 사람들은 흠어지지 못하고 선전실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어느때 같으면 하루일 끝에 잠깐 포치할 것이 있다고 해도 쟁쟁게 집으로 달려가 돼지물을 한 바가지 퍼주고야 오던 아낙네들까지 이사때 강아지 따라다니듯 남정들의 꿈무늬에 묻어와선 선전실뒤 쪽에 병아리 몰기듯 하고 서성댔다.

아직 총각이었던 두만은 머리를 무르팍 째사이에 박고 한숨만 꺼지게 쉬고있었다. 가을이 이렇게 원망스럽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원망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농사가 안돼서만이 아니었다. 농사때문이라면 극상 올해분배뭇이 좀 작아질것뿐이다.

《반장 잔치날이 아흐레밖에 안 남았는데…》

오새없는 아낙네들이 끝끝내 그 소리를 뱉아놓았다. 누구라없이 속에 품고 차마 꺼내지 못하던 아픈 그 말을…

《당장 쓰러져 운신을 못하는 판에 잔치가 다 뭐야!》

무거운 담배연기만 떠돌던 남자들속에서 거친 소리가 튀어나왔다. 폴풍스런 욕질이었는데 그 욕을 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반원들은 더 침울해졌다.

아낙네들속에서는 계속 속살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하긴 그래. 지금 경황에 반장네가 어떻게 잔치 생각을 하겠어요?》

《통수포마을에선 알고나 있는지?》

《기별 띄울새두 없습디다. 어떻게 귀신처럼 알았는지 반장이 차에 실려 막 떠나려는데 호근이가 벌써 우리 작업반에 뛰어왔던데 뭐. 호근이 그 사람이 반장을 집안에 업어들었어요.》

《사돈쪽에서두 난감하겠군. 색시감이 잔치를 코앞에 두고 쓰러졌으니 거기다 대구 하잔 소리두 못해, 미루잔 소리두 못해…》

그때 그만 두만이 아니할 소리를 하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봄에 했을걸.…》

당장에 총알같은 반박이 뒤따랐다.

《건 누구야? 잔치를 가을에 하자고 한게 잘못이야? 그놈의 왕가물이 원썩지.…》

그답에는 오래동안 지겨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때 선전실 앞쪽의 문이 열리며 세포비서인 두만의 아버지 부축을 받은 송복순이 나타났다. 모두가 꿈에 허깨비를 본듯 깜짝 놀랐다.

《다들 여기 모여있었구만요. 왜 집에들 가지 않구…》

작업반원들이 우르르 일어서는데 《왜 불도 켜지 않고…》하면서 두만의 아버지가 전등을 켜다.

송복순이 축수났은 전등아래 우중충하게 둘러있는 반원들을 하나하나 일별하였다.

《반장이란게 약골이다나니 이렇게… 걱정을 끼쳐… 미안해요.》

그 몸을 해가지고 웃음을 짓느라 애쓰는 처녀반장의 모습을 보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손맥들을 놓지 말자요. 농사는 하늘을 보며 짓는게 아니라 땅을 보며 짓는대요. 올해는 내가 가물대책을 못해…》

가까스로 말을 짜내던 반장이 입술을 추기느라 혀를 감싸는데 나무껍질처럼 거치른 입술에 쏠리어 피가 날것만 같았다.

《…명성이 아버지, 땅이 얼기 전에 램부터 모판 자리 지주목구멍이 파는 작업을 책임져주세요. 매년 해토가 늦어지기로도 하면 그만큼 공수가 더 들어가요. 2분조에선… 지금 바싹 말랐을 때 복토를 쳐놓자요. 락종때 비라두… 흠뻑 와보라요. 것보다두 봄에 가면 예견치 않았던 일감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작년 가을에 우린 너무 한가했어요. 한해농사 잘 지었다 하고 흥타령 부르던 그때 한가지씩 차곡차곡 농사차비를 했더라면…

선복아주머니, 이자 오면서 보니 퇴비장 매닥질이 너무 묽어요. 겨울엔 언다치구 봄바람엔 터갈라져요. 그럼 바람이 들어갈거구…》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반장이, 잔치를 래일모레로 앞두고있는 처녀가 작업조직을 하고있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잔치가 끼인 올해 가을이 아니라 풍년을 안아와야 할 다음해 가을이 있었던것이다.

《다음해 농산 어떻게 해서든…》

여까지 말해놓고 처녀반장의 기력이 진했는지 잠잠해졌다.

너인들쪽에서 흑— 하고 흐느낌소리가 났다.

남정네들이 앉은 앞쪽, 아낙네들이 서성이는 뒤쪽에서 동시에 울음섞인 부름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반장동무!》

《반장!》

《반장이요, 그런 걱정말구 어서 몸조리나 하

오..》

두만은 그때에야 자기도 올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남자라는게, 젊었다는게 기껏 왕가물이나 원망하고있을 때 처녀반장은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 농사를 생각하고있었고 작업반을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머리를 숙이고 한참이나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앞에서 아버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반장동무!》

송복순이 그의 어깨에 척 늘어져 눈을 뜨지 못하는것이였다.

《내 이럴줄 알고 그만큼 안정하라는데... 순금아 주머니! 차, 이런, 명성이 어머니!》

아낙네들 몇이 반장을 조심히 부축하고 선전실을 나섰다.

모두들 마당으로 따라나오는걸 두만의 아버지가 문가에서 밀었다.

《벽작대지 말구 가만히들 있소. 우리 반장은 피로가 쌓여 저렇게 된거요.》

눈물이 그렇게 반장이 사라지는것을 지켜보던 두만의 아버지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반장네 어머니는 우리 반장이 잔치라면 말도 못 꺼내게 해서 준비도 안했거니와 온 작업반이 상가집기분인데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벌리겠는가면서 사돈집파도 말이 있었으니 다음해로 잔칠 미루자던데... 어찌자오?》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선전실이 떠나갈듯 격한 부르짖음들이 터져나왔다.

《게 무슨 소리요?》

《안돼요!》

《잔칠 왜 미룬단 말이요!》

사람들은 앞에 앉은 세포비서가 반장의 잔치상에 재를 끼얹기라도 한듯 격분해서 욕했다. 한동안 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정되였다.

《세포비서, 내 말 좀 합세.》

작업반의 좌상인 오령감이 세웠던 한쪽무릎을 풀며 자리를 편안히 했다.

《혼인이란게 인륜대사중에서도 제일 큰 대산데 아이들 놀음이라고 가벼이 미루겠나? 우리편 뭐 돼지잡고 떡칠 경황이 돼서 잔칠 한줄 아나. 험한 세월에도 인륜대사는 있었을라니 하물며 지금처럼 좋은 세월에 까짓 한해 농사가 안됐다고 잔칠 미루겠나. 것두 다름아닌 반장의 대사를...》

《오령감이 그 말 참 잘했소. 이건 그저 송복순이란 체네의 잔치가 아니요. 작업반대사란 말이요. 작업반이란게 있으면서 반장이 시집간다는데 그게 잔치 하나 못 차려주겠는가?》

아버지가 흥분한것 같았다. 기침을 킁킁 킁킁

더니 대사라는건 앞에 두었을 때는 천만가지 잔걱정으로 아뜩하다가도 막상 닥치면 이렇게저렇게 순조로이 퍼나가는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형제많은 집안이 대사때 한몫 본다고들 하지 않는가, 작업반에 형제같은 반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한참이나 열변을 토로하였다.

반원들이 주먹을 부르짖었다.

《반장 잔칠 미뤘다면 댄 작업반에서 우릴 뭘루 보겠소?》

《잘 차리자요, 풍년가을 잔치보담두...》

《잔치집 꾸리는건 우리 사로청원들이 맡겠어요.》

우울하던 분위기가 삼시에 가서지고 모두들 기운들이 솟아 한가지씩 떠맡느라 싱갱이가 벌어졌다. 누구네는 두부를 앗고 누구네는 지짐을 부치고 그보다 먼저 배일은 잔칠 예정대로 보란듯이 크게 한다는 기별을 가지고 좌상인 오령감이 룡수포마울에 손수 걸음을 해야 하고...

그때 보니 선전실 뒤편쪽이 훨씬 발언권이 높았다. 막상 꼭지를 댔 남정들속에서 말문이 막힐 때마다 뒤편에서 명쾌한 방안을 내놓으며 하나씩, 둘씩 앞을 비집고 나서더니 어느결에 녀인들끼리 안건을 제기하고 저들끼리 결론을 해치웠다. 남자들은 웅원석에 밀린줄도 모르고 나름대로 열을 올렸다. 콩나물을 자진해맡은 금선이 어머니는 날자가 빠듯한데 꽤 할수 있겠냐는 걱정들에 《탐놈으시라요. 내 방안에 박막집을 짓고 시를 앉혀서라도 잔치에 콩나물은 쓰고남도록 하겠으니...》하고 방바닥을 두드리며 장담해나섰다.

《난 뭘하라우?》

《왜 우리 집만 쏙 빼놓으면서 그래요?》

저마끔 승벽을 부리는 바람에 큰상에 올려놓을 통답문제에 이르러서는 서로 자기네것을 주장하다가 답싸움을 붙여 결정하자는 소리까지 나왔다. 모두가 큰상을 앞에 놓은것처럼 기분들이 한껏 뽐을 때 오가는 소리들을 진중해 듣고있던 오령감이 또 한마디 던지였다.

《아무리 남자가 들어온다지만 그래도 녀자잔치네. 세간살이는 녀자네쪽에서 장만하는게 조상대대로의 풍습인데... 반장네 애당초 잡도리를 안했다니 세간살이같은걸 준비했을리 만무하고...》

그 소리에 다시 조용해졌다. 한참만에 오령감이 침묵을 깨뜨렸다.

《새살림을 펼치자면 다른건 몰라도 첫날이부자리야 있어야지. 건 새색시가 준비하는게거던.》

《그럼 것두 합시다레. 뭘 당장 읊에 사람을 띄울가요?》

이때 두만의 아버지가 나섰다.

《내 생각에는 말이요… 판데 사람을 파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 집에 양단이불등은 한감 있으니 어떻게 소কে만 좀 장만하면 되겠는데 누구네 집에 좀 없소?》

서로 얼굴들만 마주보았다. 큰산이라도 떠돌길 것처럼 욱옥대던 아낙네들도 이불솜소리에 쑥 잤아들었다. 한참씩 생각을 굴리던 사람들이 그것만은 아무래도 사와야지 방도가 없다고 머리를 흔들 때였다.

《왜 소که가 없다고 그래요?》

역시 바쁜 모퉁이에 명안을 내놓는데는 녀자들이 훨씬 나왔다. 금선이 어머니가 또 나선것이다.

《아니, 누구네 집치구 소که가 없는 집이 있어요? 덮고자는 이불소که는 소که 아니나요?》

여직껏 새솜만 머리속에 그려보며 매일 덮고자는 이불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있던 사람들은 그 제서야 무릎들을 쳤다.

《그렇지. 그걸 조금씩 모으면 되겠구만.》

《왜 미처 그 생각을? 조금씩이 뭐요? 우리 집건 한절반 쑥 갈라내두 되겠수다.》

《나두 이불 덮구 잔 날은 그러잖아두 가슴이 빠근하했는데…》

《애개개, 너편네 등시려하는줄 모르구 맨날 끌어가더니…》

《우리건 시집을 때 해가지고와서 몇번 안 써본 거니 새것이나 같어요.》

토론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러다가 이불마다 목화솜, 비날론솜, 막솜 각각이겠으니 목화솜으로 통일짓자고 공론이 되었다.

《오늘 돌아가는 길루 당장 채물에 담갔다 뽕부터 말리잔 말야. 요즘 거풍에 하루이틀이면 마를테니까. 그담 다 모아서 제격 틀어다가 새 이불을 꾸며야지.》

첫날이불문제까지 훌륭하게 아귀를 지은 반원들이 대단한 일을 해제긴것처럼 만족해서 선전실을 나섰을 때는 높이 들린 마가을 하늘에서 포글포글 여론 별들이 자글자글 뚫고있었다.

성수가 나서 작업반마당을 벗어나던 두만은 뒤따라오던 아낙네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아쉬워 말라구. 삼촌이 장가갈 땐 우리가 이불등 해줘!》하는 소리에 그 말귀를 해득하느라 한참이나 서있었다.

잔치를 하루 앞둔 날 두만네 집에서 첫날이불을 꾸미었다. 온 동네녀인들이 한번씩은 다 머리를 기웃한것 같았다. 팔순이 넘은 성만네 할머니까지 바늘귀를 꿰줄 증손녀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이 집에서 회한한 이부자릴 꾸민다메? 그런 일이 생겼으면 나부럼 찾아야지. 나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이부자릴 꾸며줘야 오래오래 잘살아. 잔치에 둘러리만 골라세우는줄 아나?》

두만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었다.

《누가 모르면 세상복을 혼자 누린줄 알겠수다. 해방전에 자식 여덟을 낳아키우느라 고생은 작게 했고 전쟁때 폭격속에 손자, 손녀들 한구들 안구치느라 언제한번 맘 편한 날 있었다구… 반토굴에서 살던 그때 성만이가 자꾸 포대기에 오줌 심다구 우리 집에 바가질 들려 소금 얻으려 보냈겠지요?》

그런데 좋은 세상 만나 요즘엔 그 손주며느리한테서 시할머니 공대 받으며 호사한다고 합디다만.》

《마감에 차례진 그제 복이지. 근데 가만 보면 자식복두 아니구 이게 무슨 복일까? 호호호… 아이구, 무슨 소که가 이리도 높이 쌓였노? 이걸 보니 새색시가 다른 복은 몰라도 인복은 있는 사람이군. 자, 얼른 바늘귀를 꿰다구.》

가을해별이 쏟아지는 방안을 짝 채우며 하얀 팽목천이 네귀를 활짝 펼치자 눈이 다 새물거렸다. 거기에 깔렸는지 열려진 창문으로 막칠 잠자리 한마리가 날아들어와 빨간 풍지를 달씩거리며 앓을듯 말듯 포르릉거렸다.

《손맛이 좋군, 꼭 햇솜같은게.…》

솜을 한웅큼 줍안에 쥐고 자꾸만 비벼보는 성만의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글썽했다.

《옛날엔 이놈의 이부자리가 시집가는 새각시들을 꽤두 올리더니… 내 시집가던 날 이부자린커녕 석세치마 기운 자리를 가리우느라 애쓰던 생각을 하문…》

집집에서 한아름씩 모아 틀어온 솜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두고 덧두어도 어지간히 남았다. 그런데도 또 솜을 한아름 안은 아낙네가 들어섰다.

《자, 보라요. 그러잖아두 남아서 돌려주자는 참인걸. 범이넌 그냥 가져가라구.》

암만 등떠밀어도 오지부둥이었다.

《나두 알아요, 반장 속태운걸 생각하문 우리걸 가져올 체면이 없다는걸.… 그래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져왔어요, 이불귀에라두 좀 넣어달라구.…》

마지막엔 두만의 아버지까지 끼여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난사라구야. 거 받아놓수다. 그리구 켄복판에 꼭 그 소که를 넣으라니까. 범이네 소که가 들어간줄 알면 우리 반장의 가슴이 훈훈해날게요.… 허허허!》

솜이 또 덧쌓이자 녀인들은 토론끝에 아기포단을

만들자고 했다.

《옛날부터 시집가는 폐장에 그런건 방정맞는짓이라고 안해주는 법인데...》

아까부터 이불속에 붉은 팔 열두알을 꼭 두어야 한다고 고집썸던 성만네 할머니였다. 허허 웃고만 있던 두만의 아버지가 그 소리에는 낯색을 찡그렸다.

《젠장, 방정맞긴 할머니 그 소리가 방정맞수다. 정 그럼 만들어서 주진 말고 우리 집에 간수하고있으면 되겠소? 그랬다가 반장이 아일 낱자마자 제격 주면 건 일없겠지?》

《하긴 세상에 참 보는 이불에 고망년적의 범은 무슨... 소매가 긴김에 춤춘다나. 남은결루 포대기도 하나 꾸밈세.》

그렇게 되어 남색비단으로 겹을 씌운 보기도도 푸근하고 두툼한 새 이부자리 한채와 양증스런 애기포단까지 꾸며졌다.

그날 저녁 목화솜이불을 안고 작업반원들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송복순은 거기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온 여름 왕가물에 강말랐던 몸에 눈물주머닌 따로 있었는지 사람들이 떼냈을 때 보니 그 자리가 흠뻑 젖어있었다.

4

추어탕을 끓이겠다며 옷자락을 붙잡는 복삼이네 랑주를 그에 뿌리치고 발길이 닿는대로 걸음을 옮기던 두만령감은 한참만에 사위를 둘러보고서야 자기가 집쪽으로가 아니라 송복순이 살고있는 소재지 마을로 가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점심이 가까운데다 휴식일이어서인지 인적없는 들길은 호젓하기 그지없었지만 두만령감의 머리속에선 아카시아철의 뒤산처럼 웅웅 벌 우는 소리가 요란했다. 송복순네가 잔치를 미룬것은 암만해두 사실인것 같은데 그 미룬 사연이란것이 그의 가슴을 후두두 뛰게 했다.

(제 어미가 시집갈 때 해온 그런 목화솜이불이 없인 시집을 안 가겠단다? 옛날처럼 집집에서 이불솜을 뜯어달란 소린 아닐게구 결국 금희로서는 자기 잔치때 분조원들의 성의가 의심된다는것인데...)

두만령감은 몇십년전의 이부자리소리가 느닷없이 등장한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우선 송반장네가 대사를 퍼면서 부조를 바랐다는 그자체가 말이 안되게 우스운 소리고 다음으로 자기가 알건대 금희에 대한 분조원들의 인망은 제 어머니 송복순을 무색케 한다. 아무리 봐도 어느 누가 자기 분조장

이 시집을 가는데 몸을 사릴것 같지 않았다. 혹 한둘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까짓게 잔치를 미룰 정도로 심각한것이겠는가. 남남이 모여 하나의 일을 하는 집단에는 심사가 빼놓여진 사람도 간혹 섞일 수 있다. 한집안에서도 어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아무렴 각성내기의 집단에서 백이면 백이 다 피꼬리소리만 낼텐가. 가을빼꾸기소리도 있고 까치배때기같은 흰소리도 있는게지. 허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구 말이 아니면 듣지 말랬다구 그게 무슨 대수인가.

(대사가 실지루 드렸다면 그건 분명 송반장의 결심일텐데...)

목화솜이불소리를 참 들었을 때부터 두만은 무엇인가 특감에 미쳐오는것이 있었다. 딱히는 단정할수 없으나 잔치가 미뤄진 내막에는 과거의 사연이 얹혀있으며 그 사연의 중심에 목화솜이불이 놓여있다는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굴리며 송복순의 집앞에 이르러 주인을 부르려는데 마침 부엌문이 열리면서 머리우에 무엇인가 한아름 인 송복순이 나왔다.

《창숙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데 송반장은 어딜 가려던 참이우?》

《금희가 점심을 내다달라구 해서 나서던 길이웨다.》

《오늘도 집에 붙어있지 않는게로군.》

《붙어있는게 다 뭐요. 이젠 쉬는 날이면 더 바쁘게 돌아친다니까. 늙은 에미까지 여기로 와달라, 저기로 가달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송복순은 조금도 싫은 기색이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즐겨 나선 표정이었다.

《근데 금희 점심치곤 임이 꽤 크군.》

《오늘은 구먹채풀 막바지루 와달라나요. 거기 프락포르두 한대 와있구 기철이랑 남정들두 뵈이된다구....》

《그럼 최금선이 담당포전에 간게로군.》

복순이 놀란 눈으로 두만을 바라보았다.

《집에 들어앉아서두 어떻게 그리 잘 아시우?》

둘은 가지런히 프락을 나눴다.

《게선 뭘한다우? 휴식일에...》

《농사를 하면서 보니 큰 바위돌들이 많이 배긴게 그제 여간 애를 먹이지 않더래요. 언제부터 한다한다하면서 끝내 못했다나요. 이젠 포전담당책임제로 넘어갔으니 금선이 네 혼자 알아 해라 하고 누가 관심을 안할것 같다면서...》

천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두만령감은 자연스럽게 화제가 돌아가는것을 은근히 기뻐했다.

《송반장이 딸을 정말 잘 두었수다. 생각하는품

이 얼마나 어른스럽소. 그러니 분조원들이 그렇게 파를수밖에... 오늘만두 듣자니...》

《아직 멀었수다.》

송복순은 금희의 칭찬이 나오자 얼른 말허리를 분질렀다.

《밤낮 분주하게 뛰어다니긴 하는데 아인 놓치구 태를 기른다는게 그 애 일을 두고 하는 소리지요. 어제두 휴식일엔 저네 분조 누구넌지 수박종자놓이를 봐주러 간다구 하다가 맘을 돌린걸요.》

두만은 멧적기 그지없었다. 그는 송복순이 금희의 휴식일일정을 변경시켜 금희가 오늘 복삼이네 집으로가 아니라 구먹재골안에 올라갔으며 그대신 자기가 수박종자놓이에 기웃거리게 되었다는것을 알았다. 복순반장의 썬대로 하면 금선네 포전일은 《아이를 기르는 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복삼이네 수박종자놓이는 분조장으로서 뒤에 놓아도 될 일이라는것이다. 우습게도 금희대신 《태를 기르는 일》에 관여하고 오는 두만으로서는 복삼이의 입을 빌어 쏟아놓으려던 금희의 칭찬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번 한 이야기가 동강나고 두만이 코소리를 쿵쿵거리며 복순반장의 입에서 무슨 말인가 더 나올가 하여 귀를 기울이는데 한동안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다.

구먹재골까지 가자면 한참 걸린다. 그들이 걸어가고있는 동쪽이 끝나는 곳에 수십년전 자기네가 개간한 논이 있다. 그때는 그 논 열두정부가 산기슭다락밭과 경계를 이루고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인 토지정리때 다닥다닥 불성없이 붙어있던 논들을 구역포전으로 만든것은 물론 그우의 다락밭들도 활활 밀어 바둑판같은 멧쟁이포전으로 개간했다. 산아래까지 논거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그 논이 끝나고 삼태기처럼 생긴 골안을 따라 펼쳐진 밭중에서도 제일 막바지에 있는것이 금희가 송복순을 불러냈다는 최금선네 담당포전이다.

동쪽에서 떨어져 논두렁길에 접어들 때가 되었는데도 두만이 아무말없이 그냥 따라서자 송복순이 걸음을 멈추었다.

《게까지 따라설 잡도리우? 가다오다 들린것 같진 않고 무슨 일이 있어 온가분데...》

멧어선 송복순이 숨을 할씩거리자 두만은 얼른 머리의 입을 받아내리웠다. 송복순이 파리를 틀어 없었던 목수건으로 활활 부채질을 해댔다.

《늪긴 늪었지요, 고만한걸 이고도 이젠 숨이 가쁘니...》

두만은 보푸레미를 안고 슬금슬금 두렁길로 내려서면서 참지 못하고 속생각을 비치였다.

《거 잔치 말이우, 오늘 별난 소리를 들었는데

뜬소문이겠지 하고 홀리구말았수다.》

송복순의 주름간 얼굴에 언뜻 그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창숙이 아버지도 소릴 들은거군요. 그 일루 리당비서가 다 걸음을 했습디다. 잔칠 미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구... 리당비서한테는 말했는데 실은 내가 미루게 한거나 같수다.》

역시 짐작이 맞았구나 하면서도 두만은 송복순의 심사를 계속 파헤쳐볼 생각으로 부러 모르쇠를 했다.

《막내딸을 놓아주기가 정 서운했던 모양이웨다.》

그 말에 송복순은 잠자코 섰더니 한참만에 목수건을 접어 논두렁우에 내려놓았다.

《게 좀 앉으시우. 그러지 않아두 내 집안 일이긴 하지만 암만해두 혼자 안고있을 문제가 아닌것 같아 창숙이 아버지나 늙은이들한테 좀 물어보자됐수다.》

두만은 자리를 사양하다가 종시 목수건우에 앉고말았다.

《창숙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이우. 나한테 종종 이런 소릴 하군 했지요. 제 자식이 어떤가 하는건 집단속에 세워봐야 알고 사람이 어떤가 하는건 어려움을 겪어봐야 안다구...》

잔치를 미룬 사연을 펼치면서 서두에 자기 아버지가 꺼묻어들자 두만은 자연 심잡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한달이 채 안됐는데 농장이 장교천으로 하천정리공사를 나갔던 일이 생각나시우?》

《알지요. 한 사날 걸렸던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웨다. 그런데 글썽 우리 금희네는 다음날로 돌아오질 않았소. 떠날 땐 식량이니, 땀나무니 요란스레 준비하길래 며칠은 걸리겠거니 했는데 다음날 점심때가 좀 지나서 작업반마당에 차소리가 나고 금희네 분조사람들이 왈작하며 내립디다. 어찌된 영문인가 물으니 제일 선참으로 파제를 다 끝내구 왔다는게요. 하면서 눈썰미 빠른 똑똑한 분조장을 두어 일은 일대로 쉽게 하면서도 평가를 받게 됐다고 분조원들이 떠들썩하는데...》

《금희가 손탁이 여무지구 그 분조 사람들이 위낙 영악하니까 먼저 끝내게로군.》

《글썽 것때문이라면 내 맘이 그렇게도 편찮았겠소. 금희네 분조원들을 통해 사연을 알고보니 허참...》

금희가 현지에 도착하여 구간을 돌아보니 자기네는 장마에 패운 구간을 메꾸고 거기에 장석을 입혀야 했고 그옆의 다른 분조들은 휘여든 물길을 곧추

퍼느라 토량을 처리해야 했다질 않소. 금희가 피바른 생각으로 옳다, 가만 있느라면 옆의 사람들은 토량을 밀어낼수밖에 없으니 자기네 그걸 기다렸다 그냥 메꾸면 되겠구나 하구 천막을 전개합네 하면서 분조원들을 한껏동안이나 쉬게 하고 오후 한것은 남먼저 주변을 돌며 장석을 장만하게 했다는거요. 다음날 공사장에 나가보니 그 생각이 꼭 맞아 떨어졌지 뭐요.》

그새 다른 분조들이 밀어낸 토량이 자기네 구간 앞에 산더미같이 쌓인것을 보고 금희네 분조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금희네 분조는 일을 수월하게 하면서도 맨 먼저 끝낼수 있었던것이다.

《그랬으면...》

송복순의 말은 어느새 격해졌다.

《다른 분조 사람들의 덕을 입었으니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할게 아니요. 글썄 무릎까지 빠지는 속에서 감탕을 퍼올리는 사람들을 그냥 두구 돌아선단 말이요? 그제 1등분조의 행실이요?》

내 너무 어이가 없어 집에서 금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있는데 오후내껏 어디에 사라졌겠는지 보이지 않던 금희가 어두워져서야 들어옵디다. 밥을 먹자마자 또 장한듯이 영농서적을 펼쳐들고... 그리곤 다음날은 온 농장이 공사장에 나가고 없을 때 읍에 나가 진거름을 날라오려고 기계화작업반장과 트랙토르를 석대나 약속해놓았다고 좋아하는데...

그때 내가 물었지요, 너네 분조 사람들도 돌아가자니까 선선히 말을 듣던가구... 글썄 그 앤 아직 철딱서니없이 그랬다치구 분조에 나이먹고 썸든 사람도 있었겠는데 어떻게 다른 분조, 다른 작업반 사람들덕에 일을 수월히 하고도 그들에게 장석이라도 장만해주고 떠나자는 말조차 안 나왔는지 암만 해두 리해가 가질 않는단 말이우다. 그런데 금희의 대답이 걸작이지요.

《그럼요, 남들은 아직 절반도 못 끝냈는데 우린 벌써 돌아가게 됐으니 개선장군들처럼 으쓱들 했겠는걸요. 모두 우릴 얼마나 부러워했게요.》

잘한다잘한다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보슈. 글썄 주산쟁이처럼 타산만 여물었수다.》

《수자가 밝은거야 뭐 나쁜게요? 허허...》

《논 있고난 담에 물이라질 않았수. 창숙이 아버지도 생각날거웨다. 창숙이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적 우리가 검정산에 식수동원 갔다와 술한 작업반원들앞에서 내가 욕을 먹던걸...》

두만은 미간을 찌프렸다. 그것 역시 아득히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로 금희는 아직 세상에 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두만은 송반장이 아버지에게서 욕을 먹는것을 처음 보았다.

식수동원이 제기되었을 때 세포비서였던 두만의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고생하는 해수병이 심해져 작업반에 남고 젊은 남정들을 위주로 반장이 책임지고 갔었다. 1반, 2반 하는 순서로 식수면적이 배당됐는데 송복순의 작업반은 우연히도 제일 좋은 자리를 받았다. 잔돌 하나 없는 토질에 물거리도 제일 가까왔던것이다. 거기에 나무모를 싣고 군양묘장에서 나온 사람이 복순의 삼촌이었다. 그래서 나무모도 제일 좋은걸루 남먼저 받을수 있었다. 그들은 어둑기 전에 나무를 다 싣고 작업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작업반에 도착했을 때 전말사연을 들은 두만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노할줄은...

《그때 발길이 돌아서던가. 결의 사람들은 암반이 나타나서 함마질을 한다, 바위를 뽑아내느라 바줄을 걸고 개미역사를 한다는데 제 할일을 끝냈다구 먼저 돌아선단 말이요? 남들과 같은 악조건에서 일을 먼저 끝냈다 해두 발길이 돌아서질 않겠는데 농사꾼으로서 어떻게 그런 낮간지런짓을... 그렇게 네일내일에 금을 딱딱 긋고 살것 같으면 지경도 갈라서 개인농을 할게지 왜 협동농장원이 되었소?》

킬렁킬렁 가슴을 부여잡고 무작정 트랙토르에 오르는 세포비서의 발목을 부여잡고 송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비판했다. 작업반은 그 자리에서 30리길을 달려 검정산으로 되돌아갔다.

자기들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이웃작업반 사람들의 눈물이 글썽해지던 모습들이며 밤중으로 끝내지며 도움받는 사람, 도움주는 사람 다같이 옥옥하던 식수현장의 분위기며 그때 두만은 남을 돕는다는게 이렇게 신나는것이거나 하는 새삼스런 생각을 가지였었다.

두만이 잠자코 그 일을 더듬고있는데 복순은 말을 이었다.

《내가 금희에게 듣기 좋게 우리편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덕을 입지 않았어두 뒤떨어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구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모자라도 나눠쓰구... 이렇게 말을 떼니까 그 애가 글썄 <어머니, 그 사람들도 제 할일을 한거지 우릴 돕느라 한건 아니잖나요. 또 이젠 어머니네 때와 달라요. 포전두 담당책임제를 하잖나요. 자기 책임을 다하면 되는거지...> 하는게 아니겠수.

난 남의 자식을 보는것 같았수다. 분조올타리안에 있을 땐 그렇게 대견해보이기만 하던 애가 큰 집단에 섞어놓으니 그 모습을 톱톡히 드러낸거지요. 그 애 소리가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던지... 그 소리가 남은 죽을 먹어두 제탓이니 상관없이 난 떡을

쳐먹겠다는 소리가 아니구 뭐요?

그러구보니 금희네 분조원들속에 그런 기운이 농후해진게 바로 우리 금희타이였단 말이웨다. 글썽잔치날이 다가오니까 분조원들이 나한테 찾아와서는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무엇이 미진됐는가 겨끔내기로 물어보는데 마지막엔 하나같이 자기소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아달라는거요. 물론 거기에 승벽두 작용하겠구 사람들을 깜짝 놀래워보겠다는 엉뚱한 심정들두 깔려있겠지만 그렇게 깜짝놀라도록 도와주겠단 소리가 난 왜 그리 싫은지 알만해두 조화가 아니요. 곰곰 생각하니 이렇게 풍족한 때도 생각을 합치기 싫어하다가 어려운 때가 오면 어찌될가 하는 걱정때문이던것 같수다.

왜 그렇게들 생각이 좁아졌수? 내가 시집갈 때 장만해준 이부자리가 어느 한두사람의 기발한 생각으로 생겨난게 아니지 않소. 모두의 생각이 한푼으로 모아지구 온 작업반을 한식구루 여겼으니까 그런 발상두 척척 나온게지.

내 그날 목화솜이불소릴 다시 꺼들면서 좀 멧힌 욕을 했수다. 너처럼 놀다간 너희네 분조가 장차 작업반도 농장도 나라도 안중에 없을수 있다, 지금처럼 풍족하구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닥쳐봐라, 너네 분조원들중 누가 남을 위해 피를 바치구 가산을 털어 나라에 바치겠나 하구 오래간만에 다 큰 딸에게 심한 소리를 했는데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그 애가 잔칫 미루겠다고까지 나설줄은…》

송복순이 말을 멈추고 두만을 돌아보았다. 두만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외로 튼채 눈두렁을 내려다보다가 파랗게 돌아나는 새싹우에 씩워진 목은 풀만 잡아뜯었다.

그러면서도 두만의 눈앞에는 아까 수박종자그릇을 뒤로 사리던 복삼이 처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 거렸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영농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했고 관리방식도 부단히 개조되어왔다. 새 품종은 얼마나 많이 생겼고 새 기계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그러나 새 기계나 영농방식의 발전만으로 부명농장이 부자농장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다. 땅도 합치고 마음도 합쳐 서로 위해주는 그 후더운 인정과 풍속으로 부명농장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불리우는것이다. 그 미풍량속이 무시된채 내 담당포전의 내 수확고에만 집념한다면 생산수확고는 혹시 올라갈수 있겠지만 자연 인정은 각박해질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산다면 그거야 부자놈들이 저마끔 높이 세운 때문에 빗장을 지르고사는 부자촌

과 다를바 없지 않는가. 거기에 어떻게 부자농장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는가. 그제 안타까와 송복순은 사랑하는 막내딸의 결혼식을 뒤로 물리는 결단까지 내린것이다.

두만은 송복순의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고 목덜미가 뜨뜻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는 왜서 아까 복삼이 처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는가. 그리고도 농사경험 많은 년장자라 존대해주면 흠족해했지. 태를 붙잡구있는줄 모르구…

두만은 송복순의 말이 자기를 겨냥한것 같아 알아있기가 괴로웠다. 그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떠나봅시다. 지금쯤 금희가 이쪽을 목 빠지게 바라보고있을텐데…》

《끝내 제까지 가실 잡도리요?》

《기왕지사…》

두만은 다시 파리를 틀어엎고 허리를 낮추는 송복순을 만류하며 보구레미를 쥐고 앞장섰다.

《실은 내 그 소리를 듣고 제발 뜯소문이였으면 해서 왔했는데 이야기를 듣고보니 허허 참, 송반장두 송반장이지만 금희 그 애두 마음이 독하우다. 어떻게 잔칫 미루자고까지…》

《그 애 성미를 알지 않수. 한번 맘먹으면 기어이 하고야마는… 이 예미의 눈으로 분조원들을 보면서 한해만이라두 농사를 짓고 가겠더군요.

제 딸이 돼서가 아니라 나두 금희가 기특할 때가 없지 않지요. 농사물계에서 어떤 편 나보다 궁냥이 썩 앞설 때도 있다우. 그런데 그 애두 그렇구 새로 자라는 애들이 무얼 모르는가. 제 맘먹은것이 어떻게 돼서 척척 작정한대루 되여가는지, 그제 제 잘 나서가 아니라 나라덕이라는걸 모르는거우다.》

그들이 두렁길을 벗어나 이제에는 비탈길에 접어들 때였다. 송복순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창숙이 아버지, 저기 보이는 물길 말이우다. 저길 볼 때마다 뭐 생각되는게 없수?》

《?》

《난 계속 죄스런 생각이 들지 않소.》

《건 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우?》

《고난의 행군시기 좁은 물길 하나를 가지고 물을 받느라 4반사람들하구 내내 눈을 부라리면서 농사를 해오지 않았수.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게…》

《어쨌 송반장은 욕먹던 일, 씹하던 일, 골라가면서 그런 생각들만… 좋은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다구…》

유쾌하지 못한 추억에 두만도 부끄러워 한손을

해해 저었다.

몇십년전 송복순네가 논풀이를 한 뒤 그들을 따라 이웃작업반들에서도 겨끔내기로 논을 풀기 시작했다. 복순작업반과 토지를 이웃하고있는 4반에서도 다락밭개조에 달라붙었다. 워낙 비탈이 심해서 품을 많이 먹어야 했는데 작업반능력으로 힘에 부쳐 종시 물길을 만들지 못하고 농번기를 맞이했다. 4반은 다음해에 물길을 따로 내든가 이미 있는것을 확장하든가 하기로 하고 복순네 물길을 한해만 공동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물도 전기도 풍족할 때라 그 물길 하나만으로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아 한해, 두해 세월이 그냥 지나갔다. 그사이 4반은 반장도 여러차례 바뀌웠고 그 물길은 의례 두 작업반이 같이 사용하는것으로 인식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가 닥쳐왔다. 원래 열두정보를 목적으로 좁게 짜놓은 물길이었어서 특히 논물관리때가 오면 물량이 팔려 두 작업반이 다같이 찢찢했다. 공교롭게 물은 4반논을 지나서야 복순작업반포전에 당도하는지라 오히려 주인들의 물고생이 더했다. 그래 출창 4반쪽에 대고 주먹질을 하군 했는데 어느해 봄날 씨뿌리기때는 두만령감이 그 물길우에 장승처럼 서서 4반사람들은 얼씬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며칠동안 버틴적도 있었다. 그 물길의 사연을 모르는 4반의 젊은 사람들이 삼을 하자고 접어들었다.

《너희들이 이 물길을 쥔 때 흙 한삽이라도 파보았더냐! 고망년적 일이긴 하지만 그때 너네 반장을 하던 삼칠령감이 제발제발 하며 한해만 같이 쓰자고 해서 터를 준것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주인보다 나그네들이 더 먼저 물을 먹겠다고? 얼씬도 말아!》

그런걸 토지정리때 물길을 큼직하게 확장해주어 두 작업반이 얼굴 붉히던 일은 영원히 옛일로 되고 말았던것이다.

《토지정리가 시작되던 그해 전문학교로 떠나갔던 금희가 졸업하고 글씨 4반 분조장으로 배치되질 않았소. 내가 아직 반장을 하고있을 떼데 나라에서 토지정리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쩔번 했수? 1등분조는 교사하고 이 에미하고 밤낮 물싸움이나 할번 했지요.

지금처럼 논갈이걱정, 물걱정, 종자걱정, 아무런 걱정없이 맘먹은대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준 그 은덕을 잊을가봐 내 금희에게 모진 마음을 먹게 한거우다.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두 휴식일에 분조원들을 휘둥한게 아니우. 어제 밤새 분조원들의 집집을 돌고와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요.> 하더군요.》

두만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고향산천을 다시 둘러보았다.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르고 하늘중천에서는 뿔종다리 한마리가 높이 떠서 《뽕뽕, 뽕뽕, 뽕 쪼르르-》 하고 청고운 소리를 내고있었다. 아득히 펼쳐진 구역포전들과 시원하게 뻗어나간 물길들, 산비탈을 따라가며 줄맞춰 늘어선 고래등같은 기와집들, 집집의 프락따다 한창 봄물이 오르는 파일나무들, 그밑에서 씨글거리는 집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들리는듯싶다.

이 대지는 정녕 무르익는 오희만으로 풍요하던가. 땅의 주인들이 서로 돕고 위해주며 창조해온 갖가지 사연들이 노래가 되고 전설이 되어 깃들었기에 그 열매는 더욱 아름답고 호합진것 아니던가. 땅의 주인들은 바뀌어도 그들이 창조한 노래와 전설은 대를 물려 길이 전해지려니 이제 금희네 세대도 자식들에게 또 하나의 옛말을 들려주리라.

《...그래서 할머니는 농사가 잘 안된 그해 목화솜이불을 가지고 시집을 갔단다. 그런데 그 딸은 농사를 1등으로 짓고도 시집을 미루지 않으면 안되었단다.》

《그건 왜요? 목화솜이불이 없인 시집을 못 가나요?》

《아니, 그 딸이 자기는 시집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했던거지.》

《시집장가가는데도 무슨 자격이 있나요 뭐? 우습네, 1등으로 농사 짓고도 그까짓 목화솜이불이 없어 시집을 못 갔다는게...》

《그게 이부자리에 대한 얘기고 시집장가가는 얘긴줄 아니? 그건 말이다, 토지개혁때부터 이 땅우에 대대로 깃들어온 전통에 대한 이야기란다. 농사군에게는 죽어두 배구 죽어야 할 종자가 있고 이 땅두 물이나 비료보다도 더 절실히 바라는게 있거던.》

그 애들도 커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때 가면이 고장은 얼마만큼 더 아름다와질것이며 또 어떤 의미깊은 만단사연이 대지에 무겁게 깃들것인가.

두만은 숙연한 감정에 싸여 절음을 읊겼다.

저 멀리 구덕재골안에서 통탕거리는 프락프르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얼씬대는 모습이 보였다.

집채같은 바위에 쇠바줄을 걸고 트랙토르가 우당탕탕 연기를 피워올리고 여러문명 잘될 사람들이 옥 옥 힘을 쓴다.

《자, 단번에 다같이 힘을 써야 해요. 하나, 둘, 셋!》

금희의 쉼쉼한 목소리였다.

가까이 가보니 어느새 왔는지 복삼이네 량주도 보이였다.

《흠, 마지막까지 태를 붙들구있던 사람들두 다 나왔군.》

송복순이 《뭐라구요?》하고 돌아보는데 두만령 감은 허허 웃었다.

《혼자소리웨다. 송반장, 이제 보오, 금희가 울 가을에 꼭 목화솜이불을 받게 되는걸. ...》

×

그해 금희네 분조원들은 모래동에 목화를 심었다. 본래 수박을 심자던 복삼이가 작물선정을 포기한것은 물론 모래동에 대한 공동관리를 들고나왔던것이다.

생육기일이 오래고 다른 작물에 비해 비배관리가 까다로와 원작으로밖에 심을수 없는 작물이지만 분조원들은 한결같이 목화를 심자고 주장했다.

공동관리의 책임자로는 분조장인 금희도, 본래 담당자였던 복삼이도 아닌 부대로력 두만령감이 자진하여나섰다. 분조원들은 두만령감을 《고문분조장》이라 불렀다.

그해 목화의 비배관리에는 두만령감의 풍부한 농

사경험만이 아니라 오랜 인생체험까지 기여되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농장이 걸어온 역사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썼다.

《우리 농장에 목화종자가 처음 나온게 언젠줄이나? 조합들이 리단위로 합치던 61년도라네. 〈룡강1〉 호라구 목화종자를 나라에서 보내주었는데 우리 고장에선 그게 목화농사의 발단이지. 그땐 내가 코흘리개땐데 목화타래를 신기해서 만져보다 아버지한테 욕을 먹었지.》

《농촌테제발표 10돛이 되는 해 뒤산에 밤나무림 뿐아니라 3반 굴포도 같이 생겨났지. 나라에서 왕가물이 든다고 미리부터 굴포를 파도록 해서 그해 그 굴포덕을 톡톡히 보았다네. 게다가 너희 아버지 그 공사총화때 국기훈장 2급을 받았구.》

《기철이 이 사람, 밭에 무슨 강녕이종자를 심었다구? 〈청운4〉 호? 또 새 품종이 나왔구만. 내가 자네만큼 젊었을 때 참 희한한 강녕이종자가 나왔다고 농민들이 환성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그게 〈은천5〉 호였지. 〈은천5〉 호가 정당 7톤을 넘겨 급기야 강녕이창자를 늘구는데 기와를 엮던 자네 아버지가 강녕이를 실은 트랙토르가 연방 들이닥치는것을 보면서 지붕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게 눈에 선하군.》

하늘에 목화송이같은 흰구름이 높이 떠 흐르는 풍년가을날 금희는 결혼식을 하였다.

결혼식사진중에는 큰상을 마주한 신랑신부의 뒤에 《10장생》이 수놓아진 병풍이 아니라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두채의 꾸민 이불이 배경으로 놓여진 류다른 사진도 있었다.

가 사

래일에 또 와보세요

문 영 철

원수님 다녀가신 우리 고향 선경마을
래일엔 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질가
들판엔 금나락 산마다는 황금산
누구든 와보세요 래일에 또 와보세요

푸른 숲엔 새들이 보금자리 펴고요
문화농촌 살기 좋아 도시총각 찾아와요

풀판엔 집집승때 양어장엔 물고기떼
누구든 와보세요 래일에 또 와보세요

김정일애국주의 어딜 가나 꽃피나니
사람마다 웃음꽃 넘쳐나는 내 고향
희한한 새 풍경도 한밤 자면 옛말되니
누구든 와보세요 래일에 또 와보세요

한 로당원에 대한 추억

최 인 혁

열살잡이 손자녀석이 벽에 걸린 달력의 날자란에서 《10》자를 짚으면서 물었다.

《할아버진 당창건일에 만세를 불렀나요?》

《아니, 난 다섯살 어린 나이여서 못 불렀단다.》

《야, 그때 나만큼 컸어도 만세를 부르는걸!》

더없이 아쉬워하는 손자앞에서 나는 웃음을 금할수 없었으나 더불어 떠오르는 추억에서 또한 헤어날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요시절의 그날을 더듬어 추억의 심연속에 가라앉았던 앙금을 한줄한줄 꺼내어 집사람들앞에 펼쳐놓게 되었다.

끝없이 주절거리며 고향마을을 끼고 흘러가는 옥상천의 물소리, 깃을 찾아 버들방천에 날아드는 새들의 지저귀, 개울가에 울리는 빨래방치의 유연한 소리와 마을녀인들의 청맑은 웃음소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향에 대한 추억의 복판에는 잊지 못할 모습도 있다.

언제나 그 얼굴을 떠올릴 때면 그리움속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람, 《동산뒤집세포위원장》.

지금도 삭주군 당목리와 좌리에 가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잊지 못해 정답게 《동산뒤집세포위원장》이라 부른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키에 이마에 발고랑같은 주름살이 두줄씩이나 건너간 둥글넓적한 얼굴,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남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도와주던 아바이.

동네어른들에게서 들은 얘긴데 아바이가 입당할 때 있던 일이라고 한다.

해방직후 어느날 옆구리에 책을 낀 두사람이 아바이를 찾아와 하는 말이 청우당이라는 당이 조직되는데 그 명단에 아바이이름을 써넣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아바이는 《내 좀 알아보고 들겠수다.》라고 한마디로 대답해서 그들을 보내고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당목리면소재지에 찾아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느 당의 당원인가요? 나는 아무래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들은 당에 들어야겠수다.》

《아바이도 참, 김일성장군님께서 북조선공산당을 창건하셨으니 공산당원이 틀림없지요.》

아바이는 그길로 청우당에 들라고 하던 사람을 찾아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따르는거야 이 나라 백성의 도리가 아니겠수. 그러니 나도 공산당

에 들겠다고 청원을 하겠수다.》하고 선언하다싶이 하였다.

아바이는 이렇게 입당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세포위원장으로 일하였다.

젊은 남정들은 다 전선으로 떠나가고 둘, 셋이상씩 되는 아이들을 거느린 녀인들과 늙은이들만 마을에 남았다. 그러나 아바이는 그들의 앞장에서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라는 장군님의 호소를 받들어 낮이면 남정들이 없는 집들을 순서대로 돌아가며 밭을 갈아주었고 밤이면 또 밤대로 연장손잡이에 불을 켜들고 밭을 갈거나 거름을 실어내었다.

그때 마을의 한 청년이 승리의 신심을 못 가지다 나니 군대초모되어가던 도중 하늘에서 돌아치는 미국놈썩썩기에 겁을 먹고 집으로 되돌아와 숨어있는것 같다는 소문이 녀인들의 입을 통해 아바이의 귀에 들어왔다.

세포위원장아바이는 그달음으로 깊은 밤 그 집 무우움으로 찾아들어갔다. 아닐세라 성근이라는 청년이 숨어있다가 아바이를 보고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위원장아바이는 그의 옷깃을 틀어잡고 분격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이녀석, 이 불효막심한 놈, 공화국에서 너희네 집에 땅을 안 주던? 또 새 나라덕에 굶도 배웠지? 그런데 저만 살겠다고 도망쳐와?》

성근이란 청년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제발 잘못했노라고, 이제라도 군대에 다시 나가 미제놈들과 싸우겠다고 하였다.

그후 수원육박전투에서 미국놈을 다섯놈이나 찢러놓히고 전사의 영예훈장을 받았다는 성근이의 소식을 들은 세포위원장아바이는 《그러면 그렇겠지, 그 사람도 지주놈의 천대를 받던 사람인데...》라고 소리치며 기뻐하였다.

내가 제대되어왔을 때 그 아바이는 나이가 되여 세포위원장사업을 인계하고 논물관리공으로 일하고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러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마치 친자식이 온것처럼 반가와하며 그동안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더니 불쑥 배치지에 언제쯤 가겠는가고 물었다.

잠시 망설이는 나에게 할아버지는 《지금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정세도 긴장한데 빨리 가서 일도 하고 훈련도 해야지. 내 생각엔 한 이틀 다리쉽이나 하고 인차 떠나는것이 좋을것 같구만.》하

어머니는 젊으시다

김 경 남

천만자식들 10월의 광장에 들어섰다
어머니당에 드릴 로력적선물
땀과 뉘 지성과 충정이 어린 선물
아름아름 다발로 엮어안고 들어섰다

들어섰다
별방 산간이라 어촌 탄광이라
과학기지라 학교 병원이라...
하늘 치솟는 기념비적창조물 안고
세상을 놀래우는 새 발명품 안고
황금벌 황금산 황금해를 안고
천만자식들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받으시라
힘겹고 시련에 찻던 나날에도
탁아유치원 배움의 꽃대문 열어
콩우유 먹여주며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시여
때로 그 사랑 순간이나마 잊어
그대를 애태운 못난 자식도
천백밤 바쳐가며 정 부어 키워준 어머니시여
그대의 천만자식
어느 한 자식도 빠짐없이 마련한 선물들

자식들 안고온 선물로 이 땅은 더욱 기름져
그대의 존엄 세기의 하늘가에 더더욱 빛발치고
영광넘치고 승엄한 그 모든것
그 모든것을 안고 그대를 더 잘 받들어모실

천만자식 림름하고 호기찬 모습에서
그대는 기쁨속에 더 젊어지리

어머니시여 그대는 젊다
그대 천만자식 품안고
이 조선을 지켜 이 조선을 빛내이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70성상
쌓은 업적 하늘에 닿았건만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해 나래치는 그 기상
용솟음치는 젊음으로 백배하나니

세월따라 세상만물 변한다지만
그대만은 그대만은
언제나 젊음과 락관에 넘쳐 고귀한 생을 사신
수령님들의 그 뉘을 안고
열정과 용맹넘친 발걸음 척척
이 조선 이끄시는 원수님의 그 기상 안고
날을 따라 날을 따라 더 젊어지나니

아, 환희로와라 영광넘쳐라
원수님 높이 모신 10월의 하늘가
억만줄기 축포로 펼쳐지는 꽃바다여
이 땅 지축을 흔드는 만세의 합성이어
세련되고 로숙하고 현명한 조선로동당
위대한 이 어머니의 젊음을
10월의 가장 큰 기쁨으로 한껏 노래하라
아, 우리의 어머니는 무궁토록 젊으시다

는것이였다.

한생을 농촌의 혁명가로, 세포위원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집단을 화목하게 만들고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할아버지가 아니고서야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마운 훈시였다.

비운과 굴욕에 찬 수난의 력사속에 갈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 인민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긍지와 존엄의 절정에 세워주고 땅의 주인이라는 행복까지 안겨준 고마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에 보답하려 일생 달리며 살아온 진국의 당원.

끓어번지는 쇠물처럼 뜨겁고 거연한 철탑처럼 긍지높으며 땅우의 모든 기념비들을 묵묵히 떠받들고있는 억년초석처럼 믿음직하게 대중의 밀거름이 되어주고 선봉투사로 언제나 앞채를 메고 달리던 로당원.

이 땅에는 이런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조선로동당원들을 낳은 우리 당, 가장 로숙

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10월.

그렇다, 10월 10일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천만년이 흘러도 잊지 못할 달이며 날이기에 우리의 가슴가슴은 그리도 격정에 넘치고 환희로 넘치는것이 아니랴.

이 10월의 환희는 조선로동당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향도하는 한 세기가 흘러도 영원히 더쳐질 환호성이다.

그 환호성인양 축포가 터져오른다.

그 축포의 꽃보라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한 성원들로 우리 당을 튼튼히 받들어온 유명무명의 수많은 당원들의 충정과 노력, 지성의 땀과 피방울처럼 나에겐 생각된다.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이 땅의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심장들이 엮여올린 다발들이라고 생각된다.

그속에는 저기 산골의 잇을수 없는 한 평범한 당원의 모습도 보여온다.

봄부터 가을까지

편재순

따뜻한 봄날에 땅을 고르는 까닭은 씨앗을 묻으려 함이 아니었을까.

초고전력전기로의 탄생과 함께 자기 사명을 끝낸 옛 제철직장건물자리에 퍼그나 넓은 공지가 생겨났다.

지난봄에 남정들뿐아니라 녀인들까지 오구작작 달라붙어 그 땅을 다루기에 분명 어떤 씨앗을 묻으려 하는줄만 알았었다.

그런데 불과 서너달이 지나 그 공지에는 농작물이 아니라 커다란 용광로 두개가 우뚝우뚝 솟아났다.

나는 풍년로적가리를 방불케 하는 강철구조물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웁아, 정녕 그 봄날에 저 용광로를 일떠세울 강철씨앗을 심었으려다.

그날에 심은 씨앗이 자라 저렇듯 크나큰 열매를 맺어놓은것이리라.

이 용광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완전한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받아들인 용광로라고 한다.

때늦게나마 그 강철씨앗을 심어 자라온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해별에 탄 검실한 얼굴에 두눈만은 10대소년처럼 지혜를 담고 반짝이는 정영교, 그는 이 용광로건설을 책임진 제강소의 부지배인이었다.

나이는 예순살가량 되었을가 하고 제나름으로 짐작해보다가 정작 알고서는 허를 찼다.

그의 나이 올해 예순일곱이라지 않는가!

10여년전만 해도 조국의 서해전역을 지키는 인민군지휘관이었던 그가 오늘은 강철전선을 지켜서 고있다.

강철로적가리를 쌓아올리는 역센 사나이에게만은 감히 다가들지 못해 세월도 예돌아 흘러간듯 그는 나이에 비해 너무도 젊어보였다.

건설장에 때아니게 나타난 이 녀인파도 동갑나이인듯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지배인동지, 봄부터 가을까지 큰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웬걸요, 당창건기념일을 향해 냅다 달렸을뿐입니다.》

극히 직선적이기는 하나 가식이 없는 인민군대식의 말투에 정이 더 가는것을 느꼈다.

《봄부터 가을까지라...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요.》

부지배인의 눈길은 하늘가 멀리 그 어딘가를 더듬고있었다. 푸르른 하늘에 그의 눈에만 보이는 그

무엇이 있는듯...

《50년 봄에 인민군대에 입대한 나의 아버지는 전쟁이 일자 제일선참으로 전선에 달려나갔습니다. 락동강의 불바다를 건너 미국놈들을 남으로 몰아내던 아버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팔공산고지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의 짧은 군사복무기간에 귀한 생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내가 비록 40여년간의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국사수를 위해 불같이 산 아버지처럼 나도 이 건설장에 자신을 바치고싶었습니다.》

부래산골안을 깨치며 흐르는 사박천 맑은 물에 몸을 씻으며 자라고 술꽃가루 날리는 푸른 소나무 아래서 억세어진 무죄팔쪽으로 중기관총을 메고 피의 락동강을 넘어간 부사수, 그가 고향땅에 남기고 간것은 세살난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오늘 여기에 우리 식의 새 용광로를 세웠다.

봄부터 가을까지, 그 짧은 기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위훈을 세웠다.

어제날의 전사는 쓰러져 돌아오지 못했어도 그가 세운 위훈은 우리 세대들을 또 다른 위훈창조로 부르고있다.

하어 봄부터 가을까지 용광로건설 완공!

쇠물증산으로 당을 받들려는 불같은 마음이 당창건기념일에도 잊달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무심히 불러볼수 없는 말이다. 협동벌에서의 이해 봄은 얼마나 힘겹게 흘러갔던가. 례년에 없는 흑심한 가물과의 싸움, 심어놓은 씨앗이 마르면 또 심고 겨우 싹틔던 어린 모가 말라죽으면 또다시 심고.

들판가득히 설레이는 곡식포기들이 손때묻혀 키운 소중한 자식들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 가을이다.

봄계절뿐이었으랴. 건설자들의 의지를 시험하며 무더위가 덮쳐들고 장마로 인한 사나운 물결이 기껏 쌓아올린 창조물들을 위협했다.

그 어럽던 나날에 10월을 향해가는 이 땅의 공민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모든것을 이겨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여 뜨거운 축하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

첫딸의 출생증을 놓고

전 승 일

별들이 웃는 밤
안해가 금방 안고온
첫딸의 새 출생증
펼쳐든 연푸른 갈피속엔
딸의 이름과 나란히
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다

아직도 물씬 먹글냄새 풍길듯
또박또박 새겨진 세 이름
첫딸과 그 보호자라고 적어준
짙막한 이 글발이
왜 이리도 가슴을
불덩이로 달구어주는것이나

나는 다 모른다
얽박한 이 출생증의 참무게를
이 출생증에 새겨진
이름들에 담긴
가늠 못할 그 크나큰 의미를

젊은 아버지
숫저운 이 심장으로야
어이 다 헤아리라
하나 이 출생증속에서는
울려나오고있다
복받은 이 딸의 출생을 지켜
우리 원수님 날바다를 헤쳐가신
열점지역의 그 섬찍한 파도소리가
눈물겨운 사랑의 노래처럼

이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나오고있다
비내리고 눈내리는 진창길 밟으시며
육아원 애육원을 찾고찾으시던

그이의 발자국소리
가슴얼어들던 마식령 아찔한 삭도길
그 높이에도 제일먼저 오르시여
미래를 향해 뿌려주시던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이 딸의 무지개같은 꿈을 지켜
생사운명의 전선길을 폭풍쳐가시는
강철의 심장
구슬같은 눈동자에
고운 별빛만 담아주시려
용암처럼 이글이글 끓이시는
위대한 심장이
백년세월 천년세월 이 딸의 미래를
억세게 안아주고계시나니

나의 심장에 보여오는것
다만 먹으로 쓴 글자만이 아니다
이 출생증에 새겨진 딸의 이름은
아름다운 세월은 영원히 너의것이라고
천만복은 영원히 너를 향해 마중온다고
백두태양이 세상에 새겨준
사랑의 철리갈구나

펼쳐든 출생증 연푸른 갈피속에
나는 삼가 새겨넣고싶다
복받은 첫딸의 이름과 나란히
너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고마운 당의 품
우리의 김정원수님이시라고

뜨거움에 가슴 젖어오는 밤
맹세로 달아오르는
잠들수 없는
오, 행복한 이밤이여!

조국의 자유독립과 평화를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보낸
다고 하시던 그 말씀!

우리의 전승세대들을 시대의 제일 앞자리에 내
세워주시며 온갖 육친의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영원한 생을 누리고있음을
쓰러진 전사가 알게 할수 있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선렬들이 창조한
조국수호정신을 빛내가고있는 자식들세대가 있어
이 땅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가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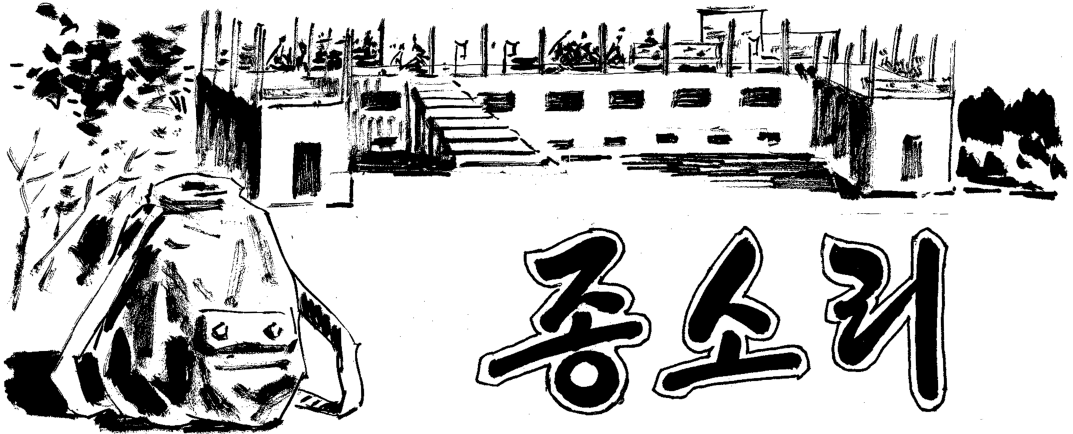
지난 겨울부터 가을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시작은 각이하나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
고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의 완공의 날은 모두 어머
니당창건기념일이였다.

강선의 승리자들이 10월의 축포를 환희에 넘쳐
바라보고있다.

붉은 쇠물노을빛으로 더 붉게 물들여진 우리 당
기폭에 휩싸여, 휩싸여...



공소리

강 철

1

생활과정에 간혹 맞다들게 되는 우연한 일치란 얼마나 오묘한것인가.

오늘 아침이었다.

출근하여 사무실청소를 마치고 여느때처럼 쏘파에 걸터앉아 무심히 신문을 펼쳐들던 나는 그만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이 사람이?!)

펼쳐든 신문의 3면 중간쯤에서 한 낯익은 얼굴이 나를 마주보고있었던것이다.

둥실한 얼굴, 무엇인가 묻는듯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인상적인 그 눈길... 나의 옛 분대장이었던 전영록, 틀림없는 그였다!

사진 밑에 《명예돌격대원 전영록》이라고 이름까지 또렷이 밝혀져있으니 더 의심할것도 없었다.

?!...

(나이 70이 다된 늙은이가, 더구나 영예군인인가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달려나가다니...)

일순 치솟았던 반가움이 한물 지나가자 나의 가슴속에는 무어라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야릇한 자책과 회오가 안개발처럼 자오록히 밀려들었다.

생활은 얼마나 공교로운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으로 나가려다가 주저앉은 날 아침에 나보다 먼저 그곳으로 달려나간 옛 분대장의 소식과 맞다들게 되다니...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엔 거기에 담겨져있는 생활

의 의미가 너무나도 큰것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내가 아침에 방에 들여놓은 지원물자트렁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길다란 자크들이 줄줄이 늘어붙고 손잡이와 바퀴까지 달려있는, 비행장대기실에서나 어울릴듯싶은 큼직한 대형트렁크였다.

(저게 끝내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구나.)

요 며칠새 내 마음속을 감겨돌던 주저와 망설임, 자책과 위안이 그 트렁크에 배가 불룩하도록 한가득 담겨져있었던것이다...

며칠전이었다.

우리 국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장에 나가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지원물자를 보내기로 했다. 겸해서 나가는 차편에 몇명의 인원을 교대시키기로 토의했다.

《거 새로 나가는 명단에 내 이름도 적어넣으라구. 김명락, 큼직하게!》

《아니, 부국장동지야 어떻게... 그러구 여기 일은 어떻게 합니까?》

상태라는 우리 부서의 부원이 반문했다.

《여기야 동무들이 있지 않나, 그러구 세포로 말하면 당이 부르는 최전선전투장이 아닌가. 지휘성원들이 웅당 앞자리에 서야지.

내 우에서만 승인해준다면 이번에 나가서 아예 한 땀달 놀러갔을 작정이네.》

그런데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위원회에서 주로 내부사업부문을 맡은 부국

장이 오래동안 자리를 비우고 나가있는것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섣뚱 승인해주지 않았던것이다.

게다가 상태가 들고온 문건에는 내가 시급히 협의하고 처리해야 할 당면한 일감들이 잔뜩 적혀있었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상태는 뒤를 달았다.

《아, 부국장동지야 이젠 나이두 많은데 어떻게 천막생활을 합니까. 그리구 날마다 집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릴 손자 생각도 해야지요.》

《허 이 사람아, 여기에 손자야 무슨 상관인가.》

나는 일감이 가득 적혀진 문건을 들여다보며 흥심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문건의 글줄들 위로 발췌 웃는 손자의 귀염성스런 모습이 언뜻 스쳐지나가는것만은 어쩔수 없었다.

상태가 방도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모저모루 봐두 세포엔 젊은 제가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국장동지가 수고스러운대로 제 일까지 다 맡아안아주십시오.》

《생각 좀 해보자구.》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튿날도 위원회에서 종시 결론이 안 떨어지고 하여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상태가 나대신 나가는것으로 낙착지어졌다.

잔뜩 큰소리를 쳤던 나는 좀 무안스럽게 됐다.

(할수 없지, 일이 어떻게 다 제 마음먹은대로 되겠나.)

나는 이렇게 속으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그대신 지원물자만이라도 성의껏 잘 싸 보내리라 속다짐했다.

그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가지 문화용품이며 식료품, 피복류들을 한가득 모아들였다.

기왕이면 포장도 내용에 걸맞게 수준있게 하리라 결심하고 집에 전사해두었던 접이식으로 된 커다란 러행용트렁크를 꺼내 먼지를 털었던것이다.

우리 국 돌격대원들이 어디로 오갈 때 척 들고 나서면 남보기에도 위신있고 다루기에도 편리할것이었다.

그런 사연이 깃든 트렁크다.

그런데 그러럼 호기스럽던 트렁크모양이 방금 신문 본 순간부터는 마치 꾸어온 보리자루처럼 한옆에 불품없이 쭈그리고앉은 처량한 꼴로 되어버리고말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지금 신문속에서 나를 보고있는 옛 분대장 전영록, 그를 마주했다는 느낌으로부터

오는 자격지심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신문을 꼬당겨 다시 들여다보았다.

(눈길만은 여전하구나!)

이윽도록 분대장을 마주 쳐다보는 나의 가슴속에서 서서히 물멀기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내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면서도 종종 잊을번했던 사람, 마음속깊이에 진심으로 존경하여마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잊고 지낼 때가 많았던 나의 옛 분대장과 그가 들려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물멀기를 타고 그득하니 밀려들었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 한대를 꺼내 붙여물었다.

후- 가슴속 하많은 생각이 담배연기와 함께 길게 뿜어져나와 방안가득 서려도는듯싶었다.

나는 쏘파에 등을 기대고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눈앞으로 수십여년전의 일이 어제런듯 어려왔다.

너무나도 생생히 보여오는 그 가을날... 해별이 쟁글쟁글 차넘치던 맑고 푸른 하늘...

그속으로 땡땡땡... 땡땡땡... 멀리서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던 종소리...

나를 또다시 자책어린 추억으로 불러주는 그 종소리...

2

...그날 우리는 한껏 들떠있었다.

대대에서 있는 체육경기에서 우리 중대가 1등을 했던것이다.

상으로 받은 꽃목걸이를 두른 돼지를 앞세우고 중대로 돌아오는 길은 활기차고 유쾌했다.

분대장이 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동문 확실히 중대의 보배야. 글 잘 쓰지, 공 잘 차지.》

축구경기에서 내가 세폴이나 넣은것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고개를 넘어오다 아름답리 소나무밑에서 휴식 겸 오락회를 벌려놓았다.

오락회의 채를 잡은것은 분대장 전영록이었다.

자그마한 키에 몸집이 체소하고 늘 조용한 편인 그였지만 오락회때는 달랐다. 학교때 취주악대에서 호른을 불었다는데 그 소리처럼 맑고 은은하면서도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그러다가도 중대모두가 목소리를 합치고 동작을 합쳐야 할 일이 생길 때면 그가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앞에

서 이끌곤 했다. 그닥 큰소리도 치지 않는데 모두가 그를 따르는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다. 마치 그 에겐 사람들을 끄는 그 어떤 마술적인 힘이라도 있는것 같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어서어서 모이게 막을 열겠네 잔디밭은 무대요 해는 조명등...》 하고 그가 북통을 들고 나서서 들썩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우리는 일시에 손뼉을 쳐가며 그에 장단을 맞췄다.

내옆에 앉았던 구대원인 영범상등병(당시)이 내 귀에 대고 속삭거렸다.

《명락이, 저럴 때 보면 우리 분대장동지에게 어머니가 안계신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

《예?》

나는 꿈쩍 놀라며 그를 돌아보았다.

말이 난감에 하는 소리지만 병사시절만큼 어머니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생각하는 때는 아마 없을것이다. 어머니품에서 자라난 자식들이 그 어머니들의 당부를 생각하며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새겨가는것이 바로 병사시절인것이다.

분대장도 평시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곧잘 하곤 했다. 불과 며칠전에도 나는 훈련의 설참에 그와 함께 맑은 시내가에 앉아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그때 나는 분대장에게 내가 수첩갈피에 쓴 시 한편을 보였다. 해저물녘 들메나무 늘어선 내가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저녁연기 피어오르고 자기들을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마을을 향해 오구구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것이였다.

그때 시를 다 읽고난 분대장은 나의 잔등에 한손을 얹으며 혼자소리처럼 뇌었다.

《시가 좋구나.》

《어떻습니까. 꽤 될것 같습니까?》

《되지 않구. 특히 여기 이 구절, 자식들은 달려가리 세상에 오직 하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대답하며 대답하며 하는건 내 마음에 꼭 들어.》

분대장은 생각깊은 눈길로 감빛저녁노을을 담아 싣고 소리없이 흘러가는 내물을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 집도 내가에 있었는데 말이야, 우리 어머니 늘 나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

〈영록아, 바다가 엄마품이라면 저 내물은 자식들이란다. 그래서 늘 저렇게 엄마품을 찾아서 가고 또 가는거란다.〉》

분대장은 천천히 옆에 있는 풀이파리 하나를 뜯어들더니 (그는 풀피리도 휘파람도 기막히게 불곤

했다.) 입가에 가져다댔다. 이어 그의 입에서 풀피리의 청아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전호숙의 나의 노래》선율이였다.

...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나는 또 한번 머리를 기웃거렸다.

(암만해도 믿어지지 않아. 어머니가 안계시다니? 그건 누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릴거야.)

오락회는 한창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였다.

영범상등병에게 등을 떠밀리워 앞에 나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왜서인지 그때 나에게 노래보다도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한 시를 읊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던것이다.

나는 조용히 감정을 다잡고 시를 읊어나가기 시작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내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나를 마주 쳐다보는 분대장의 눈가에 대견한 빛이 질게 어렸다.

바야흐로 시가 절정대목으로 치솟을 때였다.

《가만!》

분대장이 문득 한손을 쳐들며 얼굴에 긴장한 빛을 띄웠다.

《동무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나는 시랑송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술바람이 쇠— 하고 지나가는 사이로 이름모를 산새가 빗쪼 빗쪼 리호 리리호— 하고 경쾌하게 울어대는 소리만이 들려올뿐 나는 아무런 색다른 소리도 가려낼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앗, 저쪽! 군종자창고!》 하는 분대장의 웨침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저 멀리 산릉선너머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한줄기 가느다란 연기와 그곳에서 도간도간 끊어지는듯 마는듯 들려오는 종소리 비슷한것을 가려보고 들을수 있었다.

《동무들, 앞으로!》 하는 분대장의 다기찬 웨침과 함께 중대는 확 풍겨 뒤흔들어나며 일제사격의 총탄들처럼 내닫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수첩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후닥닥 따라 내뛰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때 내 머리속엔 설마 무슨 큰일이야 있을라구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창황중에도 얼핏 보니 상으로 탄 돼지가 꽃목걸

이를 목에다 두른채 놀라서 숲속으로 들고뛰는게
아쉽기 그지없었다.

나는 인차 분대장을 따라잡았다.

분대장은 키도 나보다 한뼘이나 작고 또 축구경
기때면 늘 복을 들고 운동장변두리를 분주히 뛰어
다니는 응원대장이었지만 나는 경기장을 종횡무진
으로 주름잡는 공격수였던것이다. 달리기만은 언제
나 자신있다고 장담하던 나였다.

목에 겨불내가 나도록 달려가보니 멀리서 보던것
과는 달리 사태는 참으로 위급했다.

기와장사이로 검은 연기가 물물 피어오르는데 그속
에선 이따금 시뻘건 불길의 혀를 널름거리고있었다.

《군인동지들, 빨리요, 빨리!》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 재범벅이 된 한 처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두팔을 내젓고있었다.

대충 살펴보니 불을 끄려면 누구든 빨리 지붕으
로 올라가 기와를 제끼고 물을 퍼부어야 할것 같았
다. 그런데 벽돌로 지은 종자창고건물은 보통살림
집보다 썩 높아서 웬간해서는 올리볼수가 없었
다. 사다리도 어데 갖는지 보이지 않았다.

방도가 하나 었보였는데 집뒤채의 앞마당으로부
터 불이 난 지붕으로 건너뛰는 수였다.

군종자창고는 급한 산경사면을 깎아내면서 층층
으로 내려앉힌 네댓동의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
는데 매 뒤건물의 앞마당은 앞건물의 지붕과 거의 수
평으로 되어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마당끝과 앞건물의 지붕처마사이에는
얼핏 보기에다 서너메터는 실히 될 넓은 공간이 가
로놓여있었다.

장대뛰기를 하여 날아넘든가 통나무를 건너질러
다리를 놓아야만 할것 같았다.

《통나무, 통나무를!》

나는 소리치며 옆을 돌아보았다. 허나 그 위급한
순간에 꼭 있어야 할 통나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
았다. 장대는 더더욱 있을리 만무했다.

《이런, 제길...》 나는 안타까와 발을 탕 굴렀다.

바로 그 순간, 《비키라!》하는 웨침과 함께 누
군가가 나를 탁 밀치며 뛰어오던 속도그대로 휙 하
고 총알처럼 지붕으로 날아전너갔다. 뒤이어 와르
르-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

뛰어건는 사람은 우리 분대장이었다. 그리고 무
너져내린것은... 막돌로 올려쌓았던 집뒤의 굴뚝이
였다.

단 한사람만이, 하나밖에 없는 그 굴뚝을 발로
눌러차며 넓은 공간을 뛰어전너 지붕에 오를것을

생각해냈던것이다.

나보다 키도 작고 달리기속도도 그닥 빠르지 못
한 우리 분대장의 어디에서 그런 놀랄만 한 날파람
이 생겨난것인지...

곧 물바게즈와 소랭이들이 편달아 공중으로 날아
갔고 분대장은 그것을 받아 불길이 이는 곳에 대
고 퍼부었다.

불길은 점차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다시한번 옛 분대장의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신문은 여전히 손에 든채로였지만 왜서인지 선뜻
그 내용을 읽게 되지 않았다.

어쩐지 두려웠다. 이제 그 기사를 읽느라면 그
속에서 가차없는 가혹한 질책이, 준엄한 선고와도
같은것이 무자비하게 쏟아져나와 나를 들때릴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으로 하여 폭우를 몰아오는 먼 우
뢰소리를 들을 때처럼 가슴이 후두두 떨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어제오늘 비로소 느끼게 되는 감정이 아
니였다.

돌이켜보면 방금 말한 40여년전의 그날로부터 나
의 심중에는 그 어떤 죄의식비슷한 감정이 저도 모
르게 움트고 자리잡기 시작했던것 같다.

(분대장은 선뜻 건너뛸수 있었는데 나는 왜 뛰어
건느지 못했는가.)

이것은 오늘까지도 나의 뇌리에 검질기게 감겨들
며 빼없이 마음을 괴롭히곤 하는 물음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것은 불을 다 끈 다음에 보
니 그 3메터남짓한 공간이 그닥 넓어보이지 않던
것이였다.

굴뚝만 다시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건너뛸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후
회였다.

그리고 가장 피로운것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 서
너메터의 공간과 돌로 쌓았던 굴뚝이 자꾸만 눈앞
에서 얼른거리는것이였다.

그럴 때면 나는 나름대로의 항변도 해보았다.

그는 구대원이 아니였는가.

그는 당원이 아니였는가.

그는 중대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당시)이 아니
였는가.

그러나 그 모든 론거들은 곧 량심의 부정을 받
군 했다.

물론 그 말들이 영 틀린것은 아니였다. 그래도

량심은, 심장은 그게 아니라고 내 가슴속에서 웨치고있었다.

그렇다면?... 영웅성, 헌신성, 희생성... 그러루한 말로 설명하기는 쉽겠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나로서 다름아닌 자기자신을 그런 평범한 말로 납득시킨다는것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때로 잊은적도 있긴 하지만 수십년 세월 나는 종종 그 물음을 자신앞에 제기하고 그 답을 찾으려 모태져왔던것이다....

3

《그래 그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태가 기다리다못해 침목을 깨뜨렸다.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어느 사이엔가 나는 방에 들어온 상태네들을 앞에 놓고 옛 분대장에 대한 이야기, 나 혼자 심중에 그대로 물어둘수 없었던 한 당원에 대한 추억담을 펼쳐놓고있었던것이다.

《누구 말인가, 내가? 분대장이?》

《두사람 다 말입니다.》

역시 급한 제 성미대로 욕심스레 물음을 던진다. 문서원처녀도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 불안고 나를 말끄러미 지켜보고있었다.

나는 물 한모금으로 목을 추기고 그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기 시작했다....

《심한 화상을 입은 분대장은 곧 가까이에 있던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소.

온 병원이, 군이 펼쳐나서 분대장을 치료했소.

우리도 물론 자주 면회를 갔지.

첫날 병원에 면회를 가니 분대장은 머리와 두손에 온통 붕대를 칭칭 둘러감은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누워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고있더군. 그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를 보자 반색을 하며 일어나려고 움직거렸소.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 한쪽눈을 찡긋하고 웃으며 붕대감은 손을 쳐들어 거수경례동작을 해보이는것이였소.

그렇게 한번의 눈짓, 하나의 동작으로 얼마디 말을 대신할줄 아는것이 그의 특기였소.

나는 달려가 분대장의 두손을 맞잡았소.

그때 우연히 분대장이 보다가 옆에 놓은 사진을 얼핏 띄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단아하게 생긴 한 중년의 녀인이 찍혀있었소.

(어머니인 모양이구나!)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소.

(저토록 험하게 화상을 입고 침대에 누웠으니 어머니 생각인들 왜 나지 않으랴.)

이렇게 생각하니 왜서인지 불쑥 눈물이 솟구쳤소.

〈분대장동지!〉

나는 붕대감은 분대장의 두손을 잡아 어루쓸며 울먹거렸소.

〈야참, 하필이면 우리 분대장동지가 이렇게...〉

그러자 분대장은 얼굴을 돌리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것이였소. 크고 시원하고 웃는시율이 얇아 어떤 때 보면 녀자의 눈처럼 곱살해보이는 그의 두눈이 나를 곧바로 주시하고있었소.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그의 입술이 약간 움직거리더군.

그 거동에서 나는 명락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는 질책의 빛을 읽을수 있었소.

좀 멋적더군, 그래 얼른 말머리를 돌렸지.

〈분대장동지, 그때 그 종소릴 어떻게 가려들었습니까? 정말 귀가 도청기 한가지입니다, 예?〉

분대장은 대답대신 피식 웃더군.

난 더 바투 다가앉았네.

〈그리구 말입니다, 거 지붕으로 건너뿔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분대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소.

분대장은 붕대감은 한손을 들어 나의 어깨를 툭 쳤소.

〈그럼 누가 하겠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소.

마치 별걸 다 묻는다는듯 한 어조더군.

그 말을 할 때 나를 쳐다보던 분대장의 그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눈빛이야.

보라구.

〈그럼 누가 하겠나.〉

이 말이 여기 눈빛에서 선히 보여오지 않나?

우리 분대장의 성미가 원래 그랬네.

한번은 중대에서 스무독이 넘는 김장을 하고 김치독덮개를 만들려고 벼짚을 잔뜩 실어왔는데 그걸 만들어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저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나중엔 아무래도 농장마을에 나가서 배워와야겠다느니, 통신중대 아무개가 이런걸 잘 만드는데 그를 초빙해오자느니 하고 중구난방으로 떠드는데 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졌던 분대장이 서툰게 역은 김치독덮개를 손에 들고 나타났소.

〈자, 이거면 안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네.

그처럼 무슨 일이나 소리없이 스스로 몸을 내대 말아나서고 남을 도와주기 잘하는 분대장이라는걸 잘 알고있었지만...

얼마후 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네.

입원실에 갔다가 그가 없어서 휴식장으로 찾아나갔던 나는 거기서 그만 깜짝 놀라고말았네.

정향꽃나무들이 쪽 늘어선 뒤쪽의 조용한 곳에서 분대장이 한창 뜨개질에 여념이 없는것이 아니겠나. (그때는 이미 분대장이 손에서 봉대를 푼 뒤였네.)

아니?! 난 아연하여 입을 딱 벌렸네.

실을 감아권 분대장의 손이 뜨개바늘우를 날렵하게 넘나드는데 그 속도와 가락맞은 톨동이 웬간한 녀자들도 울고갈 지경이었네. 거기에다가 마치 반주라도 하듯 휘파람까지 슬슬 불어대고있었네.

난 얼없이 입을 하 벌리고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

그때 한 처녀가 소리없이 나타나 <췌.> 하고 손가락을 입에 대며 나의 팔을 조용히 잡아끌었네.

이미 구면인 군종자창고 관리원 일순이었네. 바로 그날 종을 두드리던 처녀지.

그 일순이가 자기네 사람들과 함께 면회도 자주가고 어떤 땐 밤을 지새가며 간병원노릇까지도 하곤 했는데 그가 나를 한옆으로 데려가 소곤소곤 알려주는 말이 참 기막힌것이었네.

머칠전 분대장의 옆침대에 화상을 당한 중학생이 한명 입원했는데 길에 걸렸던 뜨개모자와 세타, 운동복바지들이 불에 타고 그슬려서 한심하게 되었던라네.

그걸 본 분대장이 이튿날 피복창고에서 슬그머니 찾아다가 저렇게 하나하나 손질하고있다는것이었네.

뜨개질할건 뜨개질하고 바느질할건 바느질하고...

그것도 크게 품들이는 기색도 없이 머리섬이나 하듯 손쉽게 슬쩍슬쩍 해제끼더라네.

한데 그 숨씨가 어찌나 알뜰하고 섬세한지 녀성인 자기도 딱 부럽고 시샘이 날 지경이라나.

자기도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것만은 정말 뜻박이어서 자꾸만 물었다네. 그 희한한 재간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서 배웠는가고...

분대장은 몹시 난처해하며 그저 빙긋빙긋 웃기만 하더니 누구도 몰래 손질해서 아이가 퇴원할 때 입

혀보내려고 했는데 괜한 말을 냈다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까지 흔들어보이더라나.

일순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속의 놀람은 여간 아니어서 호기심이 굴뚝처럼 울퉁불퉁 솟구치더군.

그렇지 않아도 한창 위훈을 꿈꾸던 나의 눈에 비낀 분대장의 모습은 전화의 날 적화점으로 몸을 날리던 영웅 못지 않은것이었는데 이런 기이한 측면까지 보게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나.

그날 점심무렵, 난 기회를 노리다 분대장의 옆에 슬쩍 다가붙었지.

마침 주위엔 아무도 없더군.

머리위로 키높이 자란 나무우듬지에서 잎새들이 술렁거릴뿐...

마른침을 꿀꺽 삼킨 나는 분대장의 귀가에 입을 가져다댔지.

<저 분대장동지, 그 비밀 나한테만은 좀 대줄 수 없습니까?>

<뭘 말어요?>

<아, 거 뜨개질재간 말입니다.>

분대장은 제 성미그대로 빙그레 소웃음을 지으며 눈을 찡 흘기더군.

<이 친구 별걸 다... 난 또 무슨 큰 비밀이라구. 거야 어머니한테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겠나?>

나의 눈은 휘둥그레졌소.

<아니, 세상에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까? 아들한테 뜨개질을...>

그러다가 그만 말을 꿀꺽 삼켰지.

애기가 안 나갈 방향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던거요.

<그 뜨개질때문에 어머니한테 좋아릴 맞던 생각을 하면... 예에, 그 이야긴 그만하자구. 후날 기회 있을 때 내 얘기해주지.>

분대장은 이러며 말머리를 슬쩍 돌리더군. 그럴수록 나의 호기심은 더더욱 살아나 속이 요글요글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소.

(분대장동지 어머니님 도대체 어떤 녀성일가?... 뜨개질때문에 좋아리까지 때리다니, 원... 분명 특이한 사연이 있어.)

나는 분대장과 각별한 사이인 내가 그 사연을 알게 될 날이 꼭 있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소. 그래 더 캐묻지 않고 한발 물러섰지.

그런데 그 사연을 한달이나 일년도 아닌 십년이라는 긴긴세월이 흘러간 뒤에 비로소 듣게 될줄이야 누군들 알았겠소.

이듬해 분대장은 제대되었던거요.》

《내가 분대장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분대장이 제대되던 소리부터 해야겠구만.

제대! 그 말이 군사복무를 못해본 사람들에게겐 그저 범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오. 허나 이 평범한 낱말이 총잡은 군인들의 귀전엔 얼마나 무겁게 울리는 것이겠소.

이 한마디속에 군사복무와 관련된 모든 추억과 감정이 다 깃들어있거던. 영예와 긍지, 자책과 회오, 각오와 결심...

그래서 군인이란 그가 누구든 제대를 앞두고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는것이요. 분대장도 례외가 아니었지.

본시 말술이 적은 그는 생각에 잠겨있을 때가 더 많아졌소.

어느날 나는 우연히 그의 수첩을 보게 되었고. 거기엔 그가 쓴 심중의 고백이 그대로 적혀있더군.

〈제대는 종점이면서도 출발선이다.

제대는 선택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이다!

하다면 나는?... 나는?...

갈것이다, 어머니가 부르는 곳으로!...〉

원래 분대장은 군관학교로 가게 되어있었소. 그러나 화재때 입은 얼굴의 상처와 부상으로 하여 그 길을 걸을수 없게 됐지. 부대에서는 그에게 고향으로 갈것을 권고했소.

낮익은 사람들이 많은 곳... 정든 땅...

분대장은 그 길도 마다했지.

그는 제대의 첫 자욱을 종자창고화재때 공간을 뛰어넘던것처럼 과감하게 내짚었소.

나는 그가 어떤 공정과 절차를 거쳐 자기의 결심을 실행하였는지 다는 모르오.

그러나 그는 끝내 제대배낭을 지고 고향으로가 아니라 전혀 생소한 땅, 무연한 개펄만이 황량하게 펼쳐져있고 인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무인지경의 간석지개간전투장으로 향했소. 그무렵 당에서는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전투장으로 청년들을 부르고있었던거요.

...

10년후, 어제날의 분대장과 병사는 간석지건설장의 직장장과 수도 평양의 청년대학생이 되어 서로 만났소. 그때는 내가 대학을 졸업할무렵이었소.

우리는 대학과정안에 따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

적지, 전국의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마침 간석지건설장도 포함되어있었소.

두말할것없이 난 하루 말미를 받기 바쁘게 옛 분대장이 일한다는 룡매도간석지건설장의 분직장으로 달려갔소.

가보니 장관이더군.

날바다 한가운데로 뻗어나간 줄기찬 제방이 저 멀리 룡매도에서 마중나온 제방과 손을 맞잡아 섬은 이미 물으로 된 상태였소.

제방은 마치 대지에 새겨넣은 거대한 감탄부호처럼 나의 가슴에 장엄하게 안겨왔소.

이게 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낸 전변이란 말인가?!

난 인간의 힘의 거창함과 무궁무진함에 대해 새삼스레 감복했소.

별에 타고 해풍에 그슬려 적동색으로 된 옛 분대장의 얼굴엔 어느새 얼기설기 가는 잔주름들이 덮이기 시작했더군.

그의 귀전에 섞여든 몇오리의 흰머리카락이 유난스럽게 눈을 찢었소.

우리는 끈게 뻗은 제방을 따라 말없이 걸었소.

노을에 물든 바다와 제방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소.

하늘에서는 노을이 불타고, 눈썹리 모자라게 펼쳐진 간석지 새땅에서는 빨갛게 한벌 덮인 나문제가 불타고있어 하늘이 땅을 물들이는지 땅이 하늘을 물들이는지 모를 지경이었소.

개흙을 따라 금방 밀려들기 시작하는 들물 앞머리가 장석을 입힌 제방기슭을 찰썩찰썩 두드려대고있었소.

〈저 바다가 말이요...〉

오랜 침묵끝에 분대장이 석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소.

〈척 보기엔 저렇게 무심하고 무사태평한것 같지만 저속엔 인간세상의 모든 표정과 소리가 다 들어있더구만.〉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소.

저 멀리 불타는 노을을 떠신키고 춤추듯 달려오며 부절히 반짝이는 무수한 잔파도들의 떼가 보일뿐...

(?!...)

〈저걸 보라구. 저 파도들이 꼭 서로 손잡고 이 간석지별로 달려오는것 같지 않나? 저걸 볼 때마다 난 저도 모르게 영록아, 바다가 엄마품이라면 저 내물들은 자식들이란다. 그래서 늘 저렇게 엄마품

을 찾아서 가고 또 가는거란다 하시던 어머니의 말을 생각하군 하지. 그럴 때면 난 속으로 이렇게 대답한다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앉아 얘기하던 우리 집앞의 그 내물이 흐르고흘러서 지금 마침내 여기로 막 달려오고있어요...

그러느라면 나에겐 이 바다가, 이 간석지벌이 꼭 살아숨쉬는 옛지기처럼 여겨져 막 불안고 얘기라도 나누고싶어지지.)

나는 가슴이 뭉클해났소.

(분대장동진 여전하구나.)

어데선가 은은한 호른소리마저 들려오는듯 한 착각이 일더군.

〈제 보기엔 분대장동지가 어머니를 끔찍이 따르는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류다른 사연이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분대장은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엿소.

〈있지. 하긴 누구에겐들 자기를 낱아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추억이 없겠나.

허나 내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르는건 그때문만이 아니네.

어머닌 내가 인간으로서, 당원으로서 꼭 지니고 있어야 할 거, 뭐랄까? 량심의 눈이랄까, 귀라고 할까?

그런것을 일찌기 마음속깊이에 심어준분이거든.

그것도 말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말일세.

말하자면 앞서간 당원이라고 할까?

참, 내가 군대시절에 동무와 한 약속이 있지. 약속이야 지켜야지. 그럴것없이 우리 집으로 가자구. 그렇잖아도 처가 기다리고있을거야...〉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소.

갈산중턱을 깎아내고 층층으로 울러지는 청년개척자들의 살림집마을 세번째 줄 다섯번째, 분대장의 말을 빌면 3층 5호집이 바로 그의 집이엿소.

그런데 옛 분대장의 안해가 누구였는지 아오?

바로 그 일순동무였소.

우리는 한참이나 두손을 맞잡고 떠들썩하게 회포를 나누엿소.

말끝에 자연히 뜨개질소리도 나왔지.

〈에그, 그때뿐인줄 아세요? 저이는 여기 와서도 그 뜨개질로 술한 사람을 놀래우고 웃겼답니다.

작업반원들이 쓰는 겨울뜨개모자와 장갑 같은건 더 말할게 없구, 얘기들 돌생일선물도 제 손으로 뜨개옷을 해가지고가는 정도랍니다.〉

일순동무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웃엿소. 웃는 그의 눈가에 왜서인지 물기가 반짝이더군.

처음엔 빙그레 웃음이 피어나던 영록동지 얼굴

에도 점차 생각깊은 심각한 표정이 비끼엿소. 그는 손에 들었던 담배불을 천천히 비벼끄더니 마침내 입을 열고 오래동안 물어두었던 이야기를 마치고 가슴속에서 퍼내듯 무겁게 떠올려 천천히 펼쳐놓기 시작했소...〉

...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고루엿다.

《그러니까 거 10년만에 비로소 듣게 되는 얘기겠습니까?》

상태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음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런셈이지.》

신문은 아직도 내 손에 들려있었다.

사진속의 옛 분대장은 여전히 나를 의미깊게 쳐다보고있다.

나에게는 그날 밤의 느낌이 어제일이런듯 생생히 되살아났다.

창너머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던 밤파도소리, 어데선가 울려오는 손풍금소리와 청년들의 량만에 넘친 노래소리, 상에 썩었던 보자기를 벗기고 어서 음식들을 들어가며 이야기하라고 몇번이나 권하던 일순동무의 그 친절.

허나 그때 나에겐 먹고싶은 생각보다 듣고싶은 궁금증이 훨씬 더 강했었지. 그래 앞에 놓인 맥주고뿌바닥에서 끊임없이 술술 피어오르는 기포줄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하얗은 생활의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하는 느닷없는 생각을 했더랬지.

그날 그렇게도 조용하고 담담하게 울리던 옛 분대장의 추억담이 한마디한마디 그대로 되살아났다.

자기의 어린시절에 대한것이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기도 한 잊지 못할 그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의 세부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원심을 쓰며 그 저녁 분대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기 시작했다.

5

《우리 어머니는 전쟁전 군병원 의사였소. 조국해방전쟁과 함께 중위의 견장을 달고 전선에 달려나갔됐지.

락동강가에 술한 피를 뿌리고... 전쟁이 끝났을때 어머니는 온몸에 성한 곳이랴군 거의 없는 영예전상자였소. 아버진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하시고...

나라에서는 어머니에게 영예전상자보양소에 가입을 권고했지.

그러나 어머니... 머리를 가로저었다더군.

〈아니, 나의 행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락동강가에 쓰러진 전우들이 오늘도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여전히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남편의 뒤통까지...〉

어머닌 친정집에 맡겼던 우리 오누이를 데리고 본래 살던 군소재지로 가서 탁아소 소장이 되셨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네만 전쟁후의 어렵던 때라 많은 아이들이 내외는 고사하고 장갑이나 양말도 변변한것이 없었네. 게다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또 얼마였겠나.

그때 어머니 손수 그것들을 만들어 입히고 신기기 시작했지. 밤마다 우리 집에선 포탄깎지등불이 꺼질줄 모르고 타올랐네. 그 등잔은 어머니가 전선에서 가지고온것이였네. 전우들의 피가 스민것이라고 어머니가 무던히도 아꼈지.

그 등잔불아래 벌려놓은 일감들속에 무엇인들 없었겠나.

애기숨저고리, 밀이 터진 애기바지, 뜨개모자, 장갑, 양말, 배띠...

어머닌 저녁밥을 물리기 바쁘게 돌아앉아서는 뜨개질에 여념이 없었네. 대체로 바느질은 좀 밝을때 하고 등잔불밑에서는 뜨개질을 하군 했지.

그옆에선 나와 누이가 어머니의 잼싼 손놀림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앉아있지.

두개의 뜨개바늘이 부지런히 물동적으로 가락맞게 서로 맞부딪치고 그우로 손가락에 실을 감아권 어머니의 손이 춤추듯 날렵하게 넘나들 때마다 한 줄한줄 뜨개천이 자라나는 모습은 참 볼수록 희한하고 재미있었네. 그밑에선 공같은 실꾸리가 어서 빨리 뛰어오르고싶은듯 이리 덩굴 저리 덩굴 끊임 없이 뒤채기며 모지름쓰고있고.

그렇게 뜨개질에 여념이 없다가도 어머니 이따금 자기 무릎을 잡고 옆에 딱 붙어앉아있는 나를 정차게 내려다보며 뜨개바늘로 볼을 꼭 눌러주고는 상긋이 웃군 했네.

〈어때, 재미있니?〉

〈네. 엄마손은 참 보배손이야.〉

〈영록아, 실 한오리는 별게 아닌것 같아도 이렇게 뜨개바늘을 따라 감기구 또 감기구 하면서 계속 이어져가면 옷두 되구 모자두 되는 법이란다.〉

〈야!〉

나는 멋도 모르면서 그 말이 참 신통하여 짹짹 손벽을 쳤네.

그러다가 밤이 좀더 깊어지면 입이 췌지게 하품을 하고나서는 끄덕끄덕 고개방아를 찼다가 마침내

쓰러져 엄마무릎을 베고 혼곤히 잠들고말지.

어머닌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아침에 눈을 비비며 깨어나보면 어느새 노전바닥에는 늦종발에 골숨히 담긴 감자밥이 있고 그옆에 무우장절임과 꼭지술갈 두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네.

어머닌 막 설것이를 끝내고 반달음으로 집을 나서지. 옆구리에다가는 간밤에 바느질, 뜨개질한 애기옷들을 끼고서...

날마다 아침저녁의 일과는 그대로 반복되었네.

그러느라니 가뜩이나 약한 어머니 몸이 견디겠나.

자꾸만 앓아눕게 되었지.

남을 치료하던 어머니가 치료받는 어머니로 되어가고있었네.

어린 나이에도 겁이 나더군.

어느날 엄마 머리맡에 앉아 이마를 짚어주고 물그릇을 떠오고하던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네.

〈엄마, 엄마가 꼭 이런 일을 해야만 하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더군.

〈그럼 누가 하겠니?〉

〈다른 엄마들도 있잖나요.〉

〈영록아, 그렇게 생각하면 못쓴단다....

시내물이 엄마품을 찾아서 바다로 간다고 했지?

그건 누가 시켜서 가는게 아니잖니?〉

〈?...〉

어머니는 잠시 숨을 몰아쉬고 혼자소리처럼 생각깊이 속삭이더군.

〈가야 하기때문에 가는거란다.〉

끊임없이 달리지 않으면 시내물은 말라서 없어지고말아....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직 철없던 나로서는 다 알수 없었네.

허나 어린 가슴에도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한것이 슬며시 없혀들더군.

시내물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지금 하는 일이 분명 좋은 일이고 또 훌륭한 일이라는것만은 어렵듯이 깨달을수 있었네.

그날부터 나는 누이와 함께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지.

난 누나에게 뜨개질을 배워달라고 떼를 썼네.

그리고 줄음을 이겨가며 어머니가 일하는것을 유심히 눈동냥하기도 했지.

누이는 나보다 두살우었는데 어머니를 닮아서인

지 뜨개질이나 바느질에 손이 굉장히 잦았네.

그 누이가 뜨개질을 배우는 나보고 <너두 손이 꽤 재구나.> 하더군.

우리 오누인 어머니가 없을 때마다 둘이 마주앉아서 신이 나서 뜨개질과 바느질을 해나갔네. 어머니를 돕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겠나.

누인 그래도 녀자인 탓에 어머니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해도 그저 <그만두려무나.> 하는 정도로 그치었지만 난 그렇지 못했네.

어머닌 내가 뜨개바늘을 쥐는것을 보기만 하면 <사내자식이 할일이 없어 그런걸 주무르니?> 하고 눈을 부릅뜨며 욕하곤 했지.

그래 난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고 없을 때마다 몰래 하곤 했네.

누이도 그 일만은 고자질 안하고 눈감아주곤 했지.

처음엔 어머니가 뜨다가 놔둔것을 몇줄씩 더 떠 놓곤 하다가 나중엔 장갑이나 양말을 내 손으로 한 컬레씩 떠서는 슬그머니 무지속에 끼워넣곤 했네.

그런데 그 일이 어머니를 그리도 노엽힐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그것은 내가 뜨개질에 재미불고 정신이 팔려 그 만 학교가는것을 잊은 날이었네.

한시간이 늦은것때문에 뒤더수기를 굶으며 걱정하던 나는 그러면서 또 한시간이 지나가자 선생님, 어머니를 돕느라 그랬습시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책보따리를 아예 내려놓고말았네. 그리곤 뜨다가만 애기양말을 마저 뜨기 시작했지.

조금만 더 떠서 그걸 빨리 끝내고싶었거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다짜고짜 나를 불러세웠네.

<어디 한번 말해봐라. 오늘 왜 학교를 두꺼먹었지?>

중언부언 울먹거리며 더듬는 나의 말을 다 듣고 난 어머니는 기가 막히는지 얼굴을 외로 돌렸네.

<다리를 거뒀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네.

어머니는 손더듬으로 옆에 있는 방비를 찾아 거꾸로 쥐었네.

<학교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뭔지 아니? 나라에서 너를 공부하러 오라고 부르는 소리야. 건 군대에서 명령이나 같은거야. 그런데 넌... 공부 잘하고 어서 커서 나라위해 큰일할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제 어미 뒤시중이나 하려들어? 네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하시겠니?>

제 갈길도 모르는 못난 녀석같으니...

어머니는 종아리를 치셨소....

그날 밤 잠든 나의 종아리를 쓸어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어머니가 소리없는 눈물을 펄펄 쏟아내는 이야기를 난 누이한테서 들었네....>

6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난 나의 옛 분대장은 목이 메이는지 더 말을 잊지 못했소.

옆에서 일순동무가 소리없이 웃고름으로 눈굽을 닦더군.

나도 목이 꺾 메고 코허리가 시큰해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소.

어느덧 창밖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덮였소. 제방이 뻗어나간 저 멀리 아득히 먼곳에서 불빛 하나가 의미많은 눈짓이라도 하듯 반짝이고있었소.

나는 그 불빛에 대고 맘속으로 대답없는 물음을 던졌소.

(그 고사리같은 손으로 엄마를 도와 뜨개질을 하는 어린 자식이 못내 대견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눈물까지 펄펄 쏟아가며 종아리를 때릴 때 어머니가 바란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가.)

<저, 어머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계십니까?>

<어머닌 안계시오. 오래전에, 나를 군대로 떠밀어보낸 그해에 전쟁때 입은 부상이 도져서... 세상을 떠나셨지.

역두에서 어머님이 자, 떠나는 네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소.

어머닌 나에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꼭 당이 지금 너에게서 무엇을 바라는가를 먼저 생각하거라, 그러면 결심이 설게다, 그리구 그 결심을 실행하는 길에서 한걸음도 늦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늦군하는것도 병이란다 하고 단 네마디를 하셨소.

그 말은 한생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소.

그날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걷는 매 발자국의 의미가 달라졌지.

난 엄마만을 생각하며 뜨개질하던 그 시절과 영 작별했소.

사람들이 바라는 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옆을 보기 전에 다름아닌 내가 말아나서야 한다는것을 난 깨달았소.

그리구 군사복무의 나날에 바로 거기에서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 법두 배웠구.

난 한치한치 늘어나는 저 제방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금실은실로 조국방가역을 아름답게 수놓아가

고있는듯 한 행복한 환상에 종종 빠져들곤 하오.

그럴 때면 암만 일해도 도무지 힘든줄을 모르곤 하지.) ...

난 감격하였소.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벽에 걸려있는 옛 분대장의 어머니사진앞에 다가갔소.

얼굴이 해맑고 눈빛 그윽한 녀인, 량쪽으로 땅은 머리태를 마주 엇걸어 올려붙인 50년대 가정주부의 머리모양을 한 평범한 한 녀인이 전후에 이 땅에서 새로 자라난 젊은 청년대학생을 마주보고있었소.

무언의 시선속에서 그 시대의 메아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듯싶었소.

(어머니와 분대장동진 마치 무한궤도의 강철사슬 처럼 굳건히 이어져 우리 당의 행군로를 줄기차게 다져오고있구나!)

나는 돌아서서 분대장에게 웨쳤소.

〈분대장동지,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꼭 여기 간석지건설장으로 달려오겠습니다!〉 ...

현데 보다싶이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물론 졸업때 간석지로 보내달라고 탄원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 그러나 졸업배치사업을 맡아보던 일군이 환하게 웃더니 〈확실히 동문 공부를 헛하지 않았소. 바로 동무처럼 각오도 좋고 준비된 사람이야말로 지금 지도단위에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요. 공부를 좀더 해서 보다 중요한 일을 해봅시다.〉 하면서 문건을 한옆으로 옮겨놓았소.

얼마후 난 대학박사원생이 되었소.

그후 대학교원을 거쳐 인민위원회 지도원(당시)으로, 성과 위원회들의 부과장, 과장, 부부장으로... 여러 직무를 두루 밟으며 오늘에 이르렀지.

부언하건대 그 기간 마음편하게 발편잠을 잔적은 별로 없었소. 늘 일에 다몰려 발바닥이 부르르도록 뛰어다녔지.

누구한테 싫은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내 신조였소.

그러다보니 누가 나를 탓하지 않는가를 가리는 귀는 점점 밝아졌지만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가려듣는 귀는 반대로 점점 어두워져갔소.

어느덧 옛 분대장과 한 약속은 점차로 나의 뇌리에서 희미해져갔소.

이따금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이 문득 발목을 잡을 때도 있었소.

그럴 때마다 어데선가 (너는 지금 나라앞에 간석지에 달려간것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일을 하고있지 않는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며 마음속을 술술 어루쓰다듬어주었소.

그 목소리를 여러번 듣는 과정에 점차 약속에 대한 생각이 발목을 잡는 회수는 떠져갔고 그 지속시간도 짧아졌소.

털어놓고말해 그동안 당이 펼친 얼마나 많은 벽찬 전투장들이 우리를 불렀더랬소. 그러나 난 그런 전투장에 별로 뛰어들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만 맴돌았지.

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럽네만 난 아직까지 그날의 그 3메터를 뛰어건지지 못하고 살아온 인간이었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 물음을 세우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 당이 부르는 전투장에 이런 트렁크를 성의껏 보내는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달려나가서 자기의 더운 피와 땀을 바치는것만이야 하겠소?

그러니 상태동무, 세포에 가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우리 영록분대장을 찾아가 나의 인사를 전해주오. 또 내 결심도 알려주오.

아니, 그럴것없이... 이번에는 내 쪽...》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상태네들도 덩달아 따라일어섰다.

서로들 말없이 한동안 서있었다.

그처럼 푸접중던 상태도 격앙된 내 심증을 깨트리고싶지 않은지 조용히 뒤로 물러서더니 슬그머니 방에서 빠져나갔다.

《제 좀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뒤를 따라 모두들 나갔다.

나는 방에 혼자 남았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그제서야 신문에 눈길을 주었다.

《전조선에 새겨가는 한 당원의 위훈의 자욱》

이런 큼직한 제목아래 나이 70이 다된 옛 분대장이 자진하여 배낭을 지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달려나가 위훈을 떨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 거의 반면이 차도록 실려있었다.

그는 또다시 달려나간것이다.

그 누가 부르는 사람은 없어도 그는 심장으로 자기를 부르는 종소리를 가려들었던것이다.

...구들골물계에서는 자기가 박사급이니 걱정놓고 꼭 믿으라고 통삼아 뽐내면서 병실마다 찾아다니며 온돌을 놓아준 이야기, 털실로 뜯은 수실여개의 겨울 뜨개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마련해가지고와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는 이야기.(그걸 누가 뒀다는 말은 없었다. 알게 모르게 그의 뜨개질 신세를 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늘 빙글빙글 웃으며 돌격대의 오만가지 사말사에 다 관심하고 세심히 돌봐준다는 미더운 로당원.

그때 돌격대원들속에서 비록 대렬명단에는 없지만 돌격대 1번수아바이라고 정답게 불리운다는 이야기가 눈곱이 시큰하도록 한가득 실려있었다.

마감으로 그가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 적혀있었다.

《전 지금도 군사복무시절 우리 분대의 한 대원이 썼던 시구절을 기억하고있습니다.

...날새처럼

깃을 떠나 멀리 날아도

마음은 어릴적 그 시절에 두고

한생을 저토록

자식들은 달려가리

세상에 오직 하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대답하며

대답하며...》...

가슴에 찌르르 전류가 흘렀다.

철모르고 펜을 놀렸던 그 시, 너무나도 쉽게 종이우에 썼던 그 시를 분대장은 수십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기억하고있었을뿐아니라 자신의 생활로써 어머니의 부름에 대답하는 진정한 아들의 시를 대지우에 아로새겼던 것이다.

시를 쓰는것과 시처럼 사는것 사이에는 그리도

엄청난 간격이 있었구나.

귀전에는 때로 잊고지냈던 수십여년전의 그 종소리가 새삼스레 되살아났다.

어데선가 아득히 먼곳에서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

뽕뽕뽕, 뽕뽕뽕...

아, 만약 이제 다시 내앞에서 그 종소리가 울린다면!...

아니, 나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그 종소리는 어제와도 울렸고 오늘도 계속 울리고 있다. 래일도 울릴것이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당파 조국이 부르고 인민이 부르는 그런 종소리를 늘 심장으로 가려듣고 사는 사람만이 그리고 자신을 바쳐 그에 화답할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앞에 뽕뽕이 머리들고 나는 그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나의 온몸에는 새힘이 솟음쳐올랐다.

나는 지원물자트렁크를 내려다보았다.

아까 폭 꺼져 주저앉은것으로만 보이던 트렁크가 우뚝 일떠선듯이 느껴졌다.

그 트렁크는 나에게 어서 함께 세포로 가자고 웨치는듯싶었다.

종소리가 울려오는 그곳을 향해!...

상 식

오를로브말

로씨야녀황제 예카쩨리나2세시기 황제와 가까운 오를로브백작이 있었다. 예카쩨리나2세는 오를로브백작에게 로씨야의 어느 한 지방을 령지로 떼여주었다. 백작은 그곳에 가서 말들을 길렀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자기 이름을 따서 오를로브말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3종의 경마용말들중의 하나이다.

령리하고 용맹하며 날래고 힘이 센것으로 하여 이 말은 로씨야의 자랑으로 되었다.

로씨야련방대통령 뿌진은 주체92(2003)년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축하친서와 함께 오를로브말(3살, 4살) 3필을 선물로 올리였다.

이 선물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로씨야지도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우리네 바다엔 노래도 많다



김 홍 균
그림 함 준 혁

1

로동과장이 새로 입직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양식 직장으로 왔다. 그가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오기는 정말 드문 일이다. 알고보니 까닭이 있었다. 수산 전문학교 양식과를 졸업하고 배치받은 세명의 처녀 중에 그의 딸이 있었던 것이다.

한창 다시마를 수확하여가지고 들어와 부두가에 부리우고난 양식공들이 새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 하였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하나 같지 않았다.

우동진의 경우가 그랬다. 피복공장 재봉기수리 공으로 일하다 황금해의 새 력사에 자기도 뚜렷한 자욱을 새길 포부를 안고 지난해 이맘때 수산사업소에 자진해온 그는 바라는 어로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양식공이 된게 불만스러워 늘 찌뿌둥해있는 총각이다.

기관선의 이물쪽에 우뚝 섰던 직장장이 새 사람들이 온게 반가와 부두에 올라 맞이했다.

두 제대군인청년이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오구구 모여선 양식공들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처녀 셋이 양식공들을 향해 웃음을 짓고있다.

로동과장이 우쭐해서 말했다.

《직장장, 내가 양식에 대해 관심한다는걸 이제는 믿겠지. 보라구, 우리 딸까지 데려온걸.》

이미전부터 양식직장에 로력보충을 제대로 해주

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았던 직장장이 큰 입을 헤작하니 하고서 웃고있다.

《오늘은 어떻게 된겁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단번에 로력을 다섯명씩이나 배치하기는 처음이니 말이다. 로동과에서 양식직장에 새 로력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 배치하는대로 공손히 양식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이다.

매생이의 선체에 엉치를 붙이고 앉은 우동진은 시뻘뻘한 인상으로 새로 온 제대군인들을 보며 나처럼 운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마 곰상곰상 양식에 오겠다고 했을리는 없을거고. 어로에 가겠다고 어지간히 떼를 썼을텐데 종내 양식에 오지 않으면 안된 그들의 처지가 자기와 다를바 없어 은근히 동정이 갔다.

수산사업소에서 양식이라면 모두가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직종이다. 바다라면 웅당 어로공이 되어 고기를 잡아야 하는것으로 인식되어있기때문이다. 거기에 배치받는 사람은 무엇이 모자라거나 힘이 없는것으로 인정받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입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앞발을 뻗치고 어떻게든 양식에 배치받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을 다루는데 수완이 있는 로동과장이래도 무가내로 어로선단에 가겠다고 하는 이런 때군들을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것이다.

우동진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로동과장은 이제도 방금 방에서 두 제대군인청년과 한동안 입씨름을 하고 나오는 길이다.

제대군인들의 성격에 매생이나 타고 태장을 돌려 다시마나 뜯자고 할리 없었던것이다. 무조건 어로선단에 가겠다고 요구를 해서 한참 설명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미 먼저 온 동무들이 다 어로선단에 가서 자리가 찼다는것이 첫째 조건이요, 둘째는 양식의 중요성으로 봐도 동무네는 타발없이 가야 한다는것이 둘째 조건이다.

《동무네 제대군인이지?》

《그렇습니다.》

《물론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을거고. 아마 사관으로서 아래대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했을거고. 난 뭐 군대생활을 못해본줄 아나? 나도 그때문에 처음 양식에 배치받아 의견이 있는것도 적소리 한마디 못하고 잤겠소.》

로동과장은 아무래도 두사람이 함께 성화를 먹이면 칼자루가 쉽게 그쪽으로 넘어갈수 있다는 위구를 느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접어들었다.

사실 그가 양식직장으로 군소리없이 갔다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도 펍 오래전 사업소에 제대배낭을 메고 왔을 때 어로공이 되겠다고 로동과의 문턱을 뻥질나게 드나들었다. 결국 자기가 바라던 어로공이 된 사람이다. 오늘 처지가 바뀌어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가 참으로 딱했다. 하지만 자기의 직분에서 이런저런 인정에 못이겨 양보를 하면 정말로 로력을 보충해주어야 할 단위들에서 골탕을 먹게 되는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다시마수확을 시작하며 로력이 없다고 계속 성화를 먹이는 양식직장에 로력배치를 못했다가는 자기의 능력이 시비될수 있었다.

이번에도 두 제대군인이 무조건 어로선단에 보내달라고 달라붙어 로동과장은 비지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하겠다는 그 포부는 좋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해의 의미속엔 우리의 바다가양식도 있다는것을 알라! 우리의 양식이 웅당한 높이에 올라서지 못하여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하는데서 자기 몫을 못하고있다. 그것을 동무들이 말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인가 우리 사업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바다가양식도 장훈을 불렀다고 자랑차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있는 조건에서 양식이 대단

히 중요하다. 우리는 양식업을 더욱 발전시켜 생산을 높고 안전하게 할뿐아니라 수산자원을 증식시켜 우리의 바다를 풍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로동과장은 달변가였다. 론리도 짤여있다. 거기에 누가 더 반박을 한단 말인가!

그때 마침 수산전문학교를 졸업한 딸의 동무들이 우르르 쓸어들어왔다. 처녀들은 처녀들대로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직종에 배치해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한참 성화를 먹이던 제대군인들은 처녀들의 출현으로 폐질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자기들이 명령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삼고 생활하던 군인들이었다는 자각때문이였는지 아무도 없을 때는 아는 폐질을 써서라도 희망하는 어로선단에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처녀들의 앞에서 그만 입을 다물고 자기들의 처사를 돌이켜보았던것이다.

형세가 순간에 바뀌어버렸다. 글썽 금방까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직종에 배치해달라고 생떼를 쓰던 제대군인들이 처녀들의 행동을 보고서는 로동과장의 편을 들어 나선것이다.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행동했던가싶게 원칙적인 말로 처녀들을 두말 못하게 만들었다.

《양식과를 졸업하고 다른데로 가겠다는게 량심이 있는 소리요? 나라에서 품을 들여 공부시켰는데 자기의 전공을 버리고 좋은 직업을 찾는게 그래 새세대다운 행동인가 말이요. ...》

제대군인들은 처녀들의 출현으로 자기들도 희망하는데가 아니라 당에서 요구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것을 순간에 깨달았던것이다. 그들도 사실 이곳으로 올 때에야 얼마나 큰 포부를 안고 달려왔던가?

이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물고기풍년을 이룩한 수산사업소에 나가시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수 있게 되게 그리도 기쁘시여 눈물까지 지으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했던 초소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반찬이 바로 인민군군인들을 자신의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낄세라 육친의 정으로 돌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로고의 결과물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제대배낭을 이곳 수산사업소에 풀었던것이다. 이제 제대되어서도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황금해의 력사

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자! 이것이 그들의 결심이었다.

일은 로동과장이 바라던대로 되었다. 제대군인들도 처녀들도 더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양식직장으로 몰수밖에 없었다.

제대군인들이 직장앞에 차렷자세를 하고 씩씩하게 자기 소개를 했다. 분명 어로선단에 가지 못해 기분들이 잡쳤을텐데 내색을 하지 않는것을 보니 역시 제대군인들답고 사내들이었다.

《특전병출신 장인덕입니다.》

《상사 남해봉!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배에서 날아오는 소리가 부두가에까지 들렸다.

《이름이 참 좋구만. 해봉이라?!... 성까지 동가면 정말 그럴듯한 이름인걸.》

마감배에서 부리우는 다시마망태를 부두가의 팔기중기가 물어 엉뎅이를 들이민 차에다 실어주는것을 보며 직장장은 서두르라고 소리쳤다.

《자, 빨리 배에 타오. 오늘은 그저 우리 양식장 구경이나 하는셈치고 작업복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도 괜찮소.》

나이 마흔댓나는 직장장이 새 식구들에게 찍어가며 어느 배에 오르라고 일러주다가 누군가를 보고 뺨 소리쳤다.

《뭐야, 생산물을 가지고 누가 그따위짓을 하라고 했어?》

어로선단의 75마력선이 들어와 생산물을 부리우고있었는데 그 배에 붙어있던 매생이에서 미역마대가 거기에 넘어가고있었던것이다. 마대가 맥없이 떨어졌다.

당장 선장의 노여운 소리가 날아내렸다.

《아니, 뭘 주고 뺨맞는 식이로군. 그래두 양식을 생각해서 생선을 맛보라구 주었는데 싫으면 그만두라구.》

알고보니 양식을 생각해서 배에서 송어를 주었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보내는것이였다.

《사실 우리 배사람의 처가 해산을 해서 필요하니 받는거지 그렇지 않다면 쥐두 받질 않네. 좋은 고기가 있는데.》

《정말 미역이 필요없단 말이지.》

《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직장장과 나이가 어금지금한 선장이 바빠서 변명한다.

마대를 옮기던 청년이 속에서 미역을 꺼내 쳐들

었다. 직장장도 웃고만다. 이제보니 다시마가 아니라 참미역이다. 태장에 드물게 붙는 참미역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산모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것이다. 미역을 달랠 때면 꼭 산모한테 쓸거라니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마 하고 들어준다.

《어로가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송어를 주는데 이쯤한 인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대를 넘겨주던 청년이 직장장에게 하는 소리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청년의 발치에 팔뚝같은 송어가 무드기 쌓인게 보였다.

《그래두 말을 했어야지. 하여튼 고맙네.》

직장장은 리해를 하면서도 자기를 무시한게 노여워 한마디 했다. 마감말은 선장에게 하는 인사이다.

《점심식사에 고기국을 받쳐먹는것도 괜찮겠기에 받았습시다.... 요즘 매일 산모처럼 미역국만 먹자니 물립니다.》

언제봐야 자기가 후방을 맡아놓은것처럼 나서는 청년이다. 이런 일에 재간이 있다고 옆에서 취하는데 들떠 종종 상급을 무시하는게 기분이 나쁘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집단을 위해 씹혀거리고 나서니 뭇다고 할수 없다. 주지하는바이지만 집단엔 이런 사람도 필요한것이다.

《여, 선장한테 자존심없이 비라리를 한게 아니야?》

선장이 보이지 않자 직장장이 묻는 말이다.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선장이 우리 양식이 수고를 하는데 인사가 있어야겠다면서 준겁니다.》

《어쨌든 존엄을 버리구 고기를 비라리해서 먹을수는 없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강하지 않은 직장장이다.

《물론이지요. 직장장동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 점심에 한탕 끓여야지요. 내가 가져다주고 오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수확철이나 모내기철처럼 일손이 바쁠 때면 자체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져다주겠다는것이다.

《그러라구.》

비라리를 해서 먹는 고기가 아니니 맛도 좋을거라는 생각으로 직장장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청년이 마대에 넣은 송어를 직장쪽으로 꺾꺾거리며 들고갔다. 그 무게에 한쪽어깨가 심하게 찌글썸했다. 그때문에 양식장에 진출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배들이 기관선에 주련이 달려서 양식장으로 나가려는데 이번에는 당비서가 한사람을 데리고 부두가에 나타났다. 데리고나온 사람은 끼긋한 차림새의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환하게 생겼는지 처녀들이 대번에 현훈증을 일으킬 지경이 되었다.

호기심과 까닭모를 기대가 어우러진 욕심스런 눈길들이 청년을 훑어보았다. 장가를 갔음직한데? 아니야, 총각같은데?!... 모두의 눈길이 나름의 생각을 태운채 가늠해보고있었다.

당비서의 소개에 청년을 보는 선망의 눈길이 더욱 희한해졌다. 글썸 바다양식공들의 생활을 담은 노래를 짓고저 내려온 시인이라는것이다. 지금껏 머리가 흰 나이지숙한 시인들만 생각해온 양식공들은 시인이 너무도 젊은 청년이라는데 사뭇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많이 배워달란다. 함께 생활해보잔다. 성격도 얼마나 씨원씨원한가!

이쯤되니 모두 자기네 배에 시인을 태우고싶어 몸살을 앓았다. 텔레비죤같은데서나 보던 시인과 코를 맞대고 함께 생활해볼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직장장동지! 여기...》

배들마다에서 욕심을 부려 기대를 안고 직장장을 쳐다본다.

《아무래도 저... 우리 배가 좋을것 같습니다.》

그쯤되고보니 저들도 우스운지 서로서로 나 죽겠노라 마주보며 웃어댔다.

《너 우동진이, 금방 체네를 요구해서 한명 주었는데 시인선생까지 배에 태우겠다고 욕심을 부려? 그러다 배에 사람만 태우고 다시마는 어디다 심는다는거야. 이 배가 무슨 유람선인줄 알아? 로동과장 따님만 체대루 책임져두 대단해! 시인선생은 처녀들의 배에 모셔야 해.》

우동진은 가뜰이나 가무잡잡한 얼굴이 지르벌개가지고 되받아 소리쳤다.

《그래두 배에서 시에 제일 관심이 있는게 내가 아닙니까? 체네를 다른 배에 옮기구... 난 너자를 좋아 안합니다. 아무래도 갈 너자같은데.》

우동진은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양식에 보낸 로

동과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참이라 배에 태운 처녀가 그의 딸이라니 내놓고 다른 배에 옮겨달라고 했다. 남들의 눈이 있으니 지금은 양식에 넣지만 이제 적당한 구실을 붙여 빼돌릴것이라는 생각이 든것이다. 로동과장의 위치에서 저렇게 수산전문학교 양식과를 졸업한 딸을 버젓이 다른 직종에 배치할수가 없으니 그렇지 조건만 성숙되면 래일이라도 당장 제일 좋은 자리에 옮겨놓을것이라는 생각만 지긋게 들었다.

그때까지 부두가에 섰던 로동과장이 그만 기분이 언짢아 소리쳤다.

《너 동진이, 우리 성순이한테 양값음을 하는거야? 조금만 그런 요소가 보였던 아예 우리 사업소에서 내쫓긴다는걸 알아! 우리 성순이가 가도 체발로 다른 배에 가야지 네가 못살게 굴어 간다면 내가 용서를 안해.》

로동과장의 마감말은 자기식의 리해다.

《헉! 정말 여기 양식에 붙잡아두지 앓구 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배를 타겠는데...》

《그건 배가 아니구 목함자야?》

《매생이두 배라구 합니까? 난 어로공이 되자구 사업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피복공장 처녀들의 입을 통해 날아온 소문은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것으로 되어있지만 우동진은 어로공이 되지 못하고 여기 양식에 밀려온것때문에 모든것을 찌글썸하게 대하는 심통 바르지 않은 녀석으로 인정받고있었다. 그래서 아직 그의 노래를 누구도 들어본적이 없다. 하긴 그가 아니라도 노래를 부를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직장에도 있고 방금 온 처녀들속에도 있다. 로동과장이 자기가 데려온 딸 성순이를 직장장에게 인계하며 노래를 기막히게 잘한다고 자랑한것이다. 딸자랑이니 과장도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 없는 재간을 지어서 자랑할리는 없을것이다. 로동과장의 자랑을 들으면서도 우동진은 또 속으로 까닭없이 비웃었다. 그 비웃음이 그대로 입밖으로 튀어나가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빼그러진 로동과장의 기분을 잡쳐놓았던것이다.

《넌 아무래도 안되겠어. 양식을 우습게 아는 그놈의 머리통이 바루 될 때까지 절대루 여기서 못 빠져나가!》

우동진에게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듯 했지만 그것으로 행운이 스스로 찾아들었다. 젊은 시인이 보다

못해 우동진이네 배에 내려선것이였다.

《동무, 그러지 말구 우리 함께 생활해보지요. 아무래도 하는 일을 그렇게 손발이 시려가지구야 어떻게 재미가 있겠소.》

로동과장과의 언쟁으로 우거지상이 되었던 우동진의 얼굴이 금시 환해졌다.

2

기관선이 뒤에 달린 매생이들을 끄느라 모지름을 쓰며 내는 기관총의 런발사격같은 야무진 소리가 부두가를 들었다놓았다. 잠시후엔 배들이 한줄로 늘어섰다.

《동무가 시를 쓴다는게 사실이요?》

고물쪽에 성순이와 나란히 앉은 시인이 선창에서 일거리를 잡은 우동진에게 담배를 권하며 묻는 말이다.

《예. 그저 좀 끄적거리보느라 하는데 잘되지 않아요.》

뒤의 배에서 어느새 그 말을 듣고 놀려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치 엉터리시인입니다. 뭐 시를 쓴다는게 한줄 건너 아, 오, 그렇게 시작부터 저레 흥분해서 웨치는데 마감에 가서는 영낙없이 맥이 빠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성순이 그 소리가 우스워 깔깔거렸다.

선창에 그물망태기를 퍼놓던 우동진이 뒤에 달린 매생이에 눈총을 쏘았다. 나이차이가 있는지 내놓고 말은 못하고 두덜거린다.

《저는 흥내도 내지 못하는 주제에...》

그리고는 처녀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뭘 좋다고 웃어?! 모든게 동무 아버지때문이라는걸 알아. 내가 정말 어로공이 되였더라면 <바다만풍가> 두 이 사람이 지을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양식에 처박아놓으니까 어떻게 좋은 시가 나와?》

처녀의 어깨가 쑥 기여들어갔다.

《난 사실...》

시인이 얼른 우동진의 기분을 눅갯혀주었다.

《너무 그러지 마오. 사내답게 생각해야지. 동무가 시에 소질이 있다는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시를 쓰는 동무가 부럽소. 이런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써야 진실한 글이 되는거니까.》

《글쎄, 마음에 내키는 일을 해야 흥분도 되구 뭐, 시도 나오겠는데 이런 미역이나 건져내는 일을 하니 잘 안돼요.》

《동무가 그렇게 양식을 대하니 여기서 어떻게 좋은 시가 나오겠소? 사실 여기 양식에도 얼마든지 시가 있고 노래가 있소.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만이 좋은 시를 쓸수 있지 않을까?》

우동진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느덧 배들은 양식장에 다달았다. 주련이 련결한 삭을 뜯은 배들이 여기저기 널려 태장을 들기 시작했다.

《또 해봅세!》

직장장이 제 흥에 겨워 소리쳤다. 어느 사람들과 달리 그는 자기 직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사람이다. 수산대학에서 어로과가 아니라 양식을 지망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 나라 바다가양식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남다른 야심과 포부를 안고 여기 수산사업소로 달려왔다고 한다. 판꼴이 두드러진데다 눈꼬리가 들려 어느모로 보나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성격은 너그러운 편이라 직장사람들속에서 평이 좋다. 신망도 높다. 남들을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이 직장장이였다. 자기 직업에 불만인 직장사람들에 대해서도 욕설을 앞세우는것이 아니라 이제 양식업이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것을 느낄 때가 꼭 울거라는 식으로 설복했다. 그래서 직장사람들속에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직장장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했다.

태장을 드니 떠오른 모줄에서 장바처럼 긴 다시마들이 춤을 추듯 너울거린다. 모줄에서 와락와락 다시마를 뜯어내어 끌어올리느라 일손에 불이 붙었다. 아무튼 수확은 흥이 나는 일이다. 선창에 다시마가 쌓이기 시작했다.

《잘 자라지 못한건 남겨두고 마감에 수확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수확고가 아마 서너톤은 더 나오게 될지요.》

직장장이 또 소리친다. 책임진 일꾼이라 악의없는 잔소리가 끊기지 않는다.

《여 득남이, 문어단지도 들어야지. 하지만 전번처럼 배를 채우지 못해 다른 배들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돼.》

《걱정마십시오.》

득남이라는 청년이 장담을 하면서 태장을 걸어놓

은 문어단지줄을 끄당겨 올려보고는 실망해서 손에 사려든 바오래기를 바다에 활 던져버린다. 그리고는 두덜거린다.

《앵이, 본때를 보일라니 오늘따라 씨가 붙지 않는군.》

어느때는 손이 걸어 문어를 곧잘 끌어올리던 청년이 오늘 새로 배치되어온 식구들앞에서 은근히 자기의 재간을 시위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지간히 속상해서 저러는것이다.

오히려 문어잡이에 전혀 재미를 보지 못하던 우동진이쪽에서 오늘 운이 좋아 닳기로는 실히 될 문어를 끌어올렸다. 아마 시인이나 새로 온 처녀앞에서 뽐내보라고 문어란 놈이 골라골라 우동진의 단지에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우동진의 기분이 하늘에 뻗다. 스물다섯에 난 총각이 그러지 않아도 새로 온 처녀앞에서 우쭐해보고싶어하던차에 이런 횡재를 한것이다.

우동진이 성순이쪽을 흘금거렸다.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둥실하고 눈이 큰 처녀가 보기에다 성격이 좋을것 같다. 자기를 여기에 보낸 로동과장의 딸이라는게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팬치않다. 로동과장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 해서 처녀에 대한 감정까지 나빠야 한다는 법은 없는것이니까. 시인선생 말대로 사내답게 생각해야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이상한 감정까지 가슴속에 야릇이 차오른다. 그게 어떤 감정이라는건 짚어말하기 힘들지만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것만은 확실하다.

은 양식장이 모두 우동진-자기를 보는것 같다. 새로 온 체대군인들도 끌어올린 문어를 넘겨다보며 희한해했다.

《동진이, 마침 잘됐군. 시인선생한테서 뭘 배우자면 그쯤 인사가 돼야지. 그리구 로동과장이 딸을 잘 봐달라구 킁히 부탁까지 했는데 성순이를 위해서두 그래, 아마 로동과장이 딸을 맡긴게 다른 의미지도 몰라.》

우동진이네 건너편 태장을 잡고 나가던 배에서 누군가 하는 소리다.

얼굴이 새빨개진 성순이 그쪽에 대고 야멸차게 쏘아주었다.

《말이면 다 하는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저 동지에게 나를 맡겼어요? 그리구 아버지가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없어 내뺄 궁리만 하는 사람에게 딸을 맡겨요? 나도 그런 사람에게 반할 처

녀가 아니구요.》

처녀의 여무진 소리에 만장에 웃음이 일었다.

《동진이, 한풀 먹었구나!》

과연 팔매질은 건너배에 했는데 애매하게 얻어맞은건 우동진이쪽이다.

동진의 가슴속에서 흐르던 따뜻한 감정이 대번에 서리맞은 꼴이 되었다. 하지만 처녀에게 뼈꼭소리 한마디 할수 없다. 성순이가 한 말이 틀린데가 한마디도 없기때문이었다. 괜히 부아가 치밀어 꿈꿨 속앓음을 했다. 처녀를 팔매질로 이끈쪽을 쏘아보았다.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라 할가? 성순의 아버지가 어로공으로 배치해주지 않아 바로 자기가 창작할수도 있었던 바다에 대한 노래를 남한테 떼운듯이 우동진이 한 말을 은근히 가슴에 새겼던 처녀가 좋은 기회로 여겼던가 보다.

여하튼 배들마다 씩씩덕덕 입담을 벌리면서도 손은 손대로 부지런히 다시마를 뜯어내어 끌어올리는 새 배선창에 다시마가 그득히 쌓였다.

미구하여 양식장에 나올 때처럼 기관선이 매생이들을 달고 부두로 향했다.

《송어국에 문어회를 받쳐서 오늘 점심은 틀림없이 성찬일테지? 직장장동지만 눈을 부라리지 않으면 한잔 카- 하는것도 팬치않을것 같은데...》

번마다 그놈의 카- 가 문제여서 통제를 하는 일꾼들의 양보를 미리 받아볼가 해서 누군가 변죽을 치는 소리다.

《안돼!》

직장장이 소리친다. 그쯤한 침에 원칙을 버릴 그가 아닌것이다. 글썽 저녁이라면 몰라도 낮시간에 카-가 다 뭐냐.

점심에 기분 좋게 되리라던 기대가 깨져 분위기가 저기압이 되었다.

그래도 역시 직장장은 일꾼이다. 자기의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진걸 대뜸 깨치고 뒤에다 소리쳤다.

《청옥아, 이런 때 한마디 뽐으렴.》

여기저기서 부추기는 소리가 울렸다.

《하긴 카-보다 청옥의 노래가 좋지!》

《아무래도 그놈의 카-는 케가 틀렸으니 대신 청옥이의 노래나 듣자!》

양기가 발발한 한 처녀가 주저없이 노래를 불렀다.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흰 물새 훨훨 파도위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엔 흰돛이 아름다운
저기 저 바다로 우리 가자

...

야!—

발동기의 소리만 아니라면 주위가 숨이 죽은것만 같다. 처녀의 노래가 그만 모두의 심장을 틀어잡았기 때문이다. 바다처럼 창창하고 시원히 트인 소리다. 바다처럼 푸르고 공기처럼 맑아 청청하고 고운 소리다.

시인도 성순이도 새로 온 제대군인들도 새삼스러운 눈으로 입을 하 벌리고 그쪽을 본다. 무대에서나 들어볼수 있다고 생각한 노래를 이런 생활속에서 들을수 있다는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기막히다. 정말 우리의 생활속에 저런 소리가 있다는게 놀랍기만 하다. 무대에만 배우가 있는게 아니다. 저 처녀도 《공훈배우》다. 양식공들이 애정을 담아 붙여준 별칭이란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누가 양식장이 싫어서 어로공이 되겠다고 하는가? 이런 때만은 자기가 양식공이 싫어서 어로선단으로 가겠다고 때를 쓰던걸 감감 잊는다. 그저 자기가 바다에 나와 산다는 현실감만을 가슴가득히 때부로 느낄뿐이다.

직장장이 노래에 대해 설명했다.

《저 청옥이의 노래가 왜 듣기 좋은가? 목소리도 좋지만 보다는 저 소리에 자기 직업에 대한 궁지가 넘쳐나 더욱 좋은거요. 자기 직업에 대한 궁지가 없이 부른다면 저런 소리가 나올수도 없는거고.》

목소리야 타고난건데, 엉터리리론이야.

우동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또 비틀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직장장은 우동진의 생각쯤은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소리친다.

《이번엔 성순의 차례다. 모두 알아두오. 손풍금을 기막히게 타는데다 노래 또한 기막히다오. 우리 양식이 흥할 징조가 아니겠소?》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라고 부추겨댄다. 우동진

이 돌아보니 처녀는 웬일인지 선뜻 노래를 부를념을 하지 않는다.

《전 아직 바다의 노래를 부를만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격이 있을 때 부르겠습니다. 그땐 여러분들이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르겠습니다.》

처녀는 종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공훈배우》 처녀가 다시 불렀다.

흥, 로동과장이 너무 과장을 했군. 노래 한곡 부르는데 무슨 준비까지 필요하다는거야?

우동진은 빼놓아진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 자기가 마음속으로 호기심을 갖고 성순의 노래를 기다렸다고 자인했다.

성순은 생각에 잠겨 《공훈배우》의 노래를 듣고있었다.

그옆에서는 흥분한 시인이 그만에야 한쪽에 머리를 틀어박고 수첩에 무엇인가 휘갈겨쓴다.

우동진은 그런 시인을 보며 자기는 역시 생활을 느낄줄 모른다고 자책했다. 그러니 시인이 있고 로동자가 있는게라고 생각했다. 아직 다는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은 느낀다. 어로공이 되지 못해 누군가에게 《바다만풍가》의 노래를 떴었다고 아쉬워한게 잘못되었다는것을 말이다. 이렇게 둔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시대의 노래를 지을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저렇게 기막힌 노래를 들으면서도 시의 한구절도 떠오르지 않는 자기에겐 지적재능이 있다고 생각한것이 어리석다. 지레 흥분하여 아, 오를 넣으면 시가 된다고 생각한것부터가 잘못이다.

호기심이 부쩍 동해 어깨너머로 시인의 글을 도적질해보려고 기웃했다. 어림도 없다. 어떻게나 글을 갈기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리해된다. 저렇게 시상이 비발칠 때 그걸 놓치면 안되는거지.

누군가 아쉬운 소리를 했다.

《거, 우리 양식공들의 생활을 그린 노래가 있었음 좋겠다!》

직장장이 그 청년의 뒤통수를 쥐여박는다.

《얼마나 자기의 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면 양식공의 노래가 있다는것도 몰라?》

《아니, 정말 우리 양식공의 노래두 있어요?》

《있지.》

《어떤 노래게요?》

금노을 피어나는 저 바다에
양식공처녀들의 노래소리
갈매기 날아에는 물결따라
...

결절한 소리로 노래를 끝내고 직장장이 《이전
(바다가양식공의 자랑)이란 노래요. 이것 말구두
(바다나물 풍년이라오)라는 노래도 있지.》

《거, 우리 사내들 소린 한마디도 없구만요.》
누군가 아쉬워한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
까?》

《풍년노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러?》
그 소리에는 누구도 말을 못한다.

《자, 걱정할건 없어. 우리 올해엔 풍년을 이룩
했으니 자격을 가진셈이지. 시인선생께 부탁해서
더 좋은 노래를 지어달래자구. 우리 사내들두 다
같이 부를수 있는 노래를 말일세. 그때 가선 성순
이도 우동진의 노래도 듣도록 합세.》

하여튼 직장장은 사람들을 주무름줄 아는 일군
이다.

늘 삐뚜로만 나가던 우동진이건만 오늘은 웬일인
지 자기도 언젠가는 이들앞에서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 양식에 잡힌것으로 해
서 나래가 꺾여 하는 일이 성수가 나지 않긴 해도
드문히 한곡조 넘길 욕심이 들 때도 있는것이다.

3

양식장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의 반복같지만 그
렇지도 않다. 다시마를 뜯어내는 로동만이 반복일
뿐이다. 매일 마주서는 사람들이지만 생활만은 오
늘이 다르고 래일이 다르다. 사람들은 그래서 단조
로움을 모르고 생활하는것이다. 때로는 웃음도 있
고 때로는 언쟁도 있다. 칭찬도 있고 욕설도 있다.
오늘 내가 먹은 꼴 래일 가서는 옛다 너도 먹어라
하기도 한다. 그게 웃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
면 분노로도 된다. 만사람에게 다 웃으며 살수는
없는가 보다. 역시 생활이니까.

며칠사이에 새로 온 제대군인들인 장인덕이나 남
해봉이네도 서름한데 없이 어울려 일하고 처녀들도
시인도 다 한집안식구처럼 되었다.

바다날씨도 기막히게 좋아 멀미같은 걱정도 없

었다. 새로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을 바다사람
이 다 된듯이 여겼다. 그러나 아직은 바다사람이
되자면 멀었다.

오늘 비로소 그것을 깨칠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좀 멀기가 있을가보군!》

다시마를 뜯어내던 우동진이 수평선쪽을 보고 한
마디 했다. 그 소리에 시인도 성순이도 허리를 펴
고 그쪽을 보았다. 건너편의 남해봉이도 장인덕이
도 신기한 눈으로 우동진을 본다. 자기들보다 나
이는 어리지만 바다에서는 선배가 분명하다. 저렇
게 앞일을 척척 예측하는것을 보니 말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순이 묻는 말에 우동진이 조금 으쓱해서 대답
했다.

《바다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안되지.》

아니나다를가 배들이 다시마를 가득 채워실고 돌
아올무렵 바다모양이 달라지는게 알렸다. 지금까지
는 고요한 물면이 해빛에 금빛으로 번쩍거렸는데
지금은 잔파도가 무슨 고기비늘처럼 촘촘히 일어서
배전에서 첩쩍거렸다.

《파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요?》

겁기어린 목소리로 성순이 물었다.

《걱정할건 없어.》

우동진이 무뚝뚝하게 응대했다. 첫날 처녀한테서
꼴을 먹은 다음부터 도무지 살갑게 대할수가 없다.
처녀에게 하던 본때와는 다르게 시인에게는 다심한
어조로 물었다.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처녀는 우동진의 이 거친 뺨대에 그만 돌아섰
다. 성순이도 우동진이 자기를 무시하는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배를 타면서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더 말을 시키고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게끔 노력을 하는것인데 저렇게 나오
니 속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성순이 나직이 한숨
을 내뿜다.

(사내라는게 그렇게두 웅줄할가. 내가 뭐 사람이
나쁘다구 그랬나. 그저 자기 직업을 하찮게 여기는
게 싫어서 한마디 했지. 또 내가 그렇게 독을 쓰지
않으면 옆에서 계속 들사이를 놓고 이런 말, 저런
말 돌리겠으니 할수없어 그랬는데.)

처녀는 자기를 변명해보면서도 첫날 자기가 그를
본의아니게 모욕했다는걸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니 우동진의 뺨대가 웅당한것이다.

배들은 기관선에 이끌려 인차 양식장을 벗어났다. 잔파도가 철떡이느것 같더니 잠간새에 등실한 파도가 춤가락을 펼치듯 배전을 향해 다가온다. 배가 주정군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울거렸다. 그래도 우동진은 이물쪽에 버티고 서서 끄떡도 않는다. 보라는 식인가. 아니, 넘겨다보니 다른 배들에서도 몇사람이 우동진의 모양으로 그렇게 서있다.

새로 온 사람들은 문제가 달랐다. 시인도 성순이도 다같이 이상스런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속이 후리후리하고 머리가 뻥하고... 이건 무슨 병적증상인가? 그게 바로 멀미라는걸 모르고 하는 생각이다. 모든게 귀찮고 피로운 느낌이었다.

우동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다른 증상이 없어요?》

시인이 대답하기조차 귀찮은지 얼굴을 찡그린다. 정상이 아님을 손세로 알려주었다. 하긴 평양에서 포장길만 났던 사람이 이런 파도맛을 알수 없는것이다. 첫날 대동강에서 보트는 많이 타보았다고 자랑을 할 때도 우동진은 속으로 웃었다.

시인대신 처녀가 하소연한다.

《별나요. 머리가 뻥하구 속이 후리후리하구...》

우동진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비졌다. 잘코사니지 하는 태도였다.

처녀는 그만에야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는걸 깨달았다.

(이게 바로 멀미라는게 아닐가. 아버지가 멀미때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 그런걸 내가 무슨 실수를... 그러지 않아도 시필똥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바라다니.)

처녀는 강심을 먹었다. 시인 역시 정상이 말아 아니다. 자기포래들을 찾았다.

《봉금아, 넌 어떻게니?》

《난 모르겠어.》

《연옥아, 넌?》

《괜찮아. 참을만 해!》

그러니 자기가 제일 문제다.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머리를 짓속이고 갑판우에 몸을 눌렀다.

조금 있노라니 머리우에서 우동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이물쪽에서 고물쪽으로 옮겨온것이다.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무슨 반가운 소린가?! 시인도 성순이도 목라

던 사람 물만난듯 쳐다보았다. 멀미에 시달리는 사람일반의 심리다.

《저 노젓을 물고있으면 되는데...》

턱짓으로 고물을 가리켰다.

《노젓이요?》

우동진이 머리를 끄덕거렸다.

욕심같아선 당장 노젓을 먼저 물고싶지만 두사람 다 주춤거린다. 혁명동지한테 먼저 양보를 하는게 옳지.

《선생님은 후에...》

우동진이 말하며 눈짓을 하는데 시인은 아직 주변에 대한 관심을 할 형편이 못되어 그걸 보지 못했다.

우동진의 말이 아니래도 시인이 먼저 양보를 했다. 녀자를 돌보는게 사내구실이니 아무리 급하다해도 그래, 나이로 봐도 그래 그게 당연한것이다.

성순이 먼저 노젓을 물기로 했다. 성순은 데쳐낸 배추잎처럼 되어 노젓으로 별별 기여갔다. 그래도 처녀인지라 부끄럼이 들어 휘— 주위를 둘러본다.

앞의 배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부두로 돌아가는 길에 매번 《공훈배우》 처녀가 저렇게 부르는것이다.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

첫날부터 들어오는 그 노래다. 듣고들어도 싫지 않은 노래지만 오늘만은 그 노래에 대해 생각해볼 그리고 가수의 성량에 대해 감탄해볼 여유가 없다. 오직 이 멀미만 없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어쩐 일인지 둘러보니 뒤의 배에서도 그리고 앞의 배에서도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되어 보고있다. 다른 배에도 성순의 처지와 별로 다를바 없는 동무들이 있으니 남의 걱정을 할 처지가 못될텐데...

벌렁벌렁 기여가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하면서도 이것이 우동진의 장난이라는데까진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다만 노젓이 있는대로 기여가는 자기를 지켜볼 사람들앞에 부끄러운 생각뿐이다. 아서라! 부끄러움을 생각할 새가 있니? 그래도 시인선생이 나를 생각해서 양보까지 해주었는데. 빨리 물어 멀미가 가시거든 시인선생에게 넘겨주어야 할게 아니냐. 얼굴이 달아올라가

지고도 기였다. 우동진이 자기의 등뒤에서 씨물거리고있는데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 못한다.

노를 쫓고 젓게 고물의 뒤에 박은 쇠뿔이 바로 노젓이다. 거짓말이라는걸 모르고 살아온 순진한 처녀는 한시바빠 이 지겨운 멀미에서 벗어나려고 그 노젓을 물었다. 가판이 아닐수 없었다. 다 큰 처녀가 어머니의 젓을 문 형상이 되었다.

노젓의 딱딱하고 짜거운 맛이 느껴진다. 아마 파도에 맞아 염기가 오른탓일것이다. 노젓만 물면 당장 멀미가 가시리라고 생각했던만 아무 변화도 없다. 기대가 허물어졌다.

순간 와하하!— 웃어제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만에야 처녀는 머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보고 웃고있었다. 그때에조차도 성순은 노젓을 문 자기의 꼴이 우스워 웃는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우동진의 장난이라는것을 깨치지 못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곁에 있을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것이다. 우동진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가 히물거리며 바라보고있는게 아닌가!

자기를 끌려주기 위해 한짓이라는것이 명백했다. 분노때문에 얼굴이 구운 가재빛이 되었다. 처녀는 속에서 무엇인가 울컥하는 느낌에 당황하여 배전을 붙잡고 웃음을 바다쪽으로 쑥 내밀었다. 치밀던 역기가 내장의것을 다 끌어낼줄 알았는데 다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금 우동진에 대한 분노가 파랗게 살아났다. 그만에야 처녀의 눈굽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미때문에 대답조차 않던 시인이 우동진을 나뒀다.

《동진동문 첫날 일을 삭이지 못해 그런 장난을 한것 같은데 내 생각엔 너무 웅졸한것 같애. 상대가 녀자라는걸 생각해야지. 자기또래들끼리 그런 통을 했다면 몰라도 처녀가 아닌가?》

뒤늦게야 우동진은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래, 상대가 남자가 아니라 녀자다. 사내들끼리는 그런 장난이 웃음밖에 더 없겠지만 처녀에겐 그렇지 않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짓인가?

부두가에 도착하니 로동과장이 나와있었다. 딸이 양식직장에 온 뒤로 자주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다. 물론 구실은 다른 일이 있어서라고 했다. 와서는 딸에게 힘들지 않는가, 멀미는 없었는가 다

심히 물어본다.

옆에서 우동진이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 이제 로동과장이 딸을 끌려준걸 알면 가만 있지 않을거야.》

우동진이 미안한 생각을 하며 처녀쪽을 흘끔거렸다. 성순의 얼굴이 딸이 아니다. 멀미에 울기까지 했으니 그럴수밖에 없다.

고맙게도 처녀는 걱정어린 아버지의 물음앞에서도 입을 꼭 다물고 비밀을 지켰다. 아무튼 고마운 일이었다.

로동과장이 딸의 얼굴을 보고 성순의 정상이 멀미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는지 지뭇게 캐여물었다.

《너 울었구나. 바른대루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적당히 예들려 이야기해주었다.

《사실 별게 아닙니다. 장난을 좀 했을뿐입니다.》

로동과장이 단박 화를 냈다.

《그게 누구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 그게 아니예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도 로동과장은 딸을 끌려주었다는데 대해 분을 삭이기 힘들어한다.

《우동진이, 그자식이지? 내 다 알아. 이자식을 내 그저...》

옆에서 사람들이 키득거린다. 로동과장이 저렇게 성을 내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걸 아는것이다. 벌써 우동진은 어디로 달아뺐는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식당에 가서 입에다 썬평종게 밥을 퍼넣고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로동과장이 분노해서 큰일을 칠것처럼 저러지만 래일은 그저 허허 웃는것으로 끝이 날것이다. 장난으로 야기된 분노이니 오래 갈수가 없다. 그게 바로 생활인것이다.

4

우동진은 처녀를 끌려준 뒤 의기소침해졌다.

사실 이튿날 부두가에 나온 로동과장은 《다시 한번 그랬단 없어!》 하는 말로 끝을 냈지만 마음상 자책때문에 늘 처녀를 보기가 괴로웠다. 옆에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백번 잘못했다.

체대군인 남해봉이 어깨를 치며 말했었다. 《친

구, 무슨 사내가 그래? 처녀들과는 그런 장난을 하는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쪽에서 처녀에게 먼저 사죄를 했다. 보매 성순인 참 성격이 좋은 처녀였다. 우동진의 이야기를 듣고는 상글상글 웃었다.

《필요, 다 이해해요. 저도 너무했구요. 그저 앞으로 많이 배워주세요.》

둘사이가 이러니 하는 일도 재미가 있었다. 서로 서로 속도 터놓았다.

우동진이 성순에게 노래를 부르는걸 왜 거절했는가 물었더니 《직장장동지가 말씀하지 않았나요. 목소리로만 부르는게 아니라는걸 말이에요.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 긍지가 없이 내가 목소리만 곱게 내서 노래를 부르면 아마 동진동지부터 웃을 거예요. 아직 바다에 익숙되지 못한 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파도에도 멀미를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하고 말꼬리를 흐리마리하였다.

동진은 이해가 되었다. 처녀는 첫날 우동진이 아무래도 잘 사람인데... 라고 한 말을 정확히 이해했었다.

《전 아무데도 안 가요. 양식을 잘해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이 고기와 미역을 떨구지 않고 먹을수 있게 하겠어요. 그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이라고, 우리 아버지 늘 나에게 공부를 잘해서 양식장에 나가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우동진은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좋은 처녀구나 하고 새삼스러운 생각을 했다. 로동과장도 팬찮은 일군이라는 생각이다. 자식까지 양식에 세운 일군이니 우동진이라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처녀도 우동진에게 물었다.

《동진동지, 제가 하나 물어도 나빠 생각 안하시요?》

《음!》

《동진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는데 왜 사람들속에서 불평이 많다는 평을 받나요? 노래도 잘한다던데 노래도 부르지 않고, 아무래도 하는 일음...》

처녀는 우동진의 얼굴을 쳐다보며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낮빛이 달라지는걸 보며 그저 자기의 말을 이해해주기를 바랄뿐이었다. 처녀로서도 함께 일하는 청년이 남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게 진심으로 가슴이 아픈 모양이다.

우동진이라도 성순이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몰라서도 아니고 고칠수가 없어서도 아니지 않는가. 그도 모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걸 말이다. 그걸 알면서도 될대로 되라 하고 계속 었나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마 성순이네가 배치되어오기 전까지일것이다.) 그러느라면 어로공이 되고싶어하는 자기의 희망이 성취될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직장장이 《아무래도 우동진이 우리 양식에 재미를 못 붙이고있으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군.》 했다고 누군가 귀뜸해주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론이 제대로 돼간다는 확실한 근거라고 믿었다. 물론 자기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결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양식일이 재미가 없어요?》

성순이 또 물었다.

우동진은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아니, 일이야 뭘...》

《내가 아버지에게 말해줄가요? 다른데 꼭 가겠다면 말이에요. 여기에 맘을 못 붙이고야 10년 가도 나쁜 뒤소릴 달고다니겠는데 전 그게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만뒀!》

당장 도와달라는 소리가 나오는걸 꿀꺽 삼켰다. 왜 그만두라고 했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요즘 와서 자기의 직업문제에 어떤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한게 어리석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우동진이었다. 그것은 장인덕이나 남해봉이 같은 세대군인들을 제 생활에 비춰보며 갖게 되는 생각이다. 성순이의 정신세계를 알게 되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시인을 보면서도 가져보는 생각이다. 그가 때없이 수첩을 펼치고 시를 쓰는것을 보며 여기에도 좋은 시가 있고 노래가 있다고 한 그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제 와서는 시를 쓴다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다...

《악을 풀라!》

앞에서 날아오는 소리에 우동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배는 부두에 들어서고있었다. 기관선은 이미 기관을 멈추었다. 이제부터는 주련이 련결한 삭을 풀고 노를 먹여 필요한 위치에 배를 대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만짐을 실은 배가 그 판성력으로

로 앞의 배를 들이받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영
낙없이 사고다.

처녀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겼다. 서둘러 일어
나 삭을 풀어던지고 허둥지둥 고물쪽으로 넘어갔
다. 한쪽에 앉아 부지런히 꼬적거리던 시인도 주
위가 부산스러워지자 수첩을 호주머니에 찔러넣고
일어선다.

부두가 온통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
리로 떠나갈듯 하다. 송어잡이에 나갔던 75마력 만
능선 한척이 만선을 하고 돌아온것이다. 거기에 다
시마수확에 펼쳐나선 양식직장 매생이들까지 부두
에 들어서니 사실 누구네를 위해 노래를 울려주는
지 알수 없을 정도이다.

우동진은 슬슬 노를 저어 배를 고기배결에 붙
여놓았다. 그리고는 성순이를 불러 노대를 넘겨
주었다.

《그저 이렇게 슬슬 밀리지 않게만 하오.》

처녀도 아직 서툴기는 해도 이쯤한 노건사는
한다.

우동진은 고물의 널뚜쟁을 들고 거기서 다시마마
대를 꺼내 고기배의 갑판에 올려던졌다. 벌써 갑판
에는 이미 약속이 있었던듯 다부지게 생긴 어로공
청년이 나와있다. 올려던진 마대를 잡아끈다. 순식
간에 일어난 일이다.

어쩔?!... 아름답지 못한 우동진의 행동으로 일순
처녀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짙게 어린다. 양식장에
나오던 첫날 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던 청년을
보고 소리치던 직장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다
고 그를 불러 《여기 보세요, 이 동무가 나쁜짓을
해요.》 하고 일러바칠 용기는 없다.

노대를 쥔 성순이 조마조마해 지금 생산물을 부
리느라 혼잡판인 부두의 팔기중기밀을 바라보았다.
다행 일하는 정신에 직장장이 우동진의 《장난》
을 보지 못했다.

갑판에서 송어가 툭툭툭 다시마무지우에 떨어
져내린다.

《그거면 되겠어?》

고기배의 갑판에서 다부진 청년이 내려다보며 묻
는 소리다.

《만족해!》

성순은 미역마대를 꺼낸 자리에 고기를 던져넣는
우동진에게 물었다.

《그건 어디 쓸거예요?》

우동진은 처녀가 자기를 걱정해서 그러는걸 모르
지 않는다. 배심종게 웃었다.

《걱정할게 없어. 나 먹자고는 이런 장난을 하
지 않으니까!》

옆에서 시인도 걱정이다.

《그러면 안되지.》

《걱정마세요. 이게 나쁜 일이라면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우동진이 배짱을 부릴만도 하다. 얼마전 성순이
네가 처음 양식장에 나오던 날 고기를 받은 대신 인
사로 참미역을 받으며 선장이 산모소리를 한건 혼
히 둘러치는 거짓말이었지만 오늘 자기가 하는 일
은 정말 그런 일에 쓸것이다.

배들이 생산물을 부리우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
린다. 그래서 우동진이네는 차례를 기다린다.

우동진은 성순에게 여기서 기다릴것 없이 먼저
휴계실로 가라고 일렀다.

《저걸 올려줄테니 가지고가요. 생산물처리하는 혼
자 해도 되니.》

팔기중기에 다시마를 담은 그물망태의 고리를 걸
어주면 되는 일이니 이전에도 우동진이 혼자 하
고 성순이가 이런저런 일로 먼저 휴계실로 갈 때
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내키지 않는다. 그놈의 《리기주
의》 주머니를 처리해달라고 하니 말이다. 비행을
보고 비타협적으로 투쟁은 못할망정 공모야 어떻
게 하겠는가.

《난 너절한 일엔 끼이고싶지 않아요.》

곰상곰상 말을 듣던 처녀가 그렇게 나오자 우동
진이로서는 난감하다. 설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건 인민군대를 돕는 좋은 일이란 말이
요. ...》

우동진이네 이웃에서 인민군중대장에게 시집을
간 녀자가 해산을 하러 본가집에 찾아왔다. 어제
해산을 했는데 수산사업소에서 일하면서 미역이나
들고가기는 딱하고 생각한것이 고기를 몇마리 구
해가자는것이다. 그래서 어제 배를 타는 동무한테
미리 부탁했었는데 일이 되느라 그랬는지 마침 마
감생산물을 싣고 들어온 이 시간에 고기배까지 들
어왔던것이다.

그래도 처녀는 서운해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직장장동지에게 말
은 왜 안해요?》

《그럼 칭찬을 받을라구? 그건 안돼!》

그러니 우동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수 없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칭찬을 바라지 않는 이런 품성이야 좋은것이 아닌가.

성순이 미역과 고기를 넣은 작지 않은 주머니를 들고 부두가를 떠나는데 방금 부두에 올라선 직장장이 띄어보았다. 어린 처녀가 아무렴 나쁜짓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일꾼이니 그저 눈감고 넘어갈수는 없다.

《생산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는걸 모르진 않을텐데?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게지. 아버지 가 시켰을리는 없고...》

처녀가 놀랄가 은근한 소리로 묻는다.

성순의 얼굴이 활짝 붉어진다. 뭐라 변명을 한담? 우동진이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할수도 없고, 사실대로 말해 칭찬을 받을수는 더욱 없다. 그렇다고 맞춤형 거짓말을 둘러댈수도 없다.

《이건 사실...》

《허, 그럼 내가 내용두 모르면서 팬히 욕을 한거보군.》

직장장이 사람좋은 웃음을 짓고 다가와 주머니를 헤쳐본다.

《이런, 미역에 고기까지?...》

우동진은 그 모든걸 배에서 지켜보다가 일이 꼬여간다고 생각하며 부두에 올라 그쪽으로 다가갔다. 처녀가 자기때문에 욕을 보는것 같아 모른척할수 없었던것이다.

《직장장동지, 사실 그건 내겁니다.》

우동진을 보는 직장장의 눈길이 서늘해진다.

《우동진이, 자기가 하는 일에 타발이 없다면 내더 말을 하지 않겠어. 생산물에 고기까지 거래하구. 자격이 있어?》

그래도 소리는 높지 않다. 그만해도 다행이라 할것이다.

《저녁에 날 만나라구.》

우동진은 대답없이 자기 배에 뛰어내렸다. 자기의 직업에 대한 궁지가 없는 그때문에 미역 한주머니에 고기 몇마리를 놓고도 자격까지 논의되니 어처구니가 없다. 아마 직장장이 지금은 남의 눈이 있어 그쫘해두었지만 저녁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자기를 교정하려고들것이다.

그날 저녁 총화를 마친 뒤 우동진은 성순에게 문제의 꾸레미를 부탁했다. 처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집이 있었던것이다. 아무래도 직장장에게 불리워가면 늦어질것이였다. 자기가 욕을 먹는 일은 아직 뒤전이고 저녁전에 고기를 가져다주어 생선국을 산모에게 먹이는 일이 더 급하다.

예상외로 우동진을 맞는 직장장의 인상이 밝았다. 자기의 얼굴을 보는 유심한 눈길도 웃고있다.

《우동진이, 험이 들었던 말이야. 뭐, 칭찬이 싫어서라니 그쫘해두겠어. 팬치않아. 그러나 자유주의행동은 삼가해야 해. 우리 양식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니 자격도 있어. 내가 모르고 자격소리를 했으니 그건 량해를 하라구.》

우동진은 그때에야 성순이 직장장에게 모든 사연을 다 말해주었다는것을 알았다. 추궁을 각오하고 들어와 이런 소리를 들으니 속이 몽클해났다.

《내 하나 묻자구. 어떻게 어로에 가지 못해하던 동진이 여기에 그대로 있겠다고 결심했는지 말이야.》

《그건...》

진작 대답하자니 말문이 막혔다. 아직 이렇다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문득 어로공이 되겠다고 이 기슭에 제대배낭을 풀고도 혼연히 양식에 자기들의 초소를 정한 남해봉이와 장인덕이 떠올랐고 로동과장이라는 좋은 배경을 두고도 스스로 양식장으로 찾아온 성순이가 떠올랐다. 후에 알게 된바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인 로동과장도 바다양식을 추켜세우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네가 책임자라며 자기 딸을 우정 양식직장에 보냈다고 한다. 자기는 전혀 쓸게 없다고 생각한 양식장생활을 같이하면서 부지런히 시를 쓰던 시인선생도 떠올랐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다. 매일 폐사롭게 들어오던 《공훈배우》 처녀의 노래도 떠올랐다. 그 소리가 아름다운게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때문이라고 하던 직장장의 이야기도 생각난다. 언제부터인가 주위생활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짐을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우동진에게도 성순에게도 그날 일이 싹 잊혀진 때에 로동과장이 그 문제를 다시 들고나왔다. 누군가 이젠 지나간 일이니 하고 생각하고 말한것이 사달을 일으켰던것이다. 조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처녀를 그렇게 웃음가마리에 들게 하다니. 떨미에

시달리는 딸이 노젓을 무는것을 상상만 해도 분통이 터진다. 우동진이 룡으로 한 장난이고 또 이미 둘사이에도 화해를 한 문제건만 로동과장은 쉬이 분을 삭이지 못해 직장장에게 당장 성순이를 다른 배에 옮기라고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 직장장이 처녀에게 다른 배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지나친 놀음의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한 우동진은 배전에 서서 시무룩한 눈길로 성순이만 살피고있었다. 사내라는게 처녀가 생각없이 몇마디 한것을 속에 품지만 앓았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텐데. 솔직히 그의 아버지인 로동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처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렇게 되다니. 이것으로 처녀와의 관계는 끝나는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동진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글썽 성순이 다른 배에 가지 않겠다고 뻔친것이다.

《하하, 이런 참! 리해가 안되는군.》

직장장이 하는 소리다.

의외로 처녀가 상글거리며 말했다.

《전 이 배가 좋습니다.》

《원, 모를 소리다.》

사람을 다른 배에 옮기는 심각한 일인데도 옆에서는 그냥 변죽을 쳐댄다.

《배가 좋다는건 우동진이 좋다는 소리가 아닌가?》

《아아, 거 너무 바투 들이댄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새파래서 내쫓 처녀가 혼연히 대답한다.

《그래요. 동진동진 좋은 사람이예요.》

《으하하하!...》

《동진이 좋단 소린 침 듣는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본것 같애. 아무렴 처녀가 총각을 보는 눈이 정확하겠지 뭐.》

《동진이가 부러운걸!》

이것으로 직장장의 재배치는 흐지부지되고말았다.

락심해있던 우동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배에 내려서는 성순의 팔까지 잡아주며 반겼다.

《성순이, 고맙소.》

시인도 한마디 했다.

《내가 다 고맙구만.》

배들은 오늘도 바다로 나가기 위해 서두른다. 기관실에서 발동을 거느라 시동돌리개를 돌리며 씩씩거리는데 보인다. 우당탕 통탕!— 그 소리를 들으며 배들마다 삭을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련결한다.

《자, 떠나도 되겠지?》

직장장이 떠나기에 앞서 배들을 둘러보며 묻는 소리다. 이구동성 떠나자고 소리친다.

배가 떠날무렵 별안간 부두가가 떠들썩해졌다. 방송선전차의 음악이 부두가를 들었다놓은것이다. 모두의 눈길이 방파제쪽으로 향해졌다.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앞에건 112호군. 저기 선수에 선게 갑판장 몽규가 아닌가? 손까지 흔드는걸 보니 뭘 좀 잡은것 같구만.》

《저치들이 송어잡이에 나갔지?》

《그래, 우쭐했어!》

《뒤에건 19호 성만이네 배구만. 나간지 닷새젠데 홍계를 많이 잡았다고 무전이 왔다더구만.》

《저치들이 올리는데.》

방파제안으로 들어선 배들의 이물에 만선하고 돌아오는 선원들이 모두 나와선게 보인다. 그들을 맞이하여 방송선전차에서 《바다만풍가》의 노래선율이 울려나왔다.

포구엔 만선의 배 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

양식장으로 나가는 매생이들에서 누군가 두덜거린다.

《고기를 퍼들여올 때마다 노래를 울리며 축하를 해주는데 막 죽을 맛이구만! 맨날 가야 우리 양식엔 관심이 없으니...》

《그게 누구탓두 아니지. 우리가 지난해에도 계획을 못해, 그 전해에도 계획을 못해... 그러니 어떻게 축하를 받아!》

직장장이 하는 소리다.

《황금해의 역사를 창조하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구 일을 잘해 올해는 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으니 이제 축하를 해달란 소리를 하지 않아두 해줄거야.》

《지금까지 계획을 못했습니까?》

남해봉이 묻는 말이다.

《못했소.》

직장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자책어린 어조로 나직이 대답했다.

《모두들 인식이 잘못되어있으니 우리 양식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 양식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들을 차리지 않고있거던. 이제 우리 이 해안에서 다시마도 생산하구 해삼이나 성게양식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몫을 하면 누구도 양식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지 못할거요.》

남해봉도 직장장의 말에 생각에 잠겼다.

《청옥이, 우린 우리대루 사기를 올리자!》

직장장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친다.

인차 《공훈배우》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했다.

바다물위에 갈매기 날구요

정든 님 배머리에 옷자락 날린다

...

《역시 청옥이의 노래가 좋아!》

《우리 양식의 고정재산이다!》

《거 문제다. 이제 시집을 가면 말이야.》

《걱정마세요. 난 아무데도 안 가겠으니...》

《또 한곡 부르라구.》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성순이 자기가 한곡 부르겠노라 나선다.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한마디 한다.

《전 여기 양식장에 나와 일하면서 바다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이 양식공의 노래를 부를수 없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성순이 부른 노래는 《바다나물 풍년이라오》였다.

고기잡이 떠나간 님 만선기쁨 신킵을 때

다시마를 따는 나도 풍년노래 부른다고

얼씨구나 좋구좋아 바다나물 풍년드니

흥 이내 자랑 끝없다오

...

《저런!》

모두가 성순의 노래를 듣고 감탄했다. 물론 우동진이기도 속으로 혀를 찼다. 로동과장이 자랑을 할

만도 하다. 《공훈배우》처럼 고음이 아니고 중음인데 소리가 얼마나 구성진지 간장을 다 녹여내는 것 같다.

《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다노래가 참 많구만!》

누군가 하는 소리다.

직장장이 뒤를 돌아본다.

《그래, 많지. 근데 노래를 부를 자격에 문제가 있지. 일을 쓰게 못하면서 어떻게 양식공의 노래를 부르구 풍년가는 또 어떻게 불러? 그러니 우리 다 일을 잘해야 해.》

직장장의 소리에 모두가 생각들이 깊어서 한동안 말들이 없었다.

《직장장동지, 우리부터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남해봉이 하는 소리다.

그 소리에 장인덕이 또 발을 달았다.

《〈바다만풍가〉가 고기잡이에서만 울려선 안된다는걸 양식에 나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릴 믿어주시시오.》

《그래그래! 믿지, 믿지 않구!》

오늘에 와서 래일에 대한 확신은 직장장의 몫만 아니다. 우리의 제대군인청년들의 가슴에도 래일에 대한 확신이 든든히 자리를 잡았다.

뒤에 달린 배에서는 우동진이 고물의 갑판에 성순이와 나란히 앉아 무슨 이야기간 다정히 나누고 있다. 둘사이가 언제 저렇게 됐는가싶다. 이물에 앉은 시인은 무엇인가 오늘도 부지런히 쓰고있다. 이제 앞으로 황금해의 력사가 창조되는 오늘의 벽찬 현실을 반영한 노래가 더 많이 나올것이다. 그건 믿어도 된다. 저 시인이 바로 그래서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것 아닌가.

오늘도 다시마수확이 말없는 경쟁속에 벌어진다. 한쪽에선 문어단지를 들어보며 세소어업의 재미도 본다. 이것도 생활이다. 문어가 잡혀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다. 점심식사에 색다른 문어회가 오를수 있어 좋고 또 누구네 새각시가 입쓰리를 하며 문어를 찾는다니 거기에 보내줘도 좋다. 누구네 아버지 생일이라 해서 요구되고 또 누구네 아이 돌생일이라 해서도 요구된다. 없어서 더 못 파는 수산물상점매대가 얼마든지 요구한다.

남해봉이네와 성순이네가 처음 배치되던 날 문어를 잡지 못해 몹시 실망해하던 청년이 오늘은 두

마리씩이나 잡아올려 양식공들이 웃고 떠들며 좋아서 야단이다.

돌아오는 배길이다. 오늘도 등실한 멸기가 배전을 한쪽으로 밀어가며 밀려온다. 배가 또 주정뱅이처럼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바로잡는다. 시인도 성순이도 이전처럼은 급해하지 않는다. 징조가 좋다. 그게 바로 점점 파도에 아니, 바다에 익숙된다는 소리다.

전에는 시인이 우동진의 물음에 대답조차 하기 싫어하더니 오늘은 그 멸기에도 말은 건다.

《동진동문 시를 쓴다고 자랑을 하더니 왜 시를 쓰는걸 한번도 볼수 없소?》

우동진이 옆에 나란히 앉은 성순이쪽을 보더니 먼구스러운 낯으로 대답했다.

《선생님, 사실 시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제가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시를 쓸수 있겠습니까?》

시인도 그 소리에 뜻있게 머리를 끄덕인다.

앞에서 직장장이 우동진을 불렀다.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직장장이다.

《동진이, 이젠 노래를 부를 때가 되지 않았어? 한번 들어보자구.》

우동진은 성순이가 노래를 부르며 한 소리를 듣고 자기도 언젠가는 이들 양식공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리라 생각했다. 양식공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될 때 말이다. 그러나 이른감이 있어도 청하는 걸 사양하고픈 생각은 없다.

...

마중가며 잡구요 어그여차 따라가며 잡구요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우리 정성 우리 기쁨 풍어기로 나뭇겨라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히야! 동진이도 명창이구나.》

흥이 난 양식공들은 우동진의 노래를 따라불렀다.

《좋구나!》

모두가 어깨를 들썩인다.

그래그래, 높이 부르자. 어로공의 노래만이라.

양식공의 노래도 좋지! 그뿐인가. 바다양어의 새 노래속에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고 대서양연어가 우리의 바다에서 뛰노는게 오늘의 현실이니 정말이지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우리네 바다에 얼마나 노래가 많은가! 우리 이 좋은 바다의 노래를 사랑으로 부르자, 긍지로 부르자, 황금해의 창조자 된 자격으로 부르자!

아쉽다. 처녀들만 양식공인것처럼 지은 어제날의 노래가 서운하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자. 이제 시인선생이 처녀들과 어울려 일하는 우리 양식공사 내들의 노래를 짓거든 그때 맘껏 부르자.

아니, 모른다. 그 노래를 이 우동진이가 지을지도 말이다. 어제날의 우동진이가 아니니까.

배들이 부두에 도착할무렵 방송선전차에서 양식공들을 축하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이어서 경쾌한 음악이 울린다.

《하, 정말 우리 양식을 축하한다?!》

《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게 되었으니 축하를 받을만 하지, 뭘 그래?》

우쭐한 목소리!

부두가에 로동과장이 나와선게 보인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 자기의 딸과 우동진이 나란히 선데 놀란다. 이미 다른 배에 넘어갔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직장장이 사색이 된 로동과장에게 눈을 끄쩍했다.

《난들 별수 없었습니다, 성순이가 가지 않겠는데. ...》

딸의 결심이라니 더 할소리가 없다.

그러나 딸을 올린 일만은 그저 넘길수가 없다. 목표로 하고 부두에 섰으니 우동진이도 몸을 사릴수가 없다.

《우동진이, 내가 있는 한 넌 절대로 다른데로 못 간다는걸 알아!》

헌데 우동진의 천연스런 대답이 로동과장을 아연하게 했다.

《걱정마십시오. 이미 결심하고있습니다. 가라고 쫓아도 이젠 다른텐 안 가겠습니다. ... 정말입니다. 두고보십시오.》

로동과장의 눈이 커졌다. 1년째 줄곧 어로선단에 가겠다고 떼를 쓰더니 어떻게 된거야? 직장장이 로동과장의 귀에 대고 가만히 말했다.

《제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는데 가자고 할게 뭘

그는 어디 있는가

한 옥 란

이른봄 살얼음진 논판에
소를 몰아 썰레치며
걸어올린 바지가랭이
마를새 없던 우리 군당부원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기름가득
소달구지에 싣고
포전으로 달려온 첫날
누구인가 묻는 우리들에게
새로 배치된 농장원이라던 그

날도 밝기 전 어느새
한모판 다 뜨고
모뜨기전투장이 들썩하게
승리의 노래 불러주던 그 모습

모내기운전공의 등을 떠밀어
밤새도록 교대운전공이 되었고
휴식참엔 구수한 당정책해설로
심장마다에 불을 달던 그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맨 앞장에서 김매기전투에로
작업반을 이끌더니

사상일군대회에서 받아안은
원수님의 연설 피와 살이 되어
그 뜻에 살고 그 뜻에 일한다고
온 농장이 따르던 우리 군당부원

오늘도 어느 농장원의
가정일을 두고
그토록 남모르게 마음쓰던 그
혹시라도 수 십리 밤길을 간것은 아닌지

힘들어도 얼굴에 그늘지은적 없고
농장원들의 친오빠 친아들되어
집집의 웃음꽃 피워주던 그를
저마다 찾고부르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군당부원은
봄내 여름내 땀을 묻어 마음을 묻어
황금이삭 설레이는 이 벌
웃음꽃피는 풍요한 이 가을엔...

니까?》

이건 또 뭐야? 결코 말귀가 어두운 로동과장이 아니다. 당장 눈이 뒤집힐 일이다. 그런들 할수 없는 일이다. 가겠다고 하는것도 막는판인데 있겠다 는거야 어떻게 쫓는단 말인가. 거기에다 팔쪽에서 옮겨가라는것도 가지 않았다니 누굴 욕한단 말인가. 확인이라도 하려는듯 우동진과 나란히 선 딸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 헌데 이런 안타까울데라구야. 딸은 아님보살하고 판전을 보고있지 않는가.

《우리 양식에 관심을 해주어 끝끝한 제대군인들을 보내주구 딸까지 보내줘 눈만 찌지면 달아나겠다구 들썩거리던 우동진이까지 양식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순이 그 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 모른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급해하지 않는다. 벌써 바다사람들의 성격을 리해한것이다.

우동진이도 로동과장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직장장의 소리를 들었다. 입을 삐죽했다.

(쳇, 알기두 잘 안다. 내가 그래 처녀나 마음에 들어 양식에 그대로 있자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동진은 직장장의 말도 정 그르다 할수없음을 내심 인정하느터였다.

누군가 옆에서 한수 더 뜬다.

《우동진이, 팬찮아!》

그만에야 양식공들의 웃음소리가 부두가를 떠들썩 들었다놓는다.

가을이 조국을 향해 웃고있다

리 진 협

살도 잘진 이삭들을 늘어지게 드리우고
별써 그 인사들이나
무연한 벌마다에서 주인들에게 삼가
곡식포기들의 큰절이 시작된 계절

거름층깊이 욕심스레 뿌리를 뻗치며
지금껏 흘려준 나의 땀에 젖었는가
다 자란 포기포기 푸짐해진 그 모양
허, 살도 졌다 거름살이 올랐다

겨우내 봄내 거름으로 살지운 포전
한여름에도 진거름은 벌로 나갔거니
탐탐스레 이삭목 빼어들고서
나를 알아보는가 포전마다 반기는 이삭

벼에 강냉이뿐이라던가
저기 콩포기도 그 논배미 그 이랑들이 좋더라고
줄기로 잎새로 땅자랑도 다투더니
이삭 여물 때까지 서서 보아달라누나

부끄럽지 않구나 바쳐온 그 진정
두령을 베고 잠을 청하면 잠도 꿀잠이리
포기들이 지워주는 그늘에 땀도 들이며
근심없는 이랑베고 큰 꿈도 꾸고픈 마음

이른아침 늦은 저녁 월사이 언제없이
눈비에 젖고 별에 타며 이 몸을 다 바쳤더니
무심하다 말 말라는듯 이 큰절들인가
힘겨웠던 날들을 기쁨으로 돌려주는 별

어, 누가 알랴
이런 밋에 벌을 바라보며 눈굽을 짖는 마음
이런 밋에 벌에 땀과 함께 한생을 묻는 마음
이런 밋에 벌을 떠나서는 못살것 같은 마음

어허, 지평선 하나가득 낚알쑤이 섰다
이 한해 나라앞에 성실해온
농민의 량심이
조국을 향해 몇몇이 머리들고 섰거니

영글어라 조국이 흥하게 어서 더 잘 영글어
내 드리는 큰절되여 머리깊이 숙여다오
땀에 젖은 큰절이다
이해에도 선군조국에 농민들이 삼가 드리는!

농민들의 큰절이야 그런 이삭이 아니라
오, 조국이 바라는 그 이삭을 안고
가을이! 큰 가을이 조국을 향해 웃고있다
조국에 바친 농민의 삶을 노래하고있다

나의 당원증

문 선 건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에도
젖품을 찾는 아기처럼
한낮에도 깊은 밤에도 때없이
소중히 쓸어만져본다
나의 당원증

만져보면 작고 가벼워도
여기엔 다 실려있구나
불타는 전호가에서

처음으로 당원증을 받아안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지난날들이

다 있구나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들을 쳐부시던
351고지전투의 낮과 밤도
용해장에서 끓여온 붉은 쇠물도
당일군으로 사람들을 찾아 걸던
그 이슬젖은 새벽길도

당원중이여 너는
엄격한 당생활의 채찍이었다
내 때로 잘 익지 않은 죄물을 두고
출강을 서두를 때면
너는 수령님의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고
맏째게 심장을 내려치는...

너는 티없이 맑은 생활의 거울이었다
한톤의 죄물을 끓여도
결사관철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때도
걸음걸음 나를 비쳐주는...

아, 밝은 날에도
눈비바람 사나운 날에도
수령님 위해 한목숨 바쳐
조국을 수호하리라 맹세다지던

입당의 그날에 말없이 세워주는
나의 당원증

가만히 만져만 보아도
이 심장의 붉은 피
백두의 혈통으로 뛰게 하고
온몸에 백배 천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나의 당원증

아, 나의 당원증은
죽어도 드림을 모르는 신념의 증표
경애하는 원수님 이끄시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당원으로
끝까지 생을 빛내일
내 삶의 땀땀한 증표다

우리네 조선옷 세상에 으뜸일세

최 희 정

입을적마다 애뜻한 마음
야릇한 정서로
마음마냥 설레는
조선치마저고리

입고들 나서면
한떨기 꽃이런듯
아름답기 그지없는
치마저고리

그 옛날에 처녀들
첫날옷차림으로
아름답게 나섰던
다홍치마 노란 저고리

오늘은
천가지 만가지
고운 색 골라골라
레스로이 입고나선
차림새가 되었으니

연청색비단치마저고리
붉은 모시 삼회장저고리에
청실홍실 곱게 엮은 노리개도 살짝
굽이굽이 열두폭비단으로

후려지른 꼬리치마

가리마 곱게 타고
쪽진 머리에
비너까지 정히 지른
우아한 모습

그만이 멋이더냐
깃과 도련 미출한
금비단바지저고리
차려입고 척 나서니
로인님들 그 젊음에
거리 또한 밝아지네

아, 정들어라
마음에 따뜻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조선치마저고리
조선바지저고리

선군으로 빛나는 이 하늘아래
천년만년 만발할 민족의 넓이여
우리네 조선옷 세상에 으뜸일세
사회주의 내 나라 더더욱 눈부셔라

시 초

나는 남강의 녀인이다

김 명 옥

어머니의 사진

흰 저고리 어깨우에
가득나무잎 끼워엮은 위장망
세월속에 희미하게 색바랜
우리 집 사진앨범속에 있다
전승의 그날을 길이 믿어
오늘도 환히 웃고있는
그날의 나의 어머니와 마을녀인들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원췌의 불소나기속에서도
장군님 주신 땅을 억척같이 지키
기름지워 가꾼 이들

숨지면서도 놓지 않은 소고빼
달밤에도 이랑이랑 그들이 묻은 씨앗
정녕 가을이 가져다주는 이삭만이더냐
고향의 별마다 피로 무르익힌 알찬 열매들

그것은 전선으로 보내는
총탄이었다

포탄이었다
고지의 중기마다 방열통이 달도록 물리워진
끓길줄 모르던 복수의 총탄알들이었다

전사한 남편과 아들의 소식앞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남강의 다리가 되어
어깨와 어깨를 내댄 녀인들
그 녀인들 어깨와 어깨를 넘어
전승의 그날이 왔던가

바라보면 사진속의 저 녀인들
모두 어디에 있느냐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의 불구름을
가서낸 그들

그들은 가지 않았다
그대들의 숨결 그대들의 뉘트로 자란 우리
준엄한 그날이 오면 우리 사진속 저 자리들에
모두 들어설
아, 나는 남강의 녀인이다

우리 집 나무밥함지

정히 닭는다오
오늘도 떠날 차비 서두르듯이
뜨거운 김서린 우리 집 부엌
당반우에 놓여있는 나무밥함지들을

그러면 툭툭 내 가슴속에
미쳐온다오
그날의 어머니숨결이
어서 고지로 고지로!

남편들을 전선으로 보낸 세 며느리와
딸들을 모두 이끌고 불기둥 솟구치는
저 월비산, 351고지
불탄 소나무 고개길로 무수히 달린
어머니의 땀젖은 잔등이 보여온다오

포연에 그슬린 나무밥함지
녀인들의 머리우에서 내리워주며
전사들 목메여 불러보던 그 이름
어머니—
누나—

고향과 이름들은 모두 달랐어도
이 땅을 피로 지킨
그날의 고지 영웅전사들이
오늘도 모두 한식술처럼 보여오는
우리 집 나무밥함지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이
오늘도 그 준엄한 50년대를
저 밥함지에 띄우고 가는
우리 집 나무밥함지라오

고지와 우리 집

출렁출렁 장마비에
강물이 사품을 쳐도 주저없이

주렁진 애호박들을 모두 따서
토장국에 부글부글 끓여 한버치 이고

병사들을 찾아 떠나야 가슴이 후련해

쟁글쟁글 피약벌에
잔등이 익어도 땀을 씻으며
터밭의 꽃고추 모두 따서 한판주리 담아이고
싱싱한 햇마늘포기 단으로 묶어묶어 옆에 끼고
저 강건너 고지로 올라야 직성이 풀려

계절과 계절을 이어 무르익은
마당가의 앵두나무 뒤뜰의 살구나무
순을 따라 싱싱히 오르는
줄당콩이삭들이 누렇게 익어도

저 강건너 고지로 먼저 생각이 가닿는 마음

식탁우엔 바다향기 넘쳐나고
초소에 부업농사 푸짐하다고
그만그만 자꾸자꾸 사양을 해도
자꾸자꾸 더 자꾸 가고픈 마음

유유히 흐르는 남강의 저 흐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듯
선군을 피줄로 잇고사는 고지와 우리 집
정녕 우리 집 추녀 우리 집 프락
저 고지가 아니던가

남강의 물은 왜 맑은가

얼음풀린 남강의 기슭
하얀 비누거품 피워올리며
팡팡 방치질하다
문득 가슴을 치는 생각
남강의 물은 왜 이리도 맑은가

하얀 빨래 행구면
금시라도 파아란 물이 들듯
늪실대는 물결을 바라보아도
다시금 가슴에 젖어드는 생각
남강의 물은 왜 이리도 맑은가

내 머리들어 바라보면
눈뿌리 시도록 마주오는 저 고지들
한웅큼 물이라도 흐려질세라

밤을 새운 병사들 철갑모에 흐르던
이슬들이 모이고모여 남강이 맑던가

그러면 들려오는
폭탄이 작렬하던 아츠러운 그 소리
불소나기에 남강이 뒤집혀
사품쳐끓던 소리
또다시 이 가슴 세차게 흔드누나

다시는 오, 다시는
이 남강의 물 흐려질수 없기에
총부리를 억세게 내댈 저 고지와
피줄기를 잇고사는 이 마을 저 마을
녀인들의 가슴을 적시며 흘러서인가
남강의 물은 이리도 맑다오

나는 남강의 녀인이다

레년에 없이 들이닥친
자연재해 왕가물
초들초들 말라버린 강냉이포기들
부여잡고 안타까이 가슴만 쥐어뜯는다면

터갈라진 논판에서
타드는 벼포기들을 바라보며
순간도 맥을 놓고 내 주저앉는다면
그날의 원썩들이 너털웃음을 치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리

아니다 아니
남강의 물을 통채로 다 퍼서라도
그대들이 찾은 한치의 땅 한배미의 논에도
애국의 이삭이 푸르게 할
그날의 당부를 안은
나는 남강의 녀인

밥함지를 이고지고 불사신처럼
그날의 녀인들 저 탄우속을 달렸다면
지금은 물통을 탄약처럼 이고지고
온별을 심장의 피로 다 적시고야말
나는 남강의 녀인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그날의 격전장이 저 고지에만 있던가
내 가꾸는 저 벌이
오늘은 우리 행복을 수호하는
치열한 전투장

사랑하는 내 고향의
이 벌을 지켜
이 땅을 지켜
죽을수도
물러설수도 없는
나는 남강의 녀인이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전쟁로병들의 정신세계를 더듬어

윤 혜 영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우리 당을 받들어 우리의 영광스러운 공화국을 지켜 백옥같은 충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발휘한 전쟁로병들—전승세대의 고귀한 헌신의 자욱은 이 땅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이들의 고귀한 생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반영한 소설작품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사상적혈통, 조국수호정신을 계승시키는데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곳곳이 이겨내고 당을 따라 선군혁명전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신념의 기동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세워준 전쟁로병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혁명가적품모의 귀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내세워주신 전쟁로병들의 대오에는 이 땅을 떠나간 영예군인 1세대들도 서있다.

지난 기간 우리 문단에서는 전쟁로병들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위훈과 전후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의 헌신적투쟁을 진실한 화폭에 담아 그려보인 성과작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그러한 작품들을 본다면 《선광장》(권정룡, 《조선문학》1954년 5호), 《편지》(정해운, 《조선문학》1955년 10호), 《백일홍》(권정웅, 《조선문학》1961년 9호), 《로동수첩》(박완근, 《문학신문》1961년 4월 2일부), 《로동당원》(엄단웅, 《청년문학》1962년 2호), 《생의 노래》(최재석, 《조선문학》1964년 10호), 《광부》(김보형, 《조선문학》1966년 5-6호), 《출장길에서》(최재석, 단편소설집 《영광의 시대》1984년판), 《퇴근길에서》(백남룡, 조선로동당창건 40돐기념 작품집 《당은 우리 어머니》1985년판),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장기성, 《조선문학》1988년 2호), 《기차는 정시로 간다》(정기중, 《조선문학》1994년 6호) 등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장편소설 《영원한 병사》(김홍무, 1998년), 중편소설 《259호지점》(림재성, 1978년), 《들장미》(박태수, 1989년) 등을 비롯한 장, 중편소설들도 창작

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그려진 영예군인들의 형상은 주체형의 혁명적인간의 고상한 특질들로 성격화된 것으로 하여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영예군인들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성격적책으로 명백히 심어주고있는것이다.

우리 영예군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열렬한 투사들이고 충직한 전사들이다.

이로부터 영예군인들을 형상한 소설문학에서는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오면서, 세대와 세대를 물려오면서 그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투철한 헌신성을 성격의 근본핵으로 그려보여주었다.

단편소설 《백일홍》에서는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보람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현우혁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투철한 헌신성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현우혁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안락이나 공명은 추호도 모르며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보건말건 성실히 일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자각적인 인간이다.

사실 현우혁은 전쟁때 포탄실은 철차를 수송하다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영예군인으로서 제대된 후 모든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자진하여 랑림산줄기의 선로락석감시원으로 온다. 그는 자기 몫은 물론 두일이의 몫까지도 맡아가지고 성실히 일한다.

그의 이러한 성격의 바탕에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이 놓여있다.

상호등사건때 그는 안해인 금녀에게 《인민앞에 죄를 지었소. 규율을 위반했소.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달리는 철차에 내가 제동을 걸었소.》라고 심각히 비판하면서 《당과 김일성원수님의 배려에 보답해야 한다는것을 항상 기억해야》한다고 진심으로 일깨워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충정의 일념,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맑고 깨끗한 당적량심과 고귀한 혁명적자각성, 자기희생적복무정신이 빛나고있는 것이다.

실로 아름답게 피어난 한떨기의 백일홍과 같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는 현우혁의 형상은 인간의 삶의 보람과 가치, 혁명적자각성에 대한 문제에 깊이있는 해답을 주는 의의있는 인물성격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우혁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아름다움은 두줄기 궤도의 침묵이 되고 혁명의 주추돌이 되는데 있다는 사상적인 핵을 박아 넣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보람과 가치는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을 안고 누가 보건말건 붉게붉게 피어나는 백일홍처럼 변함없이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있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뿐만아니라 단편소설 《기차는 정시로 간다》에서 차일문의 형상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고있는 영예군인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국적헌신성에 대한 예술적해명에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차일문에 대한 뜨거운 고무격려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사실 철길원이란 별로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치며 보란듯이 하는 일도 아니다. 그저 말없이, 사시장철 변함없이 실농군이 논밭을 다루듯 꾸준히 일해야만 하는 말그대로 숨은 노력이 깃들어야 하는 직업이었다. 사람들은 조국산천을 찌렁찌렁 울리는 철차들의 기적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길의 침묵과 같이 숨은 노력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 있다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일생을 두고 귀중한 재보로 간주해야 할 고귀한 믿음을 받아안은 차일문은 실지로 그것을 지켜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의 동맥을 지키는 보답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바로 그때부터 차일문은 이 철길의 참된 주인이 되고 초병이 되었다. 어제도 해왔고 오늘도 계속하는 일이지만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매일 수십리길을 어김없이 오가며 돌을 굴리고 물도랑을 파냈으며 철길주변의 늪은 나무들을 모두 새 나무로 바꾸어 심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자기 철길구간에서 시시각각으로 제기되는 침묵문제, 그것도 다량적으로가 아니라 불과 몇대씩 필요한 침묵을 계속 우에 손내밀어 해결할수 없다고 생각한 이 애국심에 불타는 인간은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린 그 한해에만도 200점의 침묵을 자체로 만들어 깔았으며 몇해여간에 자기가 맡은 구간의 침묵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할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는것이 없었다. 그의 소원은

한가지였다. 그저 힘이 진할 때까지 철길우에서 일할 그 한생각뿐이었다.

차일문과 같은 전쟁로병들은 영예군인 1세대들로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한 영예군인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혁명전사의 마땅한 도리로 간주하고 혁명의 기차가 정시로 달리도록 한생을 철길의 침묵처럼 바쳐온 이름없는 한 영예군인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충실한 전사, 조국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라면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혁명이라는 거목을 떠받드는 역세인 뿌리가 되고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또렷게 가르치고있다.

마지막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마지막숨결이 다할 때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과 슬기로운 우리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무한히 헌신하려는 투철한 혁명정신이 영예군인들의 온몸과 육체를 지배하고있었기에 그들은 순결한 량심과 혁명적자각성으로 자기의 한생을 빛내어나갈수 있었다.

한편 중편소설 《들장미》에서 림근석도 당과 수령께 충실한 참된 아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인 훌륭한 아들딸들의 전형으로 그려져있다.

전쟁시기 《들장미》라는 대호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온 사단을 들었다놓은 정찰병인 림근석은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도 부대의 전투승리를 위해 자진해서 적들의 로케트포중대를 습격파괴하고 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이다. 그와 같은 영예전상자들의 위훈을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알고있기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웅당 혜택을 받으며 편안히 살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당과 수령께 충직한 림근석과 같은 참된 인간들은 결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무한한 헌신 이외에는 다른것을 몰랐다.

림근석은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를 현지지도하시다가 길가에서 발벗은 아이를 만나시여 그토록 가슴아파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근심을 로동당원 림근석은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생각되는것이 많았소. 만일 수령님께서 우리 홍포땅에도 오시여 또 그렇게 맨발벗은 아이를 보시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소. 그건 죄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두번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생각이 그래선지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의 신발만 자꾸 살피게 되는데 그럴수록 신발수리가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는것이였습니다.》

이처럼 수령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전사의 응당한 본분으로 자각한 림근석이였기에 한다리가 없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신발문제를 개인수공업자들에게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로동당원들이 틀어쥐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발수리공일을 맡아나섰

고 종당에는 술선 받기하고 앞장에서 투신하여 영예군인들이 운영하는 구두공장까지 일떠세울수 있었다.

결국 림근석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을 원동력으로 하고있었다.

림근석은 또한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헌신적이고 사람들앞에 끝없이 량심적이며 자기 맡은 일에 비상히 진취적인 인간이었다.

하기에 그는 야영가는 동네아이들로부터 시내 인민들, 지어 출장왔다가는 길손들에 이르기까지 맞다드는 모든 사람들의 충실한 봉사자로 되어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할수 있었고 그들에게서 군은련대성과 지지를 받을수 있었으며 구두전문가로도 될수 있었다.

그는 주문받는 모든 신발을 하나같이 성심성의로 수리해주었으며 철따라, 추세에 따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안을 연구하고 표준문수를 조사하면서 말그대로 불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밖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우다가 한다리를 잃고도 전후 목장지배인으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이신작칙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참된 로동당원 영수아바이(단편소설 《로동당원》의 주인공), 당장 다리를 절단할수도 있는 힘겨운 육체적상태는 아랑곳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나라의 과수업을 발전시키

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는 황무성, 동지들의 치료회복을 위하여 같은 영예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먼저 새로운 수술방법실험에 자기 몸을 내던설옥주(장편소설 《행복》에서)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장, 중, 단편소설들에서 영예군인들이 지닌 당과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감동깊이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전사회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도록 교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러한 당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우리 문단에서는 지난 기간 전쟁로병영예군인 1세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우와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성격적책으로 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 전승세대들의 형상을 더욱 감동깊게 형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10호 (루계 제816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10월 1일

발 행 주체104(2015)년 10월 5일

ㄱ- 56245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